

석사학위논문

샤일로

Shiloh

필리스 레이놀즈 네일러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한영과

전 홍 은

2005년

석사학위논문

샤일로

Shiloh

필리스 레이놀즈 네일러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한영과

전 홍 은

2005년 7월

# 사 일 로

지도교수 박 경 란

전 홍 은

이 논문을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5년 7월

 전홍은의 통역번역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심사위원장 \_\_\_\_\_인  
심사 위원 \_\_\_\_\_인  
심사 위원 \_\_\_\_\_인

제주대학교 통역대학원

2005년 7월

# Shiloh

Hong-Eun Jun

(Supervised by Professor Kyung-ran Park)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Department of Korean-English  
GRADUATE SCHOOL OF INTERPRET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uly 2005

## 목차

### ABSTRACT

제 1 장 .....	1
제 2 장 .....	7
제 3 장 .....	14
제 4 장 .....	20
제 5 장 .....	26
제 6 장 .....	32
제 7 장 .....	40
제 8 장 .....	46
제 9 장 .....	51
제 10 장 .....	57
제 11 장 .....	63
제 12 장 .....	69
제 13 장 .....	75
제 14 장 .....	80
제 15 장 .....	87
뒷 이야기 .....	99
작가 소개 .....	102
커버 스토리 .....	103
참고 문헌 .....	104

## Abstract

Marty Preston, an eleven-year-old boy, finds an beagle near the old Shiloh schoolhouse in his hometown. His family of five has barely enough food and room for themselves, so they can't afford a pet. But Marty falls in love with the beagle pup and named it Shiloh after it follows Marty to his house. Later, he discovers that Shiloh is the lost dog of Judd Traverse who abuses his dogs. Marty's upright parents insist that he return the dog to its owner.

However Shiloh runs away from Judd again and again and keeps coming back to the Prestons. Eventually, Marty decides to hide the dog from Judd and builds a pen in the woods and provides food for it from saving his own. However, he keeps it secret, being not sure whether he is doing rightful things.

Then, at one night, a big German shepherd attacks Shiloh in the pen. That makes Shilo get hurt badly and even after it recovers, it gets to limp and Judd discovers where his dog is and demands that it be returned.

But Marty is determined not to get the dog back to Judd. On his way to Judd's house, Marty happens to witness Judd shooting to death a off-season doe. Judd needs to allure Marty from reporting his illegal hunting, while Marty wants the dog badly. Eventually, they make an agreement that Shiloh will become Marty's dog after Marty finishes 40 hours' labor for Judd.

Even though Judd has Marty do a much harder work than Marty can bear and tests his patience and honesty all the while, Marty fullfills his share of the deal, doing his best. In the end, Marty owns the dog that his whole family come to dearly love.

## 제 1 장

샤일로가 찾아 온 그 날의 일이다. 우리 가족은 푸짐한 일요일 점심 식사 중이다. 데러 린은 평소 좋아하는 식으로, 유리컵에 담긴 차가운 차에 빵을 적시고 있고, 베키는 접시의 가장자리 쪽으로 콩알들을 재빨리 밀어 접시 아래로 떨어뜨리려 한다.

엄마는 그런 우리를 보고는 못마땅한 표정을 지으신다. “단 한 번만이라도 너희 중에 누구라도 음식을 해준 대로 바로 입으로 넣는 걸 좀 봤으면 좋겠구나.”

그러나, 이것은 나를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렇다고 내가 튀긴 토끼고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난 그걸 좋아한다. 단지 총에 맞은 부분이 있을까 봐 고기조각을 일일이 살피는 것뿐이다.

“그 토끼, 이미 자세히 살펴봤단다, 마티, 그리고 그 넓적다리에는 산탄이 없는 것이 분명해.” 아빠는 빵에 버터를 바르면서 말씀하신다. “나는 목에 대고 쫓거든.”

아무튼 아빠가 그 말을 하지 않는 편이 더 나왔을 걸 그랬다. 나는 그 고기를 접시의 한 쪽에서 다른 쪽으로 고구마 사이로 밀어 버리고는 다시 그렇게 한다.

“토끼는 죽지 죽었어요?” 나는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그 토끼고기에 입을 댈 수가 없다.

“곧 죽었지.”

“아빠는 토끼 머리에 명중시켰어요?” 동생 데러 린이 물었는데 동생은 말하는 게 늘 이런 식이다.

아빠는 대답하시기 전에 음식을 정말 천천히 씹으신다. “그 정도까진 아니야.” 계속 음식을 드시면서 말씀하신다.

바로 그 때 나는 식탁에서 일어난다.

일요일이 가장 좋은 점은 정오에 푸짐한 식사를 하는 것이다. 일단 배불리 먹으면, 다시 배고파지기 전까지는 웨스트 버지니아 온 지역을 돌아다닐 수 있다. 다른 날 같으면, 저녁 식사 후에 출발해서 돌아올 때면 이미 날이 어두워져 있는 것이다.

나는 3월의 내 11번째 생일날에 아빠가 선물로 준 0.22 인치 구경 소총

을 가지고 뭔가 좀 쓸 만한 것이 없나 하고 길을 나선다. 나뭇가지 바깥쪽으로 나온 사과 열매 하나를 찾아서 총으로 썬서 떨어뜨릴 수 있나 시험해 보고 싶다. 울타리 담에 캔 몇 개를 늘어 세우고 총으로 썬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것이든 난 움직이는 것은 결코 쏘지 않는다. 그리고 싶은 마음이 든 적은 전혀 없었다.

우리는 프랜들리 위의 언덕에 살고 있지만 이곳이 어디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프랜들리는 윌링과 파커스버그 사이의 중간지점인 시스터빌의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 아빠가 그러시는데, 예전에는 시스터빌이 주 전체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 중의 하나였다고 한다. 누군가가 제일 살기 좋은 곳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나는 우리가 있는 바로 이 곳, 삼면이 언덕으로 둘러싸인 방이 넷인 작은 집이라고 말해 줄 것이다.

나에게 오후는 언덕을 오르는데 두 번째로 좋은 때고, 제일 좋은 때는 아침, 특히 여름하고도 아주 이른 아침이 최고다. 어느 여름 날 아침에 나는 세 종류의 동물을 보았다. 고양이, 개, 개구리, 소 그리고 말 같은 동물은 빼고. 마멋 한 마리, 새끼 두마리와 같이 있는 암사슴 한 마리 그리고 불그스름한 머리를 한 회색 여우 한 마리였다. 틀림없이 이 여우의 아버지는 회색 그리고 어미는 붉은 색일 것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산책로는 이 텃밭거리는 다리를 가로질러 오래 된 사일로 기숙사학교 건물 옆으로 구부러지는 길이다. 길 한 쪽편에는 강이 있고 다른 쪽에는 나무들이 있으며, 뜬문뜬문 한 채 또는 두 채의 집이 있다.

그리고 이 날 오후, 나는 강을 따라서 난 그 길의 거의 반쯤을 걷고 있던 중에 눈 가장자리로 뭔가가 시야에 들어온다. 뭔가가 움직이고 있다. 약 15야드 떨어져 있는 곳에 짧은 털, 갈색이 섞인 흰 바탕에 검은 점이 있는 개가 한 마리 있다. 자기는 숨을 쉴 만한 자격도 안 된다는 듯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머리를 아래로 내리고, 다리 사이로 꼬리를 내린 채, 나를 쳐다보며 그저 슬금슬금 걷고 있다. 1년 아니면 2년 정도 된 비글 종에 속하는 개다.

내가 걸음을 멈추자 그 개도 멈춘다.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내 옆으로 나를 계속 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자, 그 개는 뭔가 큰 잘못을 하다가 들킨 것 같이 보인다.

“이리와 봐, 애야” 나는 내 허벅지를 찰싹 치며 말했다.

개는 배를 대고 자세를 낮추고, 풀밭 여기저기를 기어다닌다. 나도 몰래 웃음이 나온다. 그리고는 난 그 쪽으로 걸어갔다. 그 개는 오래된 닳아빠진 목걸이를 하고 있는데 그 개의 나이보다도 오래되어 보인다. 전에 다른 개가 끼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이리와 봐. 애야.” 나는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다.

그 개는 일어서서 뒷걸음질을 친다. 킁킁 소리조차 내지 않아서, 마치 아예 짓지도 못하는 것 같다.

개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 속이 상하는 법이다. 누군가 이 개에게 발길질을 해 왔던 것이다. 매질도 했을지 모른다. “괜찮아, 애야.” 나는 좀 더 가까이 다가가며 말하지만, 그래도 그는 여전히 뒤로 물러선다.

그래서 나는 그저 총을 지닌 채 그 강을 따라 갔다. 종종 어깨 너머로 보면, 개는 거기 보였다. 내가 멈추면 그도 멈춘다. 개의 갈비뼈가 드러난 것이 보였는데 그렇게 앙상한 모습은 아니지만 통통한 모습은 결코 아니다.

강물 위로 꺾어진 나뭇가지 하나가 본 가지에 아직 붙어 매달려 있고, 나는 총 한 발로 그 나뭇가지를 떨어뜨릴 수 있지 않을까 궁리해 본다. 나는 총을 들어올렸지만, 그 다음에는 총소리가 개를 겁나게 해서 쫓아버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총을 쏘고 싶은 마음이 별로 나지 않는 날인가 보다.

그 강은 흐름이 빠르지 않다. 그 옆으로 걷다보면, 강물이 움직이지도 않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렇지만 일단 멈추면 나뭇잎들과 다른 것들이 강물 따라 흐르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때때로 물고기 한 마리가, 그것도 큰 물고기가 물 위로 뛰어 오른다. 농어인 것 같다. 개는 아직도 나를 쫓아오고 있고, 꼬리는 안으로 들어가 있다. 어떻게 그렇게 아무 소리도 안 내는지 정말 신기하다.

그러다가 나는 한 통나무에 앉아, 총은 내 발치에 놓고, 기다린다. 길 저편에서 그 개도 앉는다. 길의 바로 중앙에서 머리를 양팔에 놓고 낮은 자세를 하고 있다.

“이 쪽으로, 이 녀석아.” 또 한 번 부르고는, 내 무릎을 탁탁 쳐 본다.

그는 아주 약간 꿈틀거리지만 오지는 않는다.

수개가 아닐지도 모른다.

“이리로 와, 꼬마 아가씨!” 라고 불렀다. 개는 그래도 오지 않는다.

나는 이 개를 끝까지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지만, 이분 또는 삼분 통나무 위에 앉아 있다 보니 지루해져서 나는 다시 걷기 시작한다. 그 개도 나를 따라 걷는다.

이 강을 줄곧 따라서 걸어가면 나중에는 어디에 이르케 될지 모르겠다. 이 길은 돌아서 다시 제자리로 온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해가 진 다음에야 집에 돌아가 매를 실컷 맞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항상 강의 얕은 곳까지만 갔고, 거기서 강물이 길을 가로질러 흐르는 데였다. 그 곳에서 나는 발길을 돌렸다.

뒤를 돌아다보니, 그 개는 내가 오는 것을 보고 숲 속으로 도망친다. 나는 그 모습을 마지막으로 다시는 그 개를 못 볼 거라고 생각했으나, 그 길을 반쯤 지나 돌아보니 거기에 다시 그 개가 있다. 내가 멈추니까 그 개도 멈춘다. 내가 가면 그 개도 가고.

그리고 나서, 별 생각 없이 난 휘파람을 불었다.

그것은 마치 요술 단추를 하나 누른 것 같았다. 그 개가 나를 향해 재빠르게 달려오는데, 다리는 전속력으로 움직이고 긴 양 쪽 귀를 털썩 아래로 내려뜨리고, 꼬리는 깃대처럼 위로 세운 자세다. 내가 한 손을 내밀자 이번에는 그 개가 내 손가락 모두를 핥고 내 다리로 뛰어오르면서 작게 짹는 소리를 낸다. 그 개는 그렇게 해도 모자라는 것 같다. 그것은 마치 내가 줄곧 오지 못하게 하다가 이제는 와도 된다고 말한 것 같았다. 이 개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수캐인 것이다.

“야, 이 녀석아! 이제 보니 너 정말 멋지구나, 안 그래?” 그 개가 내 주위를 뱅글뱅글 돌자 난 웃음이 나온다. 내가 쭈그리고 앉자 그 개는 내 얼굴과 목을 핥는다. 애는 도대체 어디서 휘파람을 불면 울 줄 알고 그러지 않으면 뒤로 물러나 있는 법을 배웠을까?

이렇게 관찰하는데 열중하다 보니 비가 오기 시작하는 줄도 몰랐다. 그렇지만 나도 이 개도 거기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이 개를 처음 보았던 장소를 찾는 중이다. 여기 살고 있나? 그렇지 않으면 길 위편 집인가? 우리가 지나는 도중에 어디선가, 개는 가던 길을 멈추고 누군가는 나와서 휘파람을 불 것이라는 게 내 생각이다. 그러나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개는 멈추지도 않는다. 오래된 조그만 샬로 기숙사 학교건물과 가까워 졌을 때도 계속 따라 오고 있다. 꼬리를 프로펠러처럼 하고 그

다리를 건너기 시작한다. 개는 내가 아직 같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려고 자주 내 손을 혀로 핥았는데 마치 웃고 있는 것처럼 입을 다물지 못한다.

하지만, 그 개가 나를 따라서 다리를 건너고 계분소를 지나서도 계속 따라 오자, 나는 걱정이 되기 시작한다. 그는 우리 집까지 줄곧 나를 따라 오기로 한 것 같아 보인다. 나는 옷이 젖은 채 집에 가게 된 것만으로도 이미 난처한 상황에 놓인 참이다. 나의 외할머니는 폐렴으로 돌아가셨고 우리는 그것을 한 시도 잊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이제 나를 따라 오는 개 한 마리가 생겼고, 우리에게는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 결코 허락되지 않는다.

먹이를 주고 아플 때면 수의사에게 데려갈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동물을 집안에 들일 자격이 안 되는 것이고, 그건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 개가 그 전과 똑같은 지점에서 돌아서 가길 바라면서, 나는 집까지 남은 길을 걷는 동안 개에게 한 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그 개는 계속 따라 오고 있다.

나는 앞으로 몸을 굽히고 말했다, “집에 가라, 애야.” 그러자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꼬리를 다리 사이로 넣고, 살금살금 떨어져 걷는 그 모습에 난 심장이 죄어오는 것을 느꼈다. 그 개는 큰단풍나무 까지 가서는 젖은 풀밭에 엎드려 그의 양발 위에 머리를 대고 있다.

“누구 개니?” 엄마는 내가 안으로 들어서자 물어 보셨다.

나는 어깨를 한번 들썩했다. “그냥 저를 따라 왔어요, 그게 다 예요.”

“어디서부터 널 따라 왔는데?” 아빠가 물으셨다.

“샤일로 뒷쪽에서요, 다리 건너편.” 나는 대답했다.

“강 옆에 있는 길에서? 그렇다면 저드 트라버스의 비글이 확실한 것 같다.” 아빠가 말씀하셨다. “몇 주전에 사냥개 한 마리를 또 구했거든.”

“저드 아저씨에게 사냥개가 생겼다면, 왜 잘 돌봐주지 않았을까요?” 라고 물었다.

“그걸 네가 어떻게 아니?”

“그 개의 행동을 보면 알아요. 꿈쩍 못할 정도로 겁에 질려 있잖아요. 거의 그런 수준이에요.” 라고 나는 말했다.

엄마가 나를 한번 힐끗 쳐다보셨다.

“내가 보기엔 몸에 그런 표시는 없는 것 같은데.”

아빠는 창문으로 밖에 있는 개를 살펴보며 말했다.

꼭 상처가 나야 아픈 것은 아닌데, 라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으면 그냥 가 버릴 거야.” 아빠가 말했다.

“그리고 그 젖은 옷 벗어야지.” 엄마는 나에게 말했다. “넌 무덤까지 너의 할머니 슬레이터를 따라 가고 싶은 거니?”

나는 옷을 갈아입고는 앉아서 TV를 켜다. TV에는 채널이 두 개 밖에 없다. 일요일 오후에는 교회 설교와 야구 방송 뿐 이다. 나는 한 시간 동안 야구 경기를 봤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서 창문 쪽을 슬쩍 본다. 엄마는 내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고 계신다.

“그 샤일로 개가 아직도 밖에 있니?” 엄마는 물으신다.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그 개는 나를 보고 있다. 그는 창문 쪽에서 나를 보자 꼬리를 치기 시작한다. 나는 그 개 이름을 샤일로 라고 지었다.



## 제 2 장

보통 일요일 저녁 식사는 무엇이든 점심 때 먹다 남은 것으로 한다. 만일 남은 것이 없으면 엄마는 차가운 옥수수 반죽으로 납작하고 두꺼운 모양을 만들어 기름에 튀긴 것을 내놓으시고, 그것을 캐로 시럽과 같이 먹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밤에는 아직 토끼 고기가 남아 있다. 나는 조금도 먹고 싶지 않지만, 샤일로로는 먹고 싶어 할 것이다.

나는 앞으로 얼마나 더 내가 그 토끼고기 조각을 접시 위에서 계속 밀며 돌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만, 곧 그게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다.

“너 그 고기 먹을 거냐 아니면 그냥 가지고 노는 거냐?” 아빠가 물었다. “네가 먹기 싫으면, 내가 그걸 내일 점심으로 싸 가야겠다.”

“제가 먹을게요.” 나는 말했다.

“그걸 그 개한테는 주지 마라.” 엄마가 말했다.

나는 조금 베어 물어 먹는다.

“그럼 그 강아지는 뭘 먹을 거예요?” 백키가 물었다. 백키는 세 살이고 언니 데라 린보다 4살이 어리다.

“여기서 줄 것은 없다니까.” 엄마가 말했다.

백키와 데라는 아빠를 보았다. 이제 나는 백키와 데라까지도 이 비글을 가엽게 생각하게 만든 것이다. 때때로 여자아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나보다 쉽게 갖곤 하였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되질 않는다.

“식사를 마친 후에 개를 강 건너 편에 도로 데려다 줄 거야,” 라고 아빠가 말했다. “만일 그 개가 저드의 새로운 개라면, 아마도 그 개가 아직 집을 찾아가는 데 익숙하지 못할지도 모르지. 지프차에 태워 데려다 주자.”

나는 그러면 그렇지 하고 생각했다. 아빠가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 봤다가, 아직 그 비글이 여기에 남아 있으면, 우리가 그 개를 계속 데리고 있어도 좋다고 하실 리가 있겠는가? 나는 어떻게 하면 그 토끼 고기를 내 접시에서 내 주머니로 옮길 수 있을까 온갖 궁리를 하고 있으나, 엄마는 내 동작 하나하나를 유심히 보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먼저 일어나겠다고 말한 다음 밖으로 나가서 닭장으로 갔다. 이곳은 엄마가 볼 수 없는 뒤꼍으로 떨어진 곳이다. 우리는 암탉 세 마

리를 기르고 있고, 난 등지 안에 있는 두 개의 달걀 중에 하나를 갖고 수풀 뒤로 가져간다.

나는 부드럽게 휘파람을 분다. 샤일로가 내 쪽으로 경중경중 뛰어 온다. 나는 그 계란을 깨서 두 손에 받는다. 두 손을 아래로 내리자, 샤일로는 그 계란을 먹고 그 다음에는 내 손을 혀로 깨끗이 핥고 나서, 혀를 내 손가락들 사이를 지나 뒤쪽까지 돌려가며 조금도 남김없이 다 먹는다.

“착하다, 샤일로.” 나는 속삭이며, 샤일로를 다독거리려 준다.

방충망 뒷문의 쿵 하는 소리를 들었고, 아빠가 현관으로 나오신다.

“왜요?” 내가 돌아 나오자, 샤일로는 내 뒤를 따라 온다.

“그 개를 지금 제 집에 데려다 주자.” 아빠는 저편으로 가시더니 지프차의 문을 여신다. 샤일로는 그의 다리 사이로 꼬리를 내리고 그냥 거기에서 있고, 나는 지프의 다른 쪽으로 돌아 차안으로 들어가서 휘파람을 분다. 샤일로는 내 무릎 위로 뛰어 올라 앉았으나, 별로 기뻐하는 기색이 아니다.

처음으로 나는 샤일로를 두 팔로 둘러 안는다. 따뜻함이 느껴졌는데 어루만져주다가 진드기가 있는 곳에 손이 닿는다.

“개에 진드기가 있어요.” 아빠에게 말했다.

“저드가 없애 줄거야.” 아빠가 말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그 아저씨가 알아서 할 일이야. 마티. 네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이건 너의 개도 아니고. 너는 네 일이나 신경 써라.”

큰길과 연결되는 울퉁불퉁하고 먼지 나는 집의 앞길을 지날 때 나는 좌석의 맨뒤로 몸을 바짝 붙였다. “나는 언젠가는 수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빠에게 말했다.

“으음” 아빠가 말했다.

“나는 이동 수의사가 되고 싶어요. 벤에다 사무실을 차리고 집을 찾아다녀서, 사람들이 일부러 병원에 데려오지 않아도 되게 하는 거예요. 학교에 있는 잡지에서 그런 얘기를 읽었어요.”

“너는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아니?” 아빠는 물었다.

“학교에 가야 해요, 저도 알아요.”

“넌 대학교 교육을 받아야 해. 거의 의사처럼 말이야. 수의학과에 가려면 큰돈이 든단다.”

내 꿈은 종이 봉지 같은 데에 담긴 물처럼 빠져나간다. “그럼 수의사

보조원이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차선책을 말했다.

“그건 아마도 될 수 있을게다.” 아빠는 이렇게 말하면서, 차를 언덕으로 올라가는 경사로로 향하게 하셨다.

이제 어스름이 자리를 잡았다. 그렇지만 아직 따뜻하다. 따뜻한 7월의 밤이었다. 나무들은 붉은 하늘을 배경으로 더 어두워 보였고, 불빛이 하나 둘씩 이 집 저 집 들어오고 있다. 나는 이 집들 중 어느 한 곳에서 저드 트라버스 보다 샤일로를 더 잘 돌봐줄 누군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 개가 어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

내가 저드 트라버스를 좋아하지 않는 데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 큰 것은 한번은 프랜들리에 있는 한 모퉁이 가게에서 현금출납기 일을 보고 있는 윌리스 아저씨를 저드가 속이는 것을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저드는 먼저 10달러를 낸 후 아저씨한테 말을 시키더니만, 윌리스 아저씨가 그에게 거스름돈을 주자 그는 자기가 20달러를 냈다고 말했다.

나는 저드가 한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박였고 나이가 지긋하신 윌리스 아저씨는 무척 혼란스러워 하셨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아니 예요, 저는 저드 아저씨가 10달러를 냈다고 생각해요.”

저드는 나를 뻔히 보고는 그의 지갑을 훑어내더니 내 눈앞에서 20달러 지폐 한 장을 흔들어 보였다.

“이 지폐에 누구 그림이 있니, 얘야?” 그는 물었다.

“모르겠어요.”

그는 나에게 뭔가를 말하고자 하는 눈길을 보내고 있다고 나는 생각했다. “그것은 앤드류 잭슨이야,” 라고 그는 말했다. “이 곳에 들어올 때, 내 지갑에 이런 지폐가 두 장 있었는데, 이제는 한 장 밖에 없어. 여기 이곳에 있는 이 사람이 다른 한 장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제 거스름돈을 받아야겠어.”

윌리스 아저씨는 얼굴이 빨개져서 돈을 넣어두는 서랍에서 저드에게 20달러에 대한 잔돈을 꺼내 주었고, 그 후에 나는 앤드류 잭슨이 이 일과 무슨 관계가 있나 하고 생각했다. 저드는 너무 빨리 얘기해서 무슨 일이든 잘 빠져나갔다. 그를 좋아하는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으나 여기 주위의 사람들은 아빠가 말한 대로, 모두 자기 일에 바쁘다. 여기 타일러 카운티에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었다. 아무튼 늘 그런 식이다.

내가 저드 트라버스를 좋아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그가 그의 입의 가

장자리로 담배를 뱉어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일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그리고 그 아저씨는 확실히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그 아저씨는 그 사람이 서 있는 자리에서 얼마나 가까운 곳까지 자기가 침을 뱉을 수 있나를 시험하곤 한다. 세 번째 이유는 그 아저씨가 지난 해 우리와 같은 날 장터에 나왔었고, 내 앞에서 내 시야를 막으면서, 내가 있는 곳 어디든 나타났다. 진흙 수렁에서도 내 앞에 서 있었고, 경운기 끌기에서도 내 앞에 앉아 있었고, 조든 글로브의 죽음의 모터사이클 묘기에서도 그는 자기 자리에서 내내 일어서서 난 덕분에 명장면들을 놓쳤다.

내가 그 아저씨를 좋아하지 않는 네 번째 이유는 그 아저씨가 사냥철이 아닌 때에 사슴을 죽였기 때문이다. 아저씨는 안 그랬다고 하지만, 난 한번은 막 어스름해 질 무렵 아저씨가 그의 트럭의 후드 위에 한 어린 숫사슴을 끈으로 묶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 아저씨는 그 숫사슴이 길에서 앞으로 달려가는 것을 사고로 차로 치었다고 내게 말했지만, 나는 직접 총알 구멍이 나 있는 것을 보았다. 만일 잡히게 되면, 아저씨는 200달러를 내야 하는데, 내가 장담하지만 그 돈은 그 아저씨가 은행에 가지고 있는 돈보다 더 많은 액수이다.

차는 어느새 샬로를 지나고 있다. 아빠는 그 오래된 제분소 옆의 다리를 건너면서, 그 기숙사 학교에서 차를 돌리고 계시고, 처음으로 나는 샬로의 몸이 떨리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온 몸을 바들바들 떨고 있다. 나는 침을 삼킨다. 아빠에게 하려고 마음먹은 말을 하기 전에 나는 다시 침을 삼켜야 했다.

“자기 개를 잘 돌보지 않는 사람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해요?” 마침내 나는 이렇게 물었다.

“누구 신고할 사람이 있는 게냐, 마티?”

“저드 아저씨”

“만일 이 개가 흑사당하더라도, 이 개는 그런 5만마리 중에 단지 한 마리에 지나지 않아.” 아빠는 말했다. “사람들은 심지어는 가축들을 여기 언덕으로 데리고 와서 밖에 풀어놓고는 그 가축들이 쥐나 토끼들을 먹고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한단다. 학대받은 걸로 보면 이번 이 개가 처음은 아니야.”

“하지만 이 개는 도와달라고 내게 왔잖아요.” 라고 나는 주장했다. “그래서 이 개가 나를 따라 다니고 있는 거구요. 나는 이 개가 꼭 맘에 들어

요, 아빠. 그리고 나는 이 개가 잘 보살핌을 받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처음으로 나는 아빠가 내 말에 점점 참을성을 잃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금 네 머리에서 그 생각을 당장 지워라. 이 개가 트라버스의 개라면 그가 자기 개를 어떻게 취급하든 우리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야.”

“이 개가 어린 개라면 어떡하죠?” 나는 집요하게 내 주장을 밀고 나갔다. “만일 어떤 아이가 이 개가 지금 떨고 있는 것처럼 덜덜 떨고 있다면, 아빠 같으면 그 아이를 계속 지켜 줘야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마티,” 이제 아빠는 그저 완전히 지친 목소리 켰다. “여기 이 개는 어린 아이가 아니고 이 개는 우리 개도 아니야. 나는 네가 이 일에 대해서 이제 그만 하기를 바란다. 알겠니?”

나는 그리고 나서 입을 봉했다. 내가 만지는 모든 곳은 내가 어떻게든 보호해 줄 수 있을 것처럼 나는 샤일로의 몸 전체를 손으로 쓸어 주고 있다. 우리는 저드가 그의 다른 개들과 같이 살고 있는 이동주택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중이고, 벌써 아빠의 차가 길을 올라오는 소리를 듣고 개들이 큰 소리로 짖고 있다.

아빠는 차를 멈추신다. “네가 그 개를 밖으로 내놓을래?” 아빠가 물으셨다.

나는 머리를 세차게 저었다. “나는 이 개가 저드 아저씨의 것인지 확실히 알 때까지는 여기서 내놓지 않겠어요.” 나는 뺨 맞을 각오를 하고 한 말이었는데, 아빠는 아무 말 없이 그냥 차에서 내려 도보 대응으로 저드가 놓은 판자 위로 올라섰다.

저드는 이미 그의 이동주택의 문간에 나와 서서, 내복 바람으로 밖을 기웃거리고 있다.

“레이 프레스톤 같은데,” 그는 방충문을 통해 보며 이렇게 말했다.

“잘 지내나, 저드?”

저드는 그의 이동주택의 한 쪽 편에 그가 지은 작은 현관 앞 베란다로 나왔고, 아빠와 같이 거기 서서 잠시 얘기를 나눈다.

이 곳 언덕 고지대에서는 얘기가 본론으로 곧장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먼저 안부를 묻고 나서 다른 얘기를 나누고, 마지막으로, 모기들이 물기 시작하면, 용건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항상 천천히 본론으로 옮겨가는 것이지 갑자기 들어가지는 않는다.

나는 마당 여기저기에 작은 조각과 부스러기들이 공중에 떠다니는 소리

를 들을 수 있다. 비.. 트럭.. 토마토들...석유 가격표시..그리고 내내 샤일로로는 꼬리를 다리 사이로 내리고, 미풍에 창문의 블라인드가 흔들리는 것처럼 떨면서, 내 무릎 위에 낮게 엎드려 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얘기가 들려 온다. “얘기를 하자면, 저드, 내 아들이 오늘 오후에 강을 따라 가다 이 곳 위까지 왔는데 한 비글이 아들을 집까지 따라 왔지 뭐냐. 목에 어떤 꼬리표도 없었지만, 자네에게 사냥개 한 마리가 더 생겼다는 얘기가 생각나서, 혹시 자네 개가 아닌가 해서 데려왔네.”

나는 이 말이 중대한 실수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이 개는 저드 것이 전혀 아닌데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개 한 마리를 또 챙기려고, 저드는 그 개를 자기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거짓말쟁이 이기 때문이다.

저드는 아빠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장화를 신은 채 진흙탕인 마당을 가로질러 가기 시작한다. “내 거가 확실해요. 내 장담하죠.” 라고 그는 말한다. “내 혼을 빼놓기 때문에 나는 그 바보 같은 개를 집안에다 놓아둘 수가 없어요. 내가 사냥에 데리고 갈 때마다, 그 개는 내가 사냥을 끝내기도 전에 달아나 버린다구요. 내가 개들과 하루 종일 밖에 있어 봤지만, 이 개만 빼고는 모두 잘 돌아오더라구요.”

지프의 옆을 돌아오는 저드의 무거운 발자국 소리가 들려 왔고, 커피만큼 강한 그의 씹는 담배 냄새도 풍겨 온다.

“그래,” 라고 말하면서, 그는 열려진 창문으로 얼굴을 디밀었다. “그 개가 맞군요, 맞아요.” 그는 차 문을 열었다. “여기로 내려 와.” 그는 말했고, 샤일로는 내가 마지막으로 그를 어루만지기도 전에 내 무릎에서 뛰어내려 땅 위로 내려가서는 저드의 오른쪽 발에 차였다. 샤일로는 날카롭게 짖고 그 이동주택의 뒤로 달아났는데, 꼬리를 아래로 내리고 배는 아래로 내린 자세였다. 뒷마당에 사슬로 묶여져 있는 저드의 개들도 미친 듯이 짖어 낸다.

나도 지프에서 뛰어 나왔다. “제발 그 개를 그런 식으로 차지 마세요.” 라고 나는 말했다. “어떤 개들은 그냥 뛰어다니는 걸 좋아해요.”

“그 개는 사방천지를 뛰어다닌단다.” 저드는 말했다. 나는 어둠속에서도 저드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냐는 듯이 나를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내가 그 개를 계속 지켜 볼 게요.” 나는 말했다. “언제든지 그가 집을 떠나 멀리 가는 것을 보면, 내가 다시 데려다 줄게요. 약속해요. 다만 그

개를 발로 차지만 말아 주세요.”

저드는 계속 이리쿵저리쿵 불평만 늘어놓는다. “그 개는 좋은 사냥개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항상 내 인내심을 시험한단 말이야. 오늘밤은 그냥 놔두겠지만, 다시 나가서 돌아다니는 날에는 그 개는 더 이상 빛을 못 볼 줄 알아. 그건 네게 장담하지.”

나는 침을 삼키고 또 삼키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눈물을 참으려고 애쓰면서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 제 3 장

나는 그 날 밤 한 두어 시간 정도 밖에 잠을 못 잤다. 잠이 들었을 때는, 샤일로가 나오는 꿈을 꾸었다. 깨어 있을 때는 오후 내내 밖에 빗속에서 그에 대해서 생각했다. 양말에 머리를 올려놓고 우리 집 문을 쳐다보던 모습. 얼마나 내가 그를 실망시켰나, 무언가 의미가 있는 듯 회파람을 불어 그를 내게로 오게 하고는, 결국은 다시 저드에게 도로 데려다주어 다시 그의 발에 채이게 만들다니.

5시가 되자, 날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지를 잘 알게 되었다. 그것은 저드로부터 샤일로를 사야만 한다는 것이다.

나는 생각을 그 정도에서 접고 저드가 샤일로의 값으로 얼마를 요구할지, 과연 팔기나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 특히 스스로에게 과연 어떻게 그 돈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물음조차 던지지 않았다. 현재 내가 아는 모든 것은 샤일로를 사는 것이 저드로부터 그 개를 데려오기 위해 내가 생각해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그것이 곧 내가 앞으로 해야 일이다.

내 침대는 거실에 있는 소파이고, 그래서 아빠가 아빠의 아침식사를 준비하러 들어 오셨을 때, 나는 진바지를 입고 부엌으로 가서 아빠의 건너편에 앉았다. 아빠는 먼저 일터로 가져 가실 점심도시락을 준비하신다. 아빠는 지프차를 몰고 시스터빌에 있는 우체국으로 가시는데 거기에서 아빠는 약 200 가구 분의 편지를 상자에 담아 그것을 배달하고, 그리고 나서 프랜들리 우체국으로 돌아와서 200 가구 분의 편지를 더 담아 그것도 배달하신다. 배달 구역은 도로로 약 85 마일의 거리이며, 겨울에는 통과하기 어려운 길이다.

“잘 잤니,” 아빠는 샌드위치 하나를 배낭에 담으시며 아침 인사를 내게 건네시고는 아침 식사를 시작하셨는데 아침은 시리얼과 우리 집에서 탄 복숭아다. 아빠는 커피를 끓이고 엄마가 전날 저녁 식사 때 아빠 것으로 따로 놔 둔 옥수수 빵이나 비스킷을 드신다.

“제가 돈을 벌 수 있는 데에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나는 아직 잠에서 덜 깬다는 것을 보여주는 개구리 같은 목소리로 아빠에게 묻는다.

아빠는 옥수수빵을 한 입 더 베어 입에 있는 채로 나를 한동안 쳐다보시

더니, 다시 시리얼을 계속 쳐다보신다. 아빠는 내가 예상했던 그대로의 대답을 하신다.

“병을 수집하고 보관하는 거야. 재활용하는 곳에서 쓸 알루미늄캔도 주워올 수 있겠지.”

“그런 적은 돈 말고요. 그 보다 더 빨리 돈을 모아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빨리?”

나는 궁리했다. 그런 돈을 일주일만에 벌 수 있기를 바랬지만 내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여름 내내 매일 밖에 나가서 캔과 병을 모아야만 튀가 되든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마도 한 달 동안이요.” 라고 대답했다.

“배달 지역을 다니면서 물어 보겠지만, 돈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별로 보지 못하겠더구나.” 라고 아빠가 말씀하셨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의 말씀이었다.

아빠가 출발하신 후, 백키는 엄마가 일어나시기 전에 일어났고, 나는 치리오스 한 그릇을 백키에게 차려 주고, 발가락이 시리지 않게 운동화를 신겨 주고, 머리카락이 얽힌 것을 빗겨 준다.

한 번은 책에서 어떤 아이들이 야기를 봐 주고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읽었다. 글쎄, 내가 백키 그리고 데라도 같이 돌봐줄 때마다 동전 하나라도 받게 된다면, 나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나는 갖가지 일했고 그런 일들은 다른 아이들이나 다른 곳에서면 돈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었지만, 보수를 바란다는 것은 내게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아빠에게 보수를 달라고 하면,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넌 이 집에서 살지 않니?” 내가 그렇다고 하면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다. “그렇다면 너도 가족의 일원으로서 네 몫을 해야지.”

이렇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물을 필요도 없는 것이다.

“치리오스 더 줘.” 백키가 말했고 백키의 아침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내 나는 알루미늄캔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구역은 어디일까 생각하고 있었다. 아빠의 오래된 티셔츠를 잠옷으로 입은 데라가 일어날 때가 되자, 나는 캔 수집을 두 배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냈다. 그러나 몇 분 후에 엄마가 일어나셨고, 엄마는 나를 한 번 쳐다보고도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짐작하셨다.

“너 아직도 그 개를 생각하고 있구나,” 엄마는 이렇게 말하면서, 손잡이

가 달린 쇠로 된 큰 프라이팬을 부엌 불 위에 올려놓고 그 안에 베이컨을 퍼놓으셨다.

“생각하는데 돈이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는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는 나를 향해 약간 웃으시고는 베이컨을 내가 좋아하는 식으로, 좀 바삭하게 구우셨고, 우리는 저드의 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 날 아침은 5마일을 걸어야만 했고, 찾아낸 것은 7개의 캔과 병 하나가 전부였다. 아빠가 4시쯤에 집에 돌아오셨을 때, 아빠는 도움을 구하는 사람을 찾지 못하셨지만,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어스의 가을 카탈로그가 오늘 오후에 나온단다, 마티. 너 내일 특별한 일 없으면, 아빠 차에 같이 타고 다니면서 배달하는 것도 좀 도와라.”

나는 그러겠다고 했다. 그렇게 해도 생기는 것은 주유소에서 주는 음료수 하나가 전부지면, 나는 아빠와 같이 지프를 타고 리펜터크 카우 하우스런 로우드와 같은 시골길 위를 달리는 것을 좋아한다. 우연히 캔이나 병이 눈에 보이면 주울 수 있게, 만일을 생각해서 자루 하나를 가져 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날 밤 아빠와 나는 현관 앞에 나와 앉아 있었다. 엄마는 우리 뒤에 있는 그네에서 다음 날 먹을 아욱콩의 껍질을 까고 계시고, 백키와 데라 린은 풀밭에서 반딧불을 잡아 단지 안에 담고 있으시다. 아빠는 백키가 벌레 한 마리를 손에 잡았을 때 비명을 지르는 모습에 웃음을 터뜨리신다. 그러나 단지 안에 있는 벌레들을 보니 이 벌레들처럼 감옥 같은 저드 아저씨의 집에서 사슬에 푹푹 묶여 있을 샤일로 생각이 난다. 누구라도 샤일로가 나를 바라보던 눈을 본 사람이라면, 그 눈길을 잊지 못할 것이다.

“17마리예요.” 데라 린이 외친다. “예쁘지 않아요, 엄마?”

“반딧불이 부엌을 환하게 해서 전깃불을 꺼도 되겠는걸. 엄마는 말했다.

“너 반딧불 다시 내보내줄 거지?” 라고 내가 물었다.

데라 린은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어깨를 한번 들썩였다.

“네가 계속 단지 안에 놓아두면, 이 벌레들 다 죽을 거야” 라고 나는 말해 주었다.

백키는 이 쪽으로 와서 내 무릎 위로 기어올라 앉았다. “우린 다 놓아줄 거야, 오빠.” 백키는 이렇게 말했고, 내 목에 뽀뽀를 해 주었다. 백키는 그것을 나비 뽀뽀라고 불렀다. 내 살에 백키의 속눈썹이 깜빡거리는 것이 닿으면서 그것은 나방의 날개들이 퍼덕거리는 것처럼 느껴진다. 백키도 나도

같이 웃는다.

그리고 나서 저 편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온다. 적어도 나에게는 개의 소리로 들린다. 여우 새끼의 소리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샤일로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저 소리 들으셨어요?” 나는 아빠에게 물었다.

“사냥개 소리인 것 같은데.” 아빠는 이렇게만 말씀하셨다.

다음날 아침 아빠는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갈 때 나를 한 번 팔꿈치로 툭 치셨고, 나는 충알처럼 벌떡 일어났다. 우리는 시스터빌로 차를 타고 가서 아빠가 우편물을 상자에 담는 동안 나는 차로 그 카탈로그 모두를 끌어오는 것이다. 물론, 모든 사람이 카탈로그 한 부씩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 해에 시어스에 주문을 한 사람이면 누구나 한 부씩을 받게 되기에, 짐이 꽤 된다.

9시 15분이 되어, 우리는 출발 할 수 있었다. 아빠가 차를 우체통 가까이로 대시면 나는 우편물을 안에 넣고, 우체통의 한 편에 작은 빨간 기가 있으면 올려 세워 놓는다. 어떤 사람들은 우체통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그 분들에게 배달할 것이 없으면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든다.

그래도 아빠는 모든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시어서, 항상 조금이라도 무슨 말을 건네신다.

“좋은 아침이죠, 빌,” 우리가 차를 멈추고 아빠가 이렇게 인사하면 그 할아버지의 얼굴은 크리스마스처럼 밝게 빛난다.

“부인께서는 잘 계시죠?”

“늘 그렇지 뭐. 그렇지만 마누라가 이 카탈로그를 보고는 매우 좋아할 걸세.” 그리고 할아버지는 팔 아래 우편물을 끼고 집으로 향하신다.

사람들은 아빠를 위해 이따금씩 우체통에 무언가를 남겨 놓기도 한다. 엘리슨 부인은 항상 작은 바나나 빵이나 계피롤빵을 남겨 두셔서 아빠는 그걸 아껴 두셨다가 점심때 도시락과 같이 드신다.

우리가 시스터빌에서 배달을 마친 후, 프랜들리 구역을 돌았는데, 지프차가 샤일로가 있는데 가까이 가자, 내 가슴은 쿵쿵 뛰기 시작한다. 나는 그 개가 근처에 보일 거라고 생각해서 두 눈을 꼭 감을 생각이다. 나를 쳐다보는 그의 눈을 보게 된다면, 아주 못 견딜 것 같다. 나는 저드의 이동주택으로부터 반마일 떨어진 거리에 있을 때 개들이 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개들은 지프의 소리를 아주 재빠르게 들을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저드 아저씨의 우편물을 배달할 준비를 한다. 저드는 카탈로그는 받게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의 마음을 훈훈하게 해 줄 다른 두 개의 잡지, 암모와 슈팅 타임지를 받게 될 것이다. 그가 개에 관한 잡지를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친절해지는 법을 가르쳐 주는 그런 잡지 말이다.

우리가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모든 개들은 사슬로 묶여 있어서 우체통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개는 한 마리도 없었다. 그러나 저드는 거기 있었다. 그는 큰 오래된 낫을 가지고 그의 집 쪽으로 난 길을 따라서 잡초를 베는 중이다.

“좋은 아침이지” 아빠는 차를 대며 이렇게 말하셨다.

저드는 등을 편다. 그의 옷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땀이 눈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마에 갈색 손수건을 두르고 있다.

“어떻게 잘 지내시나요” 저드는 이렇게 말하고는 한 손을 내밀며 차로 다가왔다. 나는 아저씨에게 우편물을 건네었는데 몸에서 코를 찌르는 땀냄새가 난다. 누구에게서든지 땀 냄새는 고약하지만, 나에게는 저드의 땀이 다른 누구의 땀보다 냄새가 더 지독한 것 같다. 비열한 땀.

“어제 일을 안 하고 있나?” 아빠가 물으신다.

“이게 일하는 게 아니고 뽀니까?” 저드는 대답하고는 웃는다. “앞으로 휴가를 일주일 쓸 수 있어서, 가끔 하루씩 쉬고 있죠. 이번 금요일에 다시 사냥을 갈 거예요. 산 능선에 이 개들을 데리고 가서, 토끼 몇 마리나 좀 잡아 보려고요. 주머니여우가 잡힐지도 모르죠. 한동안 저녁식사로 주머니여우를 통 먹어보지 못했죠.”

“개들은 괜찮나?” 아빠는 물으셨고, 아빠가 나를 위해 물어보신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마르고 성질이 날카롭죠.” 저드는 말했다. “반쯤 굶겨놔야 사냥을 더 잘 하거든요.”

“그래도 건강하게 해 봐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래 데리고 있지 못하네.” 아빠는 말했다. 이 말도 역시 나를 위해 하시는 말인 줄을 나는 알고 있다.

“하나 잃으면, 하나 더 사죠 뭐.” 저드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어쩔 줄을 모르겠다. 나는 창 밖으로 얼굴을 기대고 있어서, 거기에서 그의 얼굴을 정말 잘 볼 수 있다. 크고 둥근 얼굴, 5일 동안 면도를 안 해서 양 볼과 턱에 난 수염, 덩수룩한 눈썹 아래로 힘이 들어간 작은 두 눈은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

“전에 저를 집까지 따라 온 그 개는 잘 있나요?” 나는 물었다.

“그 개는 지금 좀 혼이 나는 중이지.” 저드는 말했다. “그 날 밤, 그 개한테 먹을 것을 조금도 주지 않았어. 그저 다른 개들이 먹는 것을 지켜 볼 수 있는 곳에 놔두었지. 다시 헤매고 다니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야. 헛간에 당장 돌아오게 만드는 거지.”

샤일로를 생각하며 나는 속이 쓰렸다. “그 개,” 나는 다시 물었다. “이름이 뭐죠?”

저드는 그냥 웃기만 했는데, 담배 즙이 조금씩 흘러나오는 이빨의 사이 사이는 어두운 색깔을 보이고 있다. “이름은 없어. 내 개 중에 이름을 가진 개는 없어.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 그게 다지. 그 개들이 필요할 때면, 휘파람을 불지. 필요하지 않게 때면, 발길질을 한 번 하지. 가져와, 나가, 밖으로, 그리고 제기랄. 이런 것들이 내 개의 이름이야.” 그리고는 그의 살찐 배가 흔들릴 정도로 웃어댄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그 모습이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런 말이 입에서 나와 버렸다. “그의 이름은 샤일로예요.”

저드는 나를 내려다보고는 옆으로 침을 뱉었다. 그는 오랫동안 나를 살펴보다가 우리 차가 다시 앞으로 출발하여 계속 강을 따라 나아가자 내가 알게 뭐냐는 듯 어깨를 한 번 들었다 놓았다.

## 제 4 장

“마티,” 길이 끊어진 곳에 이르자 아빠가 말을 꺼내신다. “넌 때때로 말을 참을 줄도 알아야 되. 네가 어떤 아저씨에게 가서 그의 개를 이렇게 불러라 하고 말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나 나도 화가 난다. “가져와’ 나 ‘나가’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나아 요.”

“저드 트라버스가 자기 개 이름을 뭐라고 짓건 아니면 아예 이름을 짓지 않건 그 사람 마음이야. 그리고 넌 그 개가 그 사람 개라는 걸 명심해야 해. 네 개가 아니야. 넌 다른 일이나 신경 쓰렴.”

차가 덜경거리며 1마일은 죽히 달렸을 때 나는 끝내 이렇게 말했다. “그럴 수 없어요, 아빠.”

이번에는 아빠의 목소리가 부드럽다. “글쎄다, 애야, 노력은 해 봐야지.” 나는 정오에 땅콩버터와 살짝 구운 크래커가 들어 간 샌드위치를 아빠와 같이 먹고 아빠를 위해 엘리슨 부인이 우체통에 남겨 놓은 슈키니 빵을 먹고 시어즈 카탈로그와 우편물을 다 배달한 후, 우리는 시스터빌 우체국으로 다시 향한다. 아빠가 일을 마무리하시는 동안 난 주유소에서 내 몫의 코카콜라 캔 하나를 마시고 우리는 집으로 향한다. 나는 캔과 빈 병을 찾는 것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내가 지금 손에 잡고 있는 캔이 내가 얻은 유일한 것이다. “저드가 매 주말 즈음에 사냥을 하러 가죠, 그렇죠?” 나는 아빠에게 물었다.

“그러는 것 같구나.”

“아무 동물이든 다 쏠 수 있나요?”

“물론 아니지. 허가된 동물만 쏠 수 있지.”

나는 거의 일년 전에 산등성이에서 할 일 없이 다니다가 죽은 개 한 마리를 우연히 발견하게 된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비글 이었는데 그의 머리에 구멍이 하나 나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나는 누군가가 밖에서 사냥을 하다 실수로 맞춘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런 일은 우연히 일어난다.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면 할수록, 저드가 자기 개들 중에서 그의 기분을 거슬린 한 마리를 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아빠는 계속 말씀하신다. “이 고장에 사냥 관리인이 새로 왔는데, 상당히 엄격하다고 들었다. 전에는 사슴이 개인의 정원에 들어와서 뭘 따먹으면 사슴 한 마리는 죽일 수도 있었고 관리인은 이를 눈감아 주곤 했지.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번에 새로 온 관리인은 상당한 벌금을 매긴다고 하는 구나. 글썄, 그렇게 되어야겠지.”

“누가 개를 한 마리 쏘면 어떻게 되죠?” 나는 물었다.

아빠는 나를 건네다 보셨다. “개가 사냥감이 된 적은 없단다, 마티. 이제 너도 그건 알텐데.”

“그렇지만 만일 어떤 사람이 개 한 마리를 쏘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할 지는 그 보안관의 결정에 달린 것 같구나.”

그 다음 날 나는 일찍 출발하여 비닐 백 하나를 가지고 프랜들리로 가는 주요도로에서 일을 시작했다. 11개의 알루미늄캔을 모았는데, 그게 전부였다. 일년 동안 피곤하게 걸어다닌다고 해도, 개 한 마리 값의 반도 채 못 모을 것이다.

전부터 내가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써 온 의문들이 이제 다시 찾아온다. 저드는 샤일로로 팔려고나 할까? 만일 판다면 얼마를 요구할까? 그리고 샤일로가 내 것이 된다 해도, 어떻게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우리집에는 먹고 남은 부스러기 음식들이 많지 않다. 먹다 남은 폭찹(돼지고기 조각 튀김) 조각이나 삶은 감자나 완두콩 한 손갈도 수프로 만들어 먹었다. 우리 집에 나한테 개 한 마리를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이 되고 또 개의 먹이와 수의사 비용 등을 낼 수 있는 정도가 된다면, 지금쯤 한 마리 키우고 있을 법도 한데. 테라 린은 일년 내내 고양이 한 마리를 사달라고 졸라대었다. 우리가 아주 가난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프레스톤 할머니가 정말 쇠약해 지셔서, 클락스버그에서 아빠의 여동생인 하티 고모가 돌봐드리고 있는 중이다. 고모가 외출할 때면 언제나 간호사가 대신 해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낀 한 푼 두 푼은 모두 할머니를 돌봐드리는데 필요한 경비로 간다. 개를 기를 만큼 남은 것은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 문제는 나중에 생각해 보기로 했다.

나는 시간이 지나, 아마도 내가 샤일로로 다시 못 보게 된다면, 내가 그에 대해서 잊게 될까 하고 생각해 본다. 그러나 그 날 밤 다른 모든 가족들이 잠자리에 든 후 소파에 누웠을 때, 나는 멀리서 한 마리 개가 우는 것 같은 소리를 다시 들었다. 왈왈 대는 것도, 으르렁대는 것도, 킁킁 우는

소리도 아니었다. 세차게 짓어대는 것이었다. 나는 가슴에 아주 심한 고통을 느꼈다. 나는 그 소리를 내는 것이 혹시 개가 아닐까, 그리고 그 개가 샤일로인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엄마도 내가 개 한 마리를 갖고 싶어하는 것을 알고 있어, 마티.” 엄마는 목요일에 나에게 말했다. 엄마는 부엌의 식탁에 앉아 계시고 주위에 마분지 상자가 온통 여기저기 널려 있다. 편지 내용물을 접어서 봉투에 넣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나도 우리에게 너희 들 각자가 동물 한 마리씩 키울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할머니에게는 더욱 보살핌이 필요한 것 같고, 그렇게는 안 되겠구나. 사정이 그런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때때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지만, 이번 말씀은 정확하지 못하신 것이다. 내가 그냥 아무 개나 원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샤일로를 원하는다. 왜냐하면 샤일로는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를 절실히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 소리를 들은 때는 금요일 아침이다. 아빠는 배달이 쉬는 날이고, 데라 린과 백키는 TV에서 만화를 보고 있고, 엄마는 뒷마당으로 나가셔서 작동이 되지 않는 오래된 세탁기에서 빨래를 하고 계시는데, 그 세탁기는 손으로 돌리면 짜는 부분만이 작동된다. 나는 돼지기름(라드)과 잼이 발린 빵 한 조각을 식탁에 앉아 먹는 중이었는데,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그것이 샤일로의 소리라는 것을 알았다. 아주 짧고 분명하게 끝을 맺는 소리.

나는 먹고 있던 빵에 젤리도 안에 넣고 접어서 내 호주머니에 찢러 넣고 앞문으로 나간다. 샤일로는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에서 머리를 양발에 올려 놓은 자세로 있었는데, 그것은 빗속에서 나를 집까지 따라 온 날과 꼭 같은 모습이다. 그를 보자 나는 곧 두 가지를 알 수 있다. 첫째 저드는 그가 말한 대로 샤일로를 데리고 사냥을 하러 나갔고 샤일로는 지금 그 무리에서 이탈한 것이다. 둘째는 내가 그를 다시 데려다 주지 않을 것이라는 거다. 지금은 아니다. 영원히 안 데려다 줄지도 모른다.

나는 샤일로가 다시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저드에게 다시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되돌려 보내줬다던 약속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유도 나지 않았다. 아빠에게 할 말 조차도 생각하지 않았다. 바로 그 때 온통 내 생각은 샤일로를 가족 누구도 보지 못할 곳으로, 우리 집으로부터 멀리 떼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맨발로 앞 계단을 뛰어 내려가서 샤일로가 그의 꼬리를 풀발에 탁탁 내리 치며 엎드려 있는 곳까지 간다.

“샤일로!” 하고 나는 나지막하게 불렀고, 그리고는 내 두 팔 안으로 샤일로를 안았다. 그의 몸 전체는 떨고 있지만, 도망가려 하지 않고, 첫날에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서 슬금슬금 멀어지려 하지도 않는다. 나는 잠든 백키를 옮길 때처럼 그만큼 가까이 조심해서 샤일로를 안고 저 멀리 언덕 위 숲 속으로 옮겨갔다. 만일 내가 총을 가진 저드를 그 순간 만난다면, 샤일로를 다시 그 아저씨에 곁에 놓아두려면 나를 먼저 쏘고 데려가야 한다고 말했을 것이다.

언덕 위로 올라가는 길에는 조각들과 찢리는 것들이 있고, 보통 나는 운동화를 신지 않고는 이 길을 가지 않으려 하지만, 설사 내 발에 거친 조각이나 가시 같은 것이 들어갔다 해도, 나는 거의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저드와 그의 사냥개들은 여기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언덕은 우리 아빠 것이니까. 내가 아는 소나무 옆의 채진목 까지 도달한 후 나는 앉아서 샤일로를 안았다.

처음으로 나는 그와 나만의 온전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그를 껴안을 수 있고, 그의 머리를 다독거리고, 그의 양쪽 귀를 어루만질 수 있다.

“샤일로,” 마치 그도 이것이 제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나는 그의 이름을 불렀다. “저드가 다시는 너한테 밭길질을 하는 일은 없을 거야.”

나를 쳐다보는 그의 눈빛, 몸을 들어 내 얼굴을 훑는 행동은 마치 나의 약속이 진짜 임을 보증이라도 하는 표시인 것 같다. 나는 저드에게 내가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이미 한 바 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길. 그렇지만, 지금은 내 목숨을 걸고 꼭 지킬 약속을 지금 샤일로에게 하는 것이다.

나는 그를 그만 앉게 하고 물을 마시러 시냇가로 갔다. 샤일로는 내 옆으로 졸졸 따라왔다. 나는 두 손으로 물을 떠 마셨고, 샤일로는 양껏 활아 먹었다. 이제 무얼 하지? 하고 스스로에게 물었다. 문제가 바로 코앞에 놓여 있었다.

나는 샤일로를 비밀로 할 것이다. 그것 만큼은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를 사슬로 묶어 놓지는 않을 것이다. 단지 내가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은 울타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었다. 그 생각이 썩 마음에 든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가능한 한 많이 그와 같이 있을 것이다.

나는 그를 채림목으로 다시 데려갔고 샤일로는 거기 누웠다.

“샤일로,”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불렀다. “여기 있어.”

그는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나는 뒤를 돌아보며, 걷기 시작했다. 샤일로는 일어났다. “거기 있어.” 라고 다시 더 크게 말하고는 땅을 가리켰다.

그는 다시 누웠지만, 그가 어떻게 따라 올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그를 한 소나무로 끌고 와서, 내 바지에서 벨트를 빼서, 샤일로가 하고 있는 낡고 오래 된 개목걸이를 돌아 고리를 만들어서 그 벨트를 그 나무에 고정시켰다. 샤일로는 이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래도 조용히 있다. 나는 그 길을 내려오면서 종종 뒤를 돌아다보았다. 샤일로는 나를 다시 못 볼 것처럼 날 바라보고 있었지만, 낫지는 않는다. 개가 그렇게 잠잠히 있는 것은 이제까지 겪어 보지 못한 정말 묘한 모습이다.

엄마는 아직 뒷마당에 계셨다. 엄마가 빨래를 하시면, 거의 하루 종일 하신다. 데라 린과 백키는 TV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집 옆쪽에 있는 창고로 가서 우리가 닭을 더 많이 기를 때 아빠가 쓰시다 남은 울타리를 가져 왔다. 끈 한 조각도 가지고 다시 그 언덕으로 올라간다.

샤일로는 아직 거기에 있고, 그는 내가 작업하는 동안 일어나려 하지도 않는다. 나는 다른 세 그루의 작은 나무들을 각각 모서리 기둥으로 하여 그 나무들을 돌아가며 울타리를 세우고 끈으로 연결하여 다시 처음 그 소나무로 돌아와 끈을 철조망에 묶는다. 울타리는 약 세로 6 인치 가로 8 인치 정도이다.

나는 다시 창고로 가서, 이번에는 아빠가 뒷계단을 새 것으로 교체할 때 떼어 낸 오래된 썩은 판자를 가지고 갔다. 오래된 파이 양철통도 가져갔다. 나는 그 판자들을 샤일로의 울타리로 가져가서 한 쪽 끝에 비를 피할 수 있게 덧붙인 지붕을 만들어 준다. 그 파이 양철통은 물을 채워 샤일로에게 마실 것을 마련해 준다.

마지막으로, 나는 내 주머니에서 돼지기름(라드) 바른 빵을 꺼내 작은 조각으로 나누어 먹여 주었는데, 한 조각씩 다 먹은 후에는 내 손가락까지 핥아먹도록 놔둔다. 나는 샤일로를 두 팔로 감싸 안고, 쓰다듬고, 두 귀를 어루만져 주고, 그의 코에 뽀뽀도 해 준다. 나는 내가 엄마를 사랑하는 만큼 그를 사랑한다고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말해 주었다.

걱정스러운 부분은 샤일로가 계속 조용히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나는 그가 그럴 것이라고 믿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내가 처음 볼 때부터 조

용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언덕 아래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나는 내 입에 한 손가락을 대고 뒤돌아보고는 “씻” 하고 말했다.

샤일로는 소리를 내지 않는다. 마치 그가 새끼였을 때 목청 제거 수술을 받아 영영 회복이 안 되는 것 같다.

그 날 밤 나는 한 마리의 귀뚜라미처럼 긴장해 있다. 아빠가 지프를 운전하실 때에도, 샤일로가 짓지나 않을까 두려워 긴장이 된다. 데라 린과 백키가 저녁 식사 후 밖에 마당에서 뻑뻑 거리고 소리치며 놀고 있을 때에도 샤일로가 자기도 거기에 끼어 놀고 싶어 그 울타리 아래에 구멍을 파면 어쩌나 하고 걱정된다. 그러나 샤일로는 결코 오지 않는다.

나는 감자 한 조각과 옥수수빵 얼마만큼을 어두워지기 전에 용케 그에게 가져다 주었다. 나는 그와 함께 울타리 안에서 앉았고, 그는 내 몸의 여기저기에 올라타고, 내 얼굴을 핥았다. 만약 그가 고양이였다면, 고양이가 기분 좋을 때 나는 가르랑거리는 소리를 내었을 것이다. 나를 보고 그는 그만큼 기뻐한다.

샤일로에게 그를 매어두는 끈 같은 것을 가지고 내일 다시 오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언덕을 여기저기 뛰어 다닐 거라고, 그와 나, 매일 매일. 그는 이제 나의 개이고, 나는 결코 누구도 너를 다시는 아프게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나서, 그 울타리를 끈으로 잘 연결하고 내려왔다. 집으로 와서 밤새 잘 잤다. 오랜만에 처음으로.

## 제 5 장

한번에 한 문제씩 생각하자고, 스스로 다짐한다. 첫 번째 문제는 샤일로  
를 어디다 숨길 것인가 하는 것인가 인데 이것은 해결 됐다.

두 번째는 과연 샤일로가 조용히 있을까 하는 문제인데, 그렇다, 그는 그  
렇게 했다.

세 번째는 엄마한테 눈치 채이지 않게 하루에 두번씩 샤일로에게 줄 만  
큼의 먹을 것을 어떻게 집 밖으로 빼 오느냐 하는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전에 아빠가 나가시자 마자, 나는 부엌에서 비스켓  
하나, 창고에서 밧줄 하나를 가지고 나와, 엄마와 데라 린과 벅키가 침대에  
서 나오기 전에 그 먼 언덕으로 뛰어 올라갔다.

이번에는 샤일로를 나를 기다리며 서서 꼬리를 차 유리의 와이퍼처럼 빠  
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다. 순수한 기쁨에서 우러나온 작게 내는 깹깹 하는  
소리는 내가 “숯” 하자 금새 끊어졌으나, 내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자 마  
자, 샤일로는 거의 나의 어깨 높이까지 뛰어 올라 나의 뺨을 핥고, 내 양손  
과 허벅지에 코를 비벼댄다. 그는 내가 준 비스켓을 한 입에 꿀꺽 삼킨다.  
더 먹고 싶어하는 것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짓지는 않는다. 자기가 조용  
히 하기만 하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목걸이  
에 줄을 묶었다.

“샤일로, 우리 이제 뛰어 보는 거야.” 라고 나는 말했다.

샤일로를 있는 울타리로 들어가고 나오기 위해, 나는 거기 소나무 기둥  
에 의지해 울타리를 지탱하고 있는 끈의 한 부분을 풀어야 하고, 그리고는  
빠져 나올 수 있을 정도의 길이 만큼 울타리를 옆으로 밀어놓는다. 샤일로  
는 나를 먼저 빠져나가게 하고, 뒤따라 나와, 우리 둘은 다리가 여섯 개 달  
린 동물인 양 다리를 부딪히면서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러면서  
샤일로는 내 손을 핥으려고 뛰어 오르기도 한다. 나는 끈을 놓아 샤일로는  
한동안 자유롭게 뛰게 해 준다. 그는 몇 발자국만이라도 앞서 가게 될라치  
면, 꼭 멈추고는 뒤를 돌아보며 내가 오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가던 길을  
멈추고 나무나 덤불에 코를 대고 쿵쿵하는 동안 내가 그를 지나쳐 계속 가  
면, 그의 발은 나를 따라 잡기 위해서 두 배로 뛰었다.

숲에서 나와 언덕의 저편에 다다르자, 초원이 있었고, 나는 쉬려고 풀밭

에 털썩 주저앉았다. 샤일로로는 내 몸 전체에 달려들어, 내 얼굴이 척척하게 젖을 정도로 그의 혀로 핥는다. 나는 낄낄 웃으며 몸을 뒤집어 엎드려서 내 머리와 목을 내 팔로 가린다. 샤일로는 킁킁대며 그의 코를 내 어깨 아래로 밀어 넣고는 내 몸을 뒤집으려 한다. 나는 웃으며 몸을 틀어 등을 대고 다시 누우면서 샤일로를 내 가슴 쪽으로 끌어 당겨, 한동안 우리 둘은 숨을 돌리면서 거기 그렇게 누워 햇빛을 마음껏 쬐었다.

“오늘은 뭘 했니, 마티?” 아빠는 그 날 저녁 늦게 지프차에서 내리시면서 물어보셨다.

“아 내, 언덕 위에서 사냥개를 찾아다녔어요. 그냥 그렇게 보냈어요.” 라고 난 대답했다.

“켄 모으는 것은 어떻게 되가는 중이냐?”

“이틀 전에 몇 개 찾았어요.”

“머피 의사 집 가까이 도랑에 병 몇 개가 있더구나.” 아빠는 말씀하신다.

“제가 가서 보겠어요.” 나는 아빠에게 이렇게 말하고 가방을 가지고 집을 나선다. 나는 켄 모으기를 계속 해서 프랜들리에 있는 식료품 가게에서 고기와 뼈를 살 얼마만큼의 돈을 충당해야 한다. 샤일로는 더 크게 자랄수록, 더 많이 먹게 될 테니까.

집에 돌아왔을 때, 저녁식사가 식탁에 차려져 있고 아빠는 식사기도를 하고 계신다. “주님, 우리 식탁에 음식을 주신 것 감사 드립니다. 이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축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멘.”

엄마는 고기 덩어리를 들어 옆으로 건네시며 돌려 가면서 먹도록 하시면서 식사가 시작된다.

나는 내 분량의 반쯤만 먹고는 말했다. “저녁 식사 때는 이렇게 배가 불러지는데 자기 전에는 다시 배고파요.”

엄마는 고개를 들지도 않으신다. “글세, 그러면 저녁때는 그렇게 많이 먹지 말고, 자기 전에 다시 먹으렴.”

“음식이 그 때면 다 없어지잖아요.”

“콘플레이크나 뭐 다른 것이 항상 있잖니.”

“하지만 난 고기나 감자가 나중에 먹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얼마만큼 다시 덜어 두렴.”

“테라 린이 먹을 거예요.”

“너 정말 왜 이러니, 마티.” 엄마가 말씀하신다.

“누가 차가운 고기 조각을 먹고 싶겠어?” 데라 린이 말한다.

쟁강하는 포크 소리가 계속 식탁에서 났다. 백키는 삶은 감자 안으로 계속 포크를 쭈셔 넣고 있고 누구도 고개를 들지 않는다. 잠시 멈추는 사람도 없다. 질문을 하는 사람도 없다. 통나무에서 떨어지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다.

나는 마침내 식탁에서 일어나서 어느 정도의 고기 덩어리와 감자 반쪽을 조그만 접시에 담는다.

“나 이것을 냉장고에 넣을 거니까, 데라 린, 가서 여기에 손 데지 마.” 라고 나는 말한다.

“안 그럴 거야, 말했잖아.” 데라 린이 말한다.

나는 다른 방으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지금까지는 그런 데로 괜찮다.

“너 불안해 보이는 구나, 마티,” 엄마가 말씀하신다.

“저요? 전혀 아닌데. 그냥 할 일이 많아요.”

“이번 여름에 데이빗 하워드는 어디 있는 거니? 여태까지 다니는 걸 본 적이 없구나.”

“삼촌을 방문하러 테네시에 간 것 같아요.”

“프레드와 마이클은?”

“프레드도 그동안 못 봤어요. 마이클은 무슨 캠프에 갔어요.”

“넌 외롭지 않니?”

“밖에 놀게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외로울 수가 있겠어요?” 나는 대답했다. 나는 그 애들이 나를 귀찮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

“네가 원하면 언제든지 다시 차 타고 나와 같이 일할 수 있단다.” 아빠가 말씀하셨다.

나는 몇 주전에 산 만화책을 집어 든다. “제가 가고 싶으면, 말씀드릴 게요.” 아빠에게 이렇게 말씀드렸다.

점차 부엌의 덜걱덜걱 소리가 잦아든다. 아빠는 항상 그러시듯이, 트림을 하고 밤하늘을 보러 뒷마당으로 나가신다. 백키는 음식을 깔짝거리고 있고, 그걸 본 엄마는 백키를 식탁에서 내보내신다. 데라 린은 백키를 보고 킬킬 웃었는데, 그 다음에는 접시를 치우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나는 뒷마당에서 바람을 쐬면서 이리 앉았다 저리 앉았다 하며 모두 다 부엌에서 나오기를 기다린다. 어느 때와 같이 백키와 데라 린은 풀밭에서 떠돌고 고향치고 여기 저기 다니며 뒹굴고 그런 모습이 보기 좋다. 한참을

앉아 있는 후에 나는 “내 0.22 구경 총 가지고 언덕 저쪽 위로 좀 가 봐야지.” 라고 말했다.

“이런 저녁 때 뭘 쏠려고 그러니?” 아빠가 물으신다.

“그냥 총 쏘는 연습 좀 하려 구요. 어두 침침할 때 얼마나 잘 맞출 수 있는지 좀 보려고요.” 라고 난 대답했다.

“우리 집이나 마당을 향해 총을 겨누는 짓은 절대 어떤 일이 있어도 하지 마라.” 엄마가 말씀하신다.

“정말 멀리에다 대고 쏠게요.” 라고 나는 약속했다. 총을 가지러 다시 안으로 가서 그 먹다 남은 음식을 그 작은 접시에서 작은 비닐봉투에 밀어 담고, 여동생들의 질러대는 그리고 웃는 소리를 뒤로 한 채 그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다시, 그 우리 가까이 다가가자, 낮고 즐거워하는 킁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내가 “쉬!” 라고 하자 곧 그 소리는 그쳤다. 들리는 소리는 오직 샤크로가 꼬리를 쉼 하고 움직이는 소리와, 순전하고 순수한 기쁨에 허공으로 몸을 일으켜 세워 뛰면서 그의 양발의 폭신한 부분이 울타리를 치는 소리, 내가 가져다 준 저녁밥을 통째로 삼킬 때 아래턱에서 나는 질척질척하면서도 딱딱거리는 소리였고, 그리고 나서 그는 역시 나를 여기저기 훑으면서 나에게 대한 사랑을 나타내기 시작한다.

나는 그 줄을 풀고 그 울타리를 밀어 연 다음 샤크로를 시냇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 그 파이 팬을 신선한 물로 채운다. 내가 그를 우리로 다시 데리고 오자, 샤크로는 실망하면서 뛰어 다니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하였지만, 나는 샤크로가 그 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흡족하게 포옹하고 꼭 껴안고 어루만져 주면서 다음 날 초원을 또 한 번 뛰어다니자는 약속을 한다.

그 언덕을 반쯤 내려 왔을 때 내가 총을 한 번도 쏘지 않았던 것이 생각났고, 아빠가 무슨 말을 하시면 어찌나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내가 그 뒷마당에 도착했을 때, 집안 식구 모두가 집 앞 진입로를 향하고 있는데 그것은 트럭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 왔기 때문이다.

나는 오던 길에서 멈춰 서서, 손가락에 힘을 주어 총을 꼭 쥐었다.

아빠는, 집 앞마당의 가장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앞으로 몸을 굽히고 살피신다. “저드 트라버스의 트럭 같아 보이는 걸.” 아빠가 말씀하신다.

나는 숨도 못 쉴 정도로 가슴이 팍 죄어오는 것을 느낀다.

그 트럭이 우리 집의 옆쪽에 정지하자 차 문이 확 열린다.

“안녕하세요!” 뽀족한 굽이 달린 오래된 서부 스타일의 부츠를 신은 저드가 차에서 나와 이 쪽으로 다가오며 이렇게 외친다.

“안녕하세요!” 그는 말했다.

“저녁은 드셨어요?” 엄마는 물으셨다. “음식이 좀 남은 것이 있는데 곧 데워 드릴 수 있어요.”

“벌써 갈비를 좀 먹었어요.” 라고 그는 말했다. “나는 먹을 것을 구하는 중이 아니라, 개 한 마리를 찾고 있어요, 프레스톤 부인, 나는 개 한 마리를 찾고 있다고요.” 분명 그는 지체 없이 본론으로 들어 간다. 그러자 나의 심장은 정말로 쿵쿵 뚫다.

“새로 산 개가 다시 도망을 갔나?” 아빠는 그에게 묻는다.

“내가 신게 멧세코 이번에 그 개를 찾으면, 그 다리를 분질러 버릴 거예요,” 라고 저드는 말하고 침을 뱉었다.

“그러지 말게, 저드. 네 다리가 부러진 개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그 개가 계속 이렇게 도망가면 그 개는 더 이상 내게 개로서 쓸모가 없죠. 내가 사냥에 데리고 갔을 때 그 개가 무리를 떠난 것이 이번이 네 번째예요. 본 때를 보여줘야 해요. 실컷 때려 준 후 굶겨서 야위게 만들 겁니다. 혹시 그 개 못 보셨나요?”

“오늘 배달하는 도중에는 확실히 보지 못했네.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봤더라면 그 개를 지프에 태워 곧장 자네에게 데려다 주었을 거야.” 아빠는 말했다.

“댁의 아들은 어떨까요? 아들이 그 개를 보지 않았을까요?”

아빠는 내가 언덕에서 돌아오는 소리를 듣고 나를 향해 몸을 돌리셨다. “마티?”

나는 집 옆 편에서 땅에 뿌리가 박힌 듯이 서 있었다. “뭐요?”

“이리 와 봐라. 저드 아저씨의 개가 다시없어졌구나. 그리고 저드 아저씨는 네가 그 개를 본 적이 있는지 물어 보시는 구나.”

“아-아저씨 개요? 여기 마당에서요? 하루 종일 우리 마당에서 어떤 개도 본 적이 없는데요.” 나는 몇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이렇게 말한다.

저드는 분명 나를 열심히 살피고 있다. 아빠도 그러신다.

“글쎸, 네가 병을 찾으러 외출했을 때는 어땠니? 아빠는 물으셨다. ” 그 때는 봤니?“

“아뇨.” 나의 목소리는 이제 더 분명해 진다. “때때로 돌아다니는 베이커 씨의 큰 독일산 셰퍼드가 눈에 띄었고 작고 늙은 회색 개를 본 적이 있지만, 그 비글은 확실히 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계속 잘 살펴봐라, 그리고 그 개를 보면, 목 둘레에 줄을 던져 감아 이 쪽으로 끌고 와라. 잘 들었니?” 라고 저드는 말한다.

나는 단지 그를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할 수 없다. 내 고개를 끄덕일 수조차 없다. 나는 결코 그에게 그런 약속을 하지 않을 것이다.

“너 저드 아저씨가 너에게 부탁하는 것 들었지? 마티.” 아빠는 말했다.

나는 머리를 끄덕였다. 그래요, 나는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좋아, 그럼.” 저드는 이렇게 말하고 다시 그의 트럭에 탄다.

“어제 사냥에서 운 좋게 뭐 좋은 것 잡았나?” 아빠는 그의 등뒤에서 이렇게 물으셨다.

“토끼 한 마리요. 마멋 한 마리를 봤지만, 잡지는 못했죠. 그 새로 산 개가 도망만 가지 않았더라면 그걸 잡았을 텐데. 그 개가 뛰어난 사냥개만 아니었어도, 지금쯤이면 아마도 이미 쏘아 버렸을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 보안관이 뭐라고 할걸세, 저드.”

“내가 내 개를 어떻게 하든 법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못했고, 지금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는 못할 거예요.” 저드는 말했다.

그는 웃으며 손을 흔들고는, 엔진의 시동을 걸었고, 트럭은 떠나갔다.

## 제 6 장

웨스트 버지니아의 밤은 철흑같이 어둡다. 내 방의 벽이나 천장에서는 프랜들리의 데이비드 하워드의 집에서 하룻밤을 지낼 때 보았던 자동차 불빛이 지나가는 일은 없다. 창문으로 가로등 불빛이 비추는 것도, 이웃집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일도 없다. 내가 사는 곳은 가로등이 전혀 없고, 우리 창문에서 집 안이 들여다보일 정도로 가까이 사는 이웃집도 없다.

어쨌든, 나는 지금 눈을 뜨고 있다. 나는 거실의 어둠을 응시하고 그 어둠은 나를 도로 응시한다.

한 번은, 몇 년 전에, 엄마가 데라 린과 나를 위해 부활절에 토끼 모양의 밀크 초콜릿을 사 주셨을 때, 난 내 것을 다 먹었지만, 데라 린은 분홍색과 노란색의 호일에 싸서 옷장 서랍에 넣어 두고, 그 초콜릿을 매일 매일 조금씩만 베어먹었던 것이 기억난다. 하루는 내가 안에 몰래 들어가서 그 토끼모양의 두 귀 부분을 다 먹어 버렸다. 데라 린은 물론 까무러치듯 화를 내었고, 엄마가 내가 그랬냐고 내게 물어보셨을 때,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나는 내 두 뺨과 목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진짜니, 마티?” 엄마는 물으셨다. 나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는 방을 나왔다. 그 날은 내 생애 가장 최악의 날 중 하나였다.

약 한 시간 후에 엄마는 앞마당으로 나오셨고 나는 거기서 혼자 천천히 그네를 타고 있었고, 엄마는 내 옆에 앉으셨다.

“너 말이다, 마티. 데라 린은 자기의 토끼 초콜릿의 귀를 누가 먹어 버렸는지 모르고 나도 모른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신 단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초콜릿을 먹은 사람을 아주 슬픈 눈으로 내려다보고 계신단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지는 것이라고 나와있어. 나는 네가 이 말을 늘 잊지 말기를 바란다.”

나는 단지 침만 삼킬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엄마가 나에게 다시 그 토끼 초콜릿에 대해 물으셨을 때, 나는 큰 맘 먹고 그렇다고 말했고, 엄마는 내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하셨는데, 그게 그리 나쁘진 않았다. 솔직히 그 다음에 기분이 훨씬 나아졌다. 하지만 그 때 엄마는 예수님은 내가 옆방으로 가서 데라 린에게 내가

한 일을 고백하길 원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나는 그렇게 했다. 그러자 데라 린은 다시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 카라올라 한 상자를 내게 던져서 내 코가 하마터면 부러질 뻔했다. 나를 썩어빠진 욕심 많은 돼지라고 불렀다. 엄마는 이 소란이 예수님을 슬프게 만들었나 아닌가에 대한 말씀은 전혀 하지 않으셨다.

이제 방안에서 나를 둘러싼 어둠 속에서 눈을 말뚱말뚱 뜨고, 나는 내가 한 거짓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본다. 오늘 마당에서 그의 개를 본 적이 없다고 저드에게 한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도 부끄럽지 않은 진실이었다. 왜냐하면 샤일로로는 우리 집 마당 근처 어디에도 와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자기가 한 말 뿐 아니라 하지 않은 말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 또한 알고 있다. 내가 저드에게 한 말 중 어떤 것도 명백한 거짓은 아니었지만, 나 자신이 감추고 하지 않은 말 때문에 나는 저드가 내가 그의 개를 전혀 보지 못했다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예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요? 완전히 백퍼센트 정직하게 그 개를 다시 저드에게 데리고 가서 당신의 피조물 중의 하나가 발길로 채이고 다시 굶주리게 되기를 바라시나요, 아니면 계속 여기에다 두고 그 개를 살찌워 당신의 창조를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나는 아주 작게 말한다.

그 질문의 답은 자명한 것 같았고, 이 기도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게 된다. 혼자서 그 기도내용을 반복하면서 내가 이 기도를 다시 써야될 때를 대비해서 외워두고자 한다. 만약 예수님이 내가 일요일 성경학교에서 카드 이야기를 통해 배웠던 그런 분이시라면, 그는 마르고 작은 비글 한 마리가 다치는 것을 원하시는 그런 분은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문제는 그 보다 더 복잡하다. 나는 또한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내가 따로 둔 남은 고기 덩어리를 먹지 않았던 것이다. 한 조각 한 조각 아낀 음식으로 돈이 절약되어 데라 린에게 운동화 한 켤레를 사줄 만큼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엄마는 엄마의 오래된 운동화의 윗부분을 잘라내어 그 부분을 데라 린의 운동화의 앞발꿈치 부분을 넓히는데 덧붙일 필요도 없을 것이었다. 낭비된 음식 한 조각 한 조각은 모두 돈이었다. 프레스톤 할머니를 돌봐 드리는 데로 가지 않고 아껴 둘 수 있는 돈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생긴다면, 우리 모두가 바라는 것의 일

순위는 전화기인데, 전화기가 있으면 우리는 전화 때문에 차를 타고 머피의사선생님의 집까지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 음식은 내 접시에 놓인 내 몫으로 그것을 내가 안 먹는다고 거기에 무슨 해가 있겠는가?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샤일로에게 가서 목에 줄을 두르고,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이들의 눈을 피해 다시 언덕의 저편 쪽으로 데리고 간다. 그를 풀어 준 다음, 우리는 같이 달리기 경주를 하고 구르고 웃고 덩굴고, 그러다가 중간 중간에 클로버가 자라는 풀밭에서, 나는 등을 대고 샤일로는 배를 대고 누워 잠시 숨을 돌리고, 서로 코를 비벼 댄다.

샤일로가 점점 인간을 닮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점점 개를 닮아가고 있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구에 다시 돌아오신다면, 내 생각에는, 한 마리의 개로 돌아오실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두 팔에 안고 있는 이 개만큼 겸손하거나 인내심 있거나 사랑스럽거나 또는 충성스러운 이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 가족이 일요일의 푸짐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후 늦은 시간이 되자 먹구름이 몰려 들어오고, 비가 우리 집의 양철 지붕을 내리치면서 유리창에 냇물처럼 비가 흘러내리면서 옆 뜰에 작은 연못을 만들었다.

나는 창 밖 저 먼 언덕을 응시하지 않을 수 없다. 샤일로는 거기 보다는 마른 땅 어디론 가로 가려고 그 울타리를 뛰어 넘으려고 할까, 아니면 그렇게 할 수조차 있을까? 그는 내가 만들어 준 판자 지붕 아래로 들어갈 만큼 영리하게 행동할까? 내가 바람을 피할 수 있을 정도로 잘 만들기는 한 것일까? 샤일로가 짚으면 어떡하지?

20분 후에 그 비는 멎고, 해가 나오고, 새는 다시 노래하기 시작하고, 모든 기어다니는 벌레들은 젖은 진흙 사이를 기어다닌다. 샤일로는 지금의 장소에 계속 머물면서 내가 그를 위해 정해 준 그 곳이 최상의 장소라고 믿고 있다. 줄곧 조용히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생명이 달린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

“마티,” 아빠가 지프차를 닦기 위해 천 조각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시면서 나를 부르신다. “어제 데이빗 엄마를 만났는데, 데이빗이 테네시로부터 돌아와서, 너희 남자애들이 언제 같이 만날 수 있을까 알고 싶어 한다고 전하더구나. 데이빗 엄마는 데이빗이 다음 주중 언제 하루 여기에 오고 싶다고 말했다고 하던데.”

나는 데이빗 하워드를 꽤 좋아하지만, 그가 이리로 올라오는 것은 분명 원치 않는다. 데이빗은 이 언덕을 좋아하고 항상 여기서 놀고 싶어한다. 그는 테러 린 같이 뱀을 무서워하지도 않는다. 데이빗은 사실 저 언덕의 맨 꼭대기까지 올라간 다음, 전속력으로 뛰어서 누가 먼저 맨 아래에 있는 울타리에 도착하나 경주하는 것을 좋아한다.

“글쎄요, 제가 내일 데이빗의 집으로 내려 가 볼 게요. 그 편이 낫겠는데요.” 라고 나는 말했다.

“둘 다 하지 그러니?” 엄마는 암탉들에게 곡식사료를 던져 주려고 나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름 내내 거의 어떤 친구도 만난 적이 없잖니, 마티. 하루는 네가 프랜들리로 내려 가 보고, 다른 날은 데이빗을 여기로 오게 하면 어떨겠니?”

“이 위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달리 대답할 말을 찾지 못해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은 잘못 대답한 것이었다. 엄마와 아빠 두 분 다 이제 나를 쳐다 보신다.

“넌 저번 날은 여기에는 할 것이 아주 많다고 말하지 않았니?” 아빠는 펄프에서 걸레를 짜며 내게 말씀하신다.

“나에겐 할 것이 많지만, 데이빗 하워드에겐 그다지 많지 않아요.” 라고 말했다. 거짓말. 그것은 순 거짓말이다. 한번 거짓말을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거짓말을 불러오고, 전체 생활이 거짓말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나는 그 후에 앞마당의 그네에 앉아서, 밀려고도 하지 않은 채 안에서 식탁이 차려지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당신 생각에 마티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아, 여보?” 아빠의 목소리이다.

“난 그냥 그 나이 때는 그럴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엄마가 아빠에게 말했다. “열 한 살은 번덕스러워 지는 시기예요. 아무튼 나한테는 그랬어요.”

“당신 생각에는 그게 다 인 것 같소?”

“어떤 날은 재미있어 하던 것을 그 다음 날에는 전혀 재미없어 하는 것. 그 이상 또 뭐가 있겠어요?”

“마티가 아직도 그 개를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지 않소?”

“열 한 살은 모든 것에 마음을 쓰는 때죠.” 엄마는 대답했다. 그리고 나서 저녁 뉴스가 나오고, 데라 린과 백키는 마당으로 나왔고, 아빠만 남아서 TV를 보신다.

데라 린은 오늘 밤 심술을 부린다. 조금씩 여름에 싫증을 내기 시작했지만, 그렇다고 가을에 학교에 들어 갈 준비가 그리 잘 되어 있진 않다. 그냥 심술을 부리느라고, 데라 린은 그네에 앉아 있는 내 옆에 털썩 주저앉아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따라 하기 시작한다. 내가 한 숨을 쉬면, 데라 린도 한숨을 쉰다. 내가 두 팔을 내 머리 위에 올려놓자, 데라 린도 그대로 한다. 백키도 그대로 따라 하고, 그러면서 둘은 크게 웃어 낸다.

이렇게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낸 후, 나는 언덕 위로 올라가서 샬로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기로 마음먹지만, 내가 현관 앞 베란다에서 내려 오자, 데라 린도 일어나서 나를 따라 오려고 하는 것 같다.

나는 멈춘다. “뱀 막대기를 하나 찾아봐야겠는데.” 나는 혼잣말처럼 말한다.

“뱀 막대기 하나 찾아봐야겠는데” 데라 린이 말한다.

나는 데라 린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그저 마당의 가장자리를 따라 걷기 시작해서, 여기에서 나무막대기 하나를, 저기에서 또 하나를 주워 들고, 데라 린은 줄곧 내 뒤를 졸졸 따라 다닌다.

“손잡이가 아주 길고 끝은 튼튼하고 갈라져야 좋을 텐데.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이제 까지 본 중에서 가장 크고 성미가 고약한 뱀이었거든.”

데라 린은 멈추고 꼼짝도 하지 않는다. 데라 린은 애를 써도 말을 아직 똑바로 잘 하지는 못하지만, 이제는 말하고자 하는 의욕도 아예 잃었다. “무슨 뱀?” 데라 린은 묻는다.

“오늘 아침에 언덕에서 본 뱀 말이야. 툴림없이 4, 5 피트 정도는 됐는데, 돌아다니다가 아무 다리든 닿기만 하면 자기 몸으로 칭칭 감아 버린단다.”

데라 린은 더 이상 한 발자국도 떼지 않는다. 백키는 앞 베란다부터 내려 올 마음조차 없다.

“뱀을 찾아서 뭘 할건데?” 데라 린이 묻는다.

“먼저 뱀이 날 물지 못하게 하는 거야. 막대기로 뱀을 들어올려 주머니 안에 넣고 그 주머니를 들고 샬로로 기숙사 학교를 지나 올라가서 숲에 다시 놓아주는 거야. 꼭 그래야만 할 때 빠고는 뱀을 죽이진 않을 거야.”

“그걸 죽여.” 테라 린이 말한다. “오빠 총으로 머리를 날려 버려.”

“너는 그동안 TV에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 테라 린. 뱀에게도 살 권리가 있어.” 라고 나는 말해 주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수의사 조수가 되어 애완용 뱀도 보살펴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다.

다음날, 데이빗 하워드가 프랜들리에서 자전거로 이리로 올라올 것을 미리 막기 위해, 데이빗을 만나러 내가 내려갔다. 나는 먼저 샤일로로 보살펴 주었다. 아침식사에서 남은 주먹크기 정도의 스크램블 에그와 베이컨 조각 그리고 호밀빵 토스트 반 조각을 청바지 주머니에 쑤셔 넣어 갔다. 샤일로에게는 이 양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저드로부터 받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라는 것을 나는 안다.

식사는 내게도 충분치 못하다. 샤일로를 위해서 지금같이 나의 아침, 점심 그리고 저녁식사의 반을 몰래 빼돌렸기 때문에 나는 늘 반은 배고픈 상태로 지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내 뉘보다 더 먹게 된다면, 샤일로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비용을 우리에게 안기게 만드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프랜들리로 출발하기 전에 내 주머니를 벌레가 든 복숭아로 채워 넣고, 하나씩 잡고 한 입 물어서 한 손에 빨은 다음 벌레들을 빼낸 다음 도로 입에 넣는다.

그 날 아침에 올라가서 샤일로는 그 간이지방 아래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는 기분이 좋았다. 그 지방 아래의 땅은 젖지 않았고, 샤일로는 누울 수 있게 헛간에서 오래된 마대자루를 가지고 와서 땅 위에 깔아서, 제법 침대 같고, 더욱 집 같이 만들어 주었다.

프랜들리로 가는 데는, 지나가는 차를 얻어 타지 않는 한 걸어서 아주 오래 걸린다. 모르는 사람의 차에 타면 안 되지만 아빠가 이 지역의 집배원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 거의 모두가 내가 아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날 처음 다가 온 사람은 다름 아닌 저드 이다.

자동차 소리를 듣고 뒤돌아보니 저드의 트럭의 속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내가 앞을 보고 계속 걷고 있어도, 그는 내 옆으로 차를 세운다.

“태워 줄까?” 그는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친다.

“고맙지만 괜찮아요. 거의 다 왔어요.” 난 이렇게 대답하고.

“어딜 가는 중인데?”

나는 재빨리 거짓말을 지어낼 수 없다. “데이빗 하워드의 집예요.”

“그럼 야, 너 반도 못 왔잖아. 올라 타.”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한, 꼭 타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가 이미 나에게 대해 미심쩍어 하므로, 안 타면 일은 더 악화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차에 올라탄다.

“아직 내 개 못 봤니?” 이게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다.

“지금까지 모든 길을 다 찾아보았어요. 비글은 없었는데요.” 이것이 내가 한 대답이다.

“글쎄다, 나는 그 개가 길로 다닌다고는 생각지 않는데. 그 개같이 수줍음이 많은 개는 말이다. 토끼 주위에 있을 때 빼놓고는 들쥐 같이 사람을 피해 다니지. 그 개를 내게 판 사람이 해 준 말이야. 그리고 그 사람 말이 꼭 맞더라고.”

“그 사람한테 얼마를 줬는데요?” 나는 묻는다.

“그 개가 숫기가 없어 싸게 살 수 있었지. 35달러였지. 내가 그 망할 놈의 개를 집에 꼭 붙들어 두었더라면, 사냥개로서는 그 보다는 훨씬 더 나가는 놈이지.”

“아저씨가 그 개를 붙들어 두기를 바란다면, 개한테 잘 해 주셔야 했죠.” 나는 뻔뻔스러울 정도로 대담하게 말한다.

“네가 그 일에 대해 뭘 안다고 그러냐?” 저드는 내 쪽으로 갑자기 고개를 향했다가, 다시 반대편으로 고개를 돌려 창 밖으로 담배를 뿜는다. “너 여태까지 개 키워 본 적 없지, 그렇지?”

“저는 개는 아이와 똑같다고 생각해요. 아이도 잘 대해 주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기회만 나면 도망가 버릴 거예요.”

저드는 웃었다. “글쎄, 그 말이 맞다면, 나 같으면 내가 네 살 때 벌써 도망갔어야 했네. 내가 생각해 낼 수 있는 아주 오래 전으로 기억하는데, 아빠는 벨트로 나를 때리셨지. 큰 오래된 가죽 벨트로 내 등을 내리쳐서 살갓이 심하게 벗어져서 윗도리를 머리 위로 잡아 당겨 입을 수도 없을 정도였어. 그 외에 갈 만한 곳은 아무데도 없었어. 그러다가 결국 이렇게 되었지, 그렇지 않니?”

“이렇게 되었다니요?”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는, 대담하게 이렇게 말하고 만다.

그러자 저드는 화난 것 같다. “야, 너 나와 맞먹으려고 하니?”

“아니에요. 나는 아저씨가 그래서 어떻게 되셨나 단지 묻고 있을 뿐이에요. 네 살 적부터 맞으셨다니, 안 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드는 한 순간 아주 잠잠하다. 그의 입 안 한 쪽 구석에 한참 있었던 썩는담배 한 덩어리가 불의 위 아래로 불룩 불룩 움직인다. “글쎄, 나를 동정하느라 시간을 낭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구나. 나를 안 됐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나 또한 다른 사람을 안 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동정심 없이도 나는 살아 갈 수 있으니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테이벳 하워드가 살고 있는 곳 도로에 다다르자, 트럭의 속도가 늦춰진다.

“여기서부터는 걸어 갈 수 있어요. 고마워요.” 나는 이렇게 인사하고는 차에서 내렸다.

그러나, 내가 길을 건너려고 트럭을 돌아 나오자, 저드는 창문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아까 내가 말했듯이, 그 개는 숫기가 없어. 길 근처에 자주 보일 거라고는 생각지 마라. 그렇지만, 들판에서는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 거기에 있을 가능성이 더 커. 그 개가 보이면, 그냥 휘파람만 불면 되. 내가 가르쳐 준거야. 내가 휘파람을 불면 나한테 오고, 내가 먹을 것을 주지. 그렇지만, 내 맘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나는 그 개가 중국으로 날라갈 정도로 세계 건어 차 주지. 그 개가 보이면, 그냥 휘파람을 부는 거야. 그리고 그 개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내가 테러리 올께. 알아들었지?”

“들었어요.” 이렇게 대답하고 난 후 나는 계속 걸어갔다.

## 제 7 장

데이빗 하워드의 집은 크기가 우리 집의 거의 두 배나 되는데 가족 수는 절반 정도이다. 데이빗과 엄마 아빠 뿐이다. 데이빗의 아빠는 시스터빌에 있는 타일러 스타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데이빗의 엄마는 선생님이다. 그 분들은 항상 내가 집에 놀러오는 것을 반기셨는데, 데이빗과 내가 제일 친한 친구이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내 생각으로는 그들의 오래된 집이 너무 커서, 세 명이 그 안에서 길을 잃을 지경이기 때문인 것 같다.

그 집은 2층이었는데, 지하실을 합치면 3층, 다락방까지 합치면 4층이다. 2층에는 4개의 침실이 있었는데, 하나는 데이빗이 쓰고, 하나는 부부용, 하나는 손님용이고, 나머지 하나는 컴퓨터도 한 대 있는 아빠의 서재이다. 아래층에는 큰 부엌, 식탁 위로 멋진 조명이 달린 식당, 거실, 유리창이 많이 달린 식물 재배용 구석방이 있고, 집의 세 면을 따라서는 베란다가 나 있었다. 언젠가 내가 엄마에게 데이빗의 집에는 손님만을 위한 방, 책 놓는 방, 식물용 방이 각각 하나씩 있다고 하니, 엄마는 그런 방이 세 개면 너무 많은 것이라고 하셨다. 엄마가 부러워하시는 것을 본 것은 그 때가 처음이었다.

데이빗은 그 집이 원래 그의 증조 할아버지 것이었다고 했으므로, 나는 그 집이 언젠가는 데이빗의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다. 마치 우리의 작은 집과 그 언덕 그리고 목초지와 그 멀리까지의 숲이 나와 샤일로의 것이 되는 것처럼. 다만, 나는 그것들을 데라 린과 백키 그리고 그들이 결혼하게 될 누군가와 함께 공유해야만 하는데, 방 네 개에 이들 모두가 살게 되는 것이다.

“마티!” 내가 교회 종소리와 같은 그 집의 초인종을 울리자 데이빗의 엄마는 나를 반겼다. “너를 보니 정말 기쁘구나. 어서 들어오렴.”

아줌마는 늘 진정으로 이렇게 나를 맞이하셨다. 나를 보지 못하는 때에도 늘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리고는 데이빗이 “야” 하는 소리를 지르며 아래층으로 내려왔는데, 줄을 잡아당기면 날아다니는 헬리콥터를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는 곧 뒷마당으로 나가서 그 헬리콥터를 쫓아다니면서, 방학한 후 6주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해 얘기를 나누었다. 나는 샤일로에 대한 말이 내 입에서 새 나가지 않도록 이를 악

물었다.

우리는 데이빗 집 뒤에 있는 계단에 앉아 그의 엄마가 파인애플 주스에 막대기를 꽂아 올려 주신 아이스캔디를 먹었다. 나는 데이빗에게 내가 보았던 회색 몸에 붉은 머리를 한 여우에 대해 말해 주었고, 데이빗은 그저 별다른 이유가 없는데도 야옹하며 울어대는 그의 친척 아줌마의 삼고양이에 대해 말해 주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물론 샤일로 얘기는 빼고, 저드와 그가 자기 개에게 심하게 한 일에 대해 말해 주자, 데이빗은 내게 깜짝 놀랄만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우리는 윗층에 있는 그의 방으로 올라갔고 데이빗은 자기에게 애완동물 하나가 생겼다면 나에게 한번 안아보겠느냐고 물었다.

“물론이야. 그런데 뭐야?”

“앉아서 눈을 감고 두 손을 내밀어 봐.” 데이빗은 말했다.

나는 그의 침대의 가장자리에 앉아서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내밀었다. 나는 뭔가 따뜻하고 꿈틀거리고 털이 난 것이 내 팔 안으로 털썩 들어 와 앉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그 대신 뭔가 차갑고 둥그렇고 딱딱한 것이 느껴졌고, 눈을 떠서 보니 그것은 등에 소라껍질을 이고 허둥지둥 돌아다니고 있는 소라게 한 마리가 들어 있는 모래가 깔린 어항이었다. 이게 뭐야, 애완동물인가?

“나의 첫 번째 애완동물이야!” 데이빗은 말했다. “이름은 허미야. 거기 안에 소라 껍데기들 보이지? 우리가 다 허미를 위해 산 거야. 밤이 되면 애가 한 소라 껍질에서 나와 또 다른 껍질로 간단다. 마치 옷을 갈아입는 것처럼 말이야.”

나는 데이빗을 보고 그리고 어항 속에 있는 그 게를 보았고 그러다가 데이빗에게 샤일로에 대해서 그리고 샤일도와 내가 언덕 저편에서 위로 아래로 뛰어다니고 풀밭에서 같이 뒹굴고 샤일도가 내 얼굴을 핥을 때의 느낌을 말해 주고 싶었다. 그러나 아직은 그러면 안 되며, 영영 말을 해서는 안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그래도 허미는 재미있게 보이긴 했다. 우리는 유치원에서 가지고 노는 데이빗의 낡은 블록을 꺼내어 양옆이 담으로 된 큰 미로를 짓고는 그 안에 허미를 넣었다. 그는 어느 쪽으로 가야하나 살피면서, 그 미로를 따라 미끄러지듯 나아가다가 막다른 길로 접어들게 되었을 때 우리는 웃음이 나왔다. 나는, 일단 익숙해지면 어떤 종류의 애완동물이던 괜찮을 거라고 생

각하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소라게를 다 준다해도 샤일로와는 바꾸지 않을 것이다.

“언제 너희 집에 놀러 갈 수 있니?” 데이빗은 블록을 같이 치우면서 내게 물었다.

“모르겠어” 라고 나는 대답했다. “엄마는 최근에 두통이 좀 있으셔서, 시끄러운 걸 견디지 못하시거든.” 그런데 이런,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내 스스로 문제를 더 만들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면 집 밖에 언덕에서 놀면 되잖아.” 데이빗이 제안했다. “그 들판에서 잡기놀이도 하고 망보기 놀이도 하면 되지.”

“엄마가 괜찮아 질 때까지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엄마가 나아지시면 그 때 보자. 하지만, 나는 다음 주에 너희 집에 다시 놀러 올 수 있을 것 같아, 아마도.”

내가 하워드 부인에게 집안 일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오후 늦기 전에 집에 돌아가야 된다고 말하자, 아줌마는 그럼 충분히 점심은 먹고 갈 수 있겠다고 말하셨는데, 그것은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었다. 나는 각 접시 밑에 인형 사이즈의 식탁보 같은 작은 매트가 깔려 있는 식탁에 앉았다. 하워드 부인은 우리 각자에게 양상추와 토마토를 곁들인 치킨 샐러드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셨다. 샌드위치가 서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꼭지에 올리브가 끼워져 있는 이쑤시개가 그 위에 꽂혀 있었다. 데이빗의 엄마는 이런 분이셨다. 나는 그 분께서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러신 거라고 생각한다. 항상 무엇인가를 지금 보다 더 낫게 만들기 위한 방법을 늘 찾고 계시는 것이었다.

아이들을 대하는 데도 그랬다. 데이빗의 엄마는 그냥 우리끼리만 먹게 놔두지 않으셨다. 우리 엄마는 우리에게 도시락 하나를 싸주시고는 나가서 숲 속에서 먹도록 놔 두셨다. 하지만 데이빗의 엄마는 항상 우리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어른들 이야기를 하셨다. 오늘은 아줌마가 우리가 투표로 새로운 공직자를 선출할 때, 아줌마가 바라건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쟁자들 중 보다 정직한 사람을 선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얘기하셨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더 나아지게 될 것이며, 웨스트 버지아나 주 전체도 얼마나 더 좋아질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셨다. 데이빗의 엄마는 이처럼 포부가 크신 분이였다.

“정부에서 일할 사람을 선출할 때 너의 아버지 혹은 할아버지의 친구라

는 이유로 찍어주는 일이 계속 되어서는 안 되는 거야.” 아줌마는 셀러리한 조각을 씹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 마음은 온통 음식에 가 있었다. 나는 내 몫의 치킨 샌드위치를 다 먹었다. 나는 배가 너무 고파서 샤일로로 위해 조금도 남겨 두질 못했던 것이다. 그 때 나는 내 자신이 부끄러웠다. 아줌마는 내가 작은 부스러기 조각까지도 먹는 것을 눈치 채고, 이렇게 물으셨다. “샌드위치 반 쪽을 더 만들만큼의 치킨 샐러드가 남아 있는데, 더 먹겠니, 마티?”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먹으면 참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하자, 아줌마는 바로 하나를 만들어 싸서 주셨다. “샤일로의 저녁이군” 하고 나는 속으로 말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점심이 끝난게 아니었다. 샌드위치 다음에는 타피오카 푸딩과 초콜릿이 덮인 그라함 크래커가 더 나왔는데 이것들은 내가 거의 크리스마스 만큼이나 좋아하는 것이었다. 샤일로에게 그 푸딩을 가져다 줄 방법을 찾을 수 없었으므로, 실컷 먹었지만 집으로 가는 길에 먹을 수 있게 쿠키 몇 개를 가져가도 되냐고 나는 또 물었고, 아줌마는 주머니를 열고 쿠키 여섯 개를 안에 넣어 주셨다.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엄마가 들으시면, 엄마는 창피해서 얼굴이 붉어지셨겠지만, 나는 샤일로를 위해서는 뭐든 다 하겠다는 그런 때였던 것 같다. 한 마리의 개를 살리려는 뜻을 가지고 한 거라면, 거짓말도 더 이상 거짓말인 것 같지 않았다. 그리고 그 옹고 그름이라는 것은 내 머리 속에서 온통 뒤죽박죽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꼬이게 된 일은, 데이빗의 집을 나온 후, 내가 집으로 향해 가질 않았다는 것이다. 먼저, 길을 내려가서 모퉁이 상점으로 갔고 윌리스 아저씨에게 내게 싸게 팔 수 있는 오래 된 치즈나 런치 미트 같은 종류가 있는지 물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수집한 캔을 바꿔서 53센트를 가지고 있었고, 나는 윌리스 아저씨에게 내가 가진 그 돈을 보여주었다.

“글세, 마티, 뭐가 있을까 한 번 보자꾸나.” 아저씨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나를 카운터 뒤에 있는 작은 방 안으로 안내했다. 그리고는 아저씨는 나를 보지도 않으면서 말을 하셨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무안을 주지 않으려고 할 때 하는 식이었다. “이것들은 꼭 상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너무 오래 돼서 팔 수 없는 것들이다. 너희 가족이 이것을 먹고 아프게 되거나 않았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 때 얼굴이 붉어졌는데, 왜냐하면 아빠가 윌리스 아저씨께서 무

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신다면, 죽고 싶을 정도로 창피해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윌리스 아저씨는 내가 우리 가족 저녁거리로 이 음식을 사고 있다고 생각한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내가 샤일로에 대해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내가 가진 잔돈을 다 털어 주고, 아저씨는 한 쪽은 곰팡이가 핀 큰 치즈 덩어리 하나와 시어진 크림 한 통, 누군가 봉지를 뜯어 다섯 개를 사가고 몇 개가 남은 프랑크푸르트 소시지 한 봉지를 나에게 주셨다. 나는 떨 듯이 매우 기뻐했다. 어쨌든, 나는 윌리스 아저씨가 이 일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왜냐하면, 여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는 입을 다무는 편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다음 풀어야 할 문제는 이 7월의 더위에 어떻게 이 모든 물품을 상하지 않게 보관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우리 냉장고 안에 둘 수는 없었다. 그렇게 되면, 엄마가 즉시 알아차리실 테니까.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다림질을 하면서 TV를 보고 계셨고 데라 린과 백키는 밖에서 그네를 타고 있었는데 주위가 온통 종이 인형들로 어지러웠다. 그래서 나는 창고 안을 돌아다니며 뭔가를 찾다가 오래된 하이 씨 깡통 하나를 발견했다.

나는 그 깡통과 내가 가진 그 모든 음식을 가지고 몰래 그 언덕으로 갔다. 그리고는 샤일로가 보는 동안, 나는 그 깡통의 바닥에 돌 하나를 놓고 그것을 차가운 시냇물 안에 놓은 다음 그 주위를 돌로 둘러싸고, 그 안에 신 크림 통과 프랑크푸르트 소시지 그리고 치즈와 쿠키들을 넣었다. 플라스틱 뚜껑을 위에 덮고 족제비들을 막기 위해 위에 큰돌을 올려놓았다. 그걸 보면서 나는 자신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환성을 지르고 싶을 정도였다. 그러면서 나는 또 배가 고파졌지만 하워드 아줌마가 준 치킨 샐러드 샌드위치 반쪽은 샤일로의 저녁이었고, 나는 그것을 즉시 그에게 주었다.

그런 후에 샤일로와 나는 한참동안 목초지 위를 달려 그 언덕의 저 먼 쪽까지 갔고, 샤일로를 도로 데리고 와서 파이 팬에 마실 물을 넣고, 꼭 안아준 후 언덕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아래쪽으로 반쯤 내려 왔을 때, 데라 린이 이리로 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너 여기 위에서 뭐하는 거야?” 나는 가슴이 철렁 하며 물었다.

“오빠가 무엇을 하는지 그냥 보고 싶어서.” 동생은 투덜댔다. “오빠는 거의 매일 여기 위로 가 버리잖아.”

“너 엄마가 다림질하시는 동안에 백키를 혼자 놔두고 온 거야?”

“백키는 괜찮아.” 데라 린은 몸을 돌려 다시 언덕 아래로 나를 따라 왔다. 샤일로로는 언덕 위에 우리 안에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것은 그가 얼마나 영리한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글쎄, 나는 그 뱀을 다시 찾고 있는 중이지만, 그 뱀은 영영 없어져 버렸어.” 나는 동생에게 말했다.

“오빠, 아직도 그 뱀을 잡지 못했어?” 동생은 물었고, 내가 뒤를 돌아보자, 동생의 두 눈동자는 왼쪽으로 갔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굴러갔다. “오빠는 그 뱀 막대기도 안 가지고 있네.” 동생이 말했다. 동생도 역시 영리했다.

“언덕 위에서 다른 걸로 하나 구했어” 라고 나는 말했다.

“거기 위에 뱀이 몇 마리쯤 있는 것 같아, 오빠?”

“응, 약 스물 아홉 마리 정도 볼 수 있을 거야. 그렇지만, 어린 뱀들은 여기저기 사방에 다 숨어 있어. 내내 큰 뱀으로 자라고 있지.”

그러자 데라 린은 더 빠르게 걸으면서 나를 앞질러 가려고 서두르면서 한 발 한 발 딛는 곳마다 자세히 살펴보았다.

나는 데라 린이나 데이빗 또는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에 대해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렇다고 완전히 나쁜 편도 아니었다. 프레스톤 할머니가 전에 한번 얘기해 주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그리고 거짓말쟁이는 지옥에 간다면, 나는 지옥행일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할머니는 동물은 안 되고, 오직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었다. 내가 천국에 가게 되고 왼쪽 아래로 두 발에 머리를 올려놓고 있는 샤일로를 내려다보게 된다면, 아마도 나는 분명 천국에서 도망치고 말 것이다.

## 제 8 장

그 다음 이틀동안은 우유버터처럼 부드럽게 지나갔다. 샤일로로는 아침으로 비스킷 몇 개 또는 토스트 그리고 햄 두 입 정도를 먹었고, 그런 후에 나는 저녁으로 프랑크푸르트 소시지를 몇 조각으로 자른 것에 신 크림과 섞은 것과 작은 치즈 몇 조각을 마련해 주었다. 치즈가 그의 이에 달라 붙어서 치즈를 떨어지게 하려고 머리를 옆으로 기울인 채로 씹었다. 그러나, 얼마 후부터는 그 조각들을 혀로 핥아 먹기 시작했다.

샤일로가 처음 치즈를 먹었을 때는 구토를 했는데, 나는 그것이 너무 기름진 음식이었기 때문에 위에 부담을 주어 그런 거라고 짐작했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걸 토하지 않고 용케 먹어대기 시작했고, 그러는 동안 샤일로는 조금씩 살이 붙어 갔다. 그러면서 날이 갈수록, 몸에 갈비뼈가 드러나지 않게 되었다.

그렇지만 나는 이런 비밀이 영원히 계속되지는 못할 거라는 걸 알았다. 개를 데리고 있는 지 6일 날 되던 밤에 나는 저드가 우리 땅에서 사냥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언덕 위 그리고 저편 멀리 숲 안 쪽 까지 돌면서, 그는 거기서 메추라기 몇 마리라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녁식사 중 아빠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자, 내 몸 전체가 싸늘해졌다. 나는 벌떡 일어나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다. “안 돼!” 그러나 나는 그저 내 의자를 꼭 움켜쥐면고 참았다.

“여보, 난 정말 그의 생각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엄마가 말씀하셨다.” 당신이 그에게 그사람의 땅에서 사냥을 하게 해 달라고 부탁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고, 나도 우리 땅에서 그가 사냥하는 것이 싫어요. 우리가 이번에 사냥을 허락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부탁해도 들어줄 수밖에 없을 테고, 그러면 총알이 여기 아래까지 날아올 수도 있잖아요.“

나는 의자를 꼭 쥐었던 손을 놓았으나, 내 가슴은 아직도 쿵쿵 세게 뛰고 있었다. 나는 저드가 혹시나 내가 그의 개를 언덕 위에 숨기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기웃거리고 다닐 구실을 찾고 있으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샤일로 일을 비밀로 하는 것은 터질 때를 기다리는 폭탄과도 같았다.

다음 날 아빠는 또 다른 소식을 가지고 오셨는데 아빠에게는 좋은 소식이었지만, 내게는 나쁜 소식이었다.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아빠는 두 손에 배낭을 잡고 문을 지나시면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이 나를 위해 자기들 우편함에 음식을 챙겨 놓는 일이 늘어나는구려. 전에는 엘리슨 부인만 바나나 빵을 우편함에 놓곤 했는데, 오늘 노라 클링글의 우편함을 보니 햄 샌드위치 하나가, 샌더스의 우편함에는 구운 파이 반쪽이 있더라구. 당신이 보기에 내가 말라 보여, 어때?”

엄마는 웃으셨다. “아마도 그냥 당신이 그 구역에서 역대 최고의 집배원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겠지요.”

“글세, 아무튼 우리 가족이 오늘 밤 디저트로 파이 반쪽을 먹게 됐네.” 아빠는 말씀하셨다.

오, 이런! 나는 혼잣말을 했다. 아마도 윌리스 아저씨가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더 많이 말을 옮겼나보다. 윌리스 아저씨가 공장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에게 내가 값 싼 음식을 사러 가게에 들렀다고 말하지는 않았겠지만, 프레스톤 가족이 어려운 시기에 있다는 얘기를 그냥 하게 되었고, 그리고는 갑자기 먹을 것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런 것이 여기의 인심이 아닌가.

다음 날 엄마는 두 여동생들을 데리고 아빠가 운전하는 차에 같이 타고 시내에 가셨는데, 데라 린에게는 새 운동화 한 켤레를 백키에게는 양말과 아래 속옷을 사 주기 위해서였다. 텅 빈집에 나 혼자만 있는 것은 그 때가 처음이었는데 그래서 난 이참에 샤일로로 마음껏 뛰어다니도록 풀어 주었다. 언덕에서 그 아래 있는 집까지 데리고 와서는 새 빵의 꼬트머리 부분을 한 덩어리 떼어 주었고, 아침 식사 때 남은 소시지와 우유 한 컵도 주었다. 그리고 나서는 오트밀 팬도 훑아먹도록 했다.

우리 집의 방 네 개를 일일이 다 보여주고, 집 현관 앞에 있는 그네에 앉아 내 무릎에 앉히고, 그네가 움직이는 동안 그 자리에서 샤일로가 자기 몸을 잘 지탱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며 웃기도 했다. 나는 그가 내가 누워 자는 소파의 냄새를 맡고, 집 앞 층계 아래로 기어 들어가 그 밑에 살고 있는 두더지 냄새도 맡도록 놔두었고, 그가 토끼 한 마리를 쫓아 갈 때 나도 같이 따라서 사방으로 돌아 다녔다. 그리고 나서 샤일로는 내가 그 토끼를 전혀 쓸 마음이 없는 것을 알고는 쫓는 것을 그만 두었다.

그러나 그 때 나는, 내가 그를 곧 우리로 데려다 주지 않는다면 지금의

이 행운도 이제 다 끝나버리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정오쯤에 그를 도로 데려다 주자, 그는 간이 지붕아래 깔아놓은 마대 자루위로 곧장 갔다. 그는 몹시 지쳐 있었다.

시간은 절묘하게 꼭 맞았다. 돌아와서 엄마를 위해 설거지를 마치고 집 안을 좀 정돈한 후, 밖을 내다보니, 엄마가 데리 린과 백키 그리고 그 애들의 짐 꾸러미를 들고 길을 올라오고 계셨기 때문이다. 누군가 차를 태워준 것이었고 이런 일은 프랜들리 근방에서는 늘상 있는 일이었다.

엄마는 내가 설거지를 해 놓아서 무척 기뻐하시는 표정이 역력했다.

“깨끗한 집에 돌아오니 정말 좋구나, 마티.” 물건을 살 때도 좋은 일이 있었지 뭐니. 내가 산 것 중에 세일 아닌 게 없더구나.” 엄마가 말씀하셨다.

데리 린은 새로 산 운동화를 신고 집으로 왔고 그 동안에 벌써 물집이 하나 생겼지만, 뭔가 새 것을 갖게 된 것이 너무 기쁜 나머지, 그런 건 신경도 쓰지 않는다.

그런 후에 내가 부엌으로 들어가자 엄마는 싱크대 위에 있는 거울로 자신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 눈썹을 높이 올리고 그리고는 다시 밀어 내리고 그리고는 다시 올리신다. 엄마는 내가 엄마를 쳐다보는 것을 보고는 물었다. “마티, 내 얼굴에 주름살이 생겼지? 사실대로 말해 봐.”

나는 엄마를 자세히 보았다. “정말 없어요.”

나는 정말 엄마의 주름살을 보지 못했다. 엄마는 예쁜 얼굴이셨다. 수수하지만, 부드러운.

“글세, 나도 역시 보지 못하겠는데, 오늘 아침 두 사람이나 내게 몸이 어떠냐고 물어 보더니 그 중에 한 명은 두통에 뭘 먹으면 좋은지 말해 주려고 하더구나. 사람들이 내가 두통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 보니, 내가 얼굴을 많이 찡그리고 다닌 것이 분명하단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쿵, 쿵, 쿵. 그것은 내 심장 소리였다. “사람들은 뭔가 낫게 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상대방이 그것을 필요로 하건 말건 간에 말해 줘야만 직성이 풀리나 보죠” 라고 나는 말했다. 너무나 어른이 하는 말 같아서 내가 한 말 같지가 않았다.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하도 겁이 나서 몸 안이 떨렸다.

엄마는 산 것을 모두 꺼내 식탁 위에 놓고 백키의 속옷과 양말에서 꼬리표를 떼어 내고 계셨다. “데이빗의 엄마를 1달러 가게에서 만났는데, 오늘 밤에 친척들이 집에 온다고 하더구나. 내일 친척들과 파커스버그에 가게

될 텐데 그 동안 데이빗이 우리집에 좀 와 있으면 안 되겠냐고 묻더구나.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단다.”

나는 “좋아요”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데이빗을 저 언덕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같이 무엇을 하며 지낼 것인가를 내내 생각하고 있다. 그래, 데이빗을 그 오래된 샬로 기숙사학교 쪽으로 데리고 가서, 그 강을 따라 걸어야 겠다.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한 마리의 개가 생기니까, 때때로 그 외의 다른 사람은 전혀 필요치 않다고 느끼게 된다는 점이다. 전에는 데이빗 하워드가 여기로 와서 같이 놀아주기를 바라며 유리창가에서 기다리곤 했었는데. 어느 누구도 개가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을 사랑해 주지는 못할 것이다. 여러분의 엄마만 빼고, 아마도.

그 날밤 엄마는 우리에게 저녁식사로 닭튀김을 만들어 주셨다. 아주 오랜만이였다. 나는 날개 한 쪽과 허벅지 부분을 작은 접시에 따로 놓고, 엄마한테는 나중에 먹을 것이라고 하면서 스퀴시 한 스푼을 끼얹었는데, 이렇게 해서 샬로가 먹으면 그의 속에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아무것이나 먹는다. 프랑크푸르트 소시지와 치즈 그리고 신 크림은 이제 다 먹어 버렸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식탁에 먹다 남은 음식이 있나 자세하게 살펴 보았고, 그리고 곧 나가서는 캔을 수집해 올 참이었다.

아빠는 저녁 식사 후 트럭을 손보고 계셨는데, 오일을 교체하는 중이셨으며, 백키와 테라 린은 풀밭에서 재주넘기를 하고 있었고, 엄마는 부엌을 청소하고 계셨다. 엄마가 등을 돌리시자 마자, 나는 그 접시에 있는 음식을 가지고 와서는 샬로를 보러 언덕위로 향했다.

샬로는, 일주일 내내 먹었던 신 크림과 프랑크푸르트 소시지를 섞은 것보다 닭튀김을 더 좋아하는 게 분명했다. 샬로는 스퀴시까지 먹고 나서는 내 손과 손가락에 있는 소금기까지 모조리 핥아먹어, 내가 닭튀김을 만졌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게 되었다.

그 날 아침에는 내가 샬로를 데리고 이미 온 사방을 돌아 다닌 터라, 다시 데리고 나가지 않는다 해도 샬로가 그렇게 아쉬워 할 것 같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는 다른 날처럼, 돌아다니면서 개똥을 모아 울타리 밖으로 던졌고 그리고는 풀밭에 등을 대고 누워 두 팔로 내 얼굴을 가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가장 즐겨하는 게임이었다. 샬로는 내 얼굴이 나오게 하기 위해 그의 코로 내 팔을 쭈셔대고, 꼬리는 시간 당 90마일 정도로 움직여 대면서 아주 안간힘을 쓴다. 그렇지만, 샬로는 보통 개들이 하듯이 코로

깡깡 우는 소리를 내지는 않는다. 우리가 저 멀리 목초지에 나가 바람을 가르면서 뛰어다닐 때에도, 그가 짓기 시작하려 할 때 내가 “쉬, 샤일로!” 라고 하면 그는 즉시 소리 내는 것을 멈췄다.

샤일로가 작은 소리라도 실컷 낼 수 있게 해주면 좋으련만. 동물을 계속 그렇게 조용히 하게 만드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은 나도 안다. 그러나, 그는 겁나서 조용히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조용히 하는 것이다. 그 정도는 나도 알 수 있었다.

잠시 후 나는 얼굴에서 두 팔을 떼고 그가 내 가슴 위에 두 발을 놓고 편히 쉴 수 있게 해 주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누워 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고, 그러자 그의 얼굴에는 아주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서쪽에서 불어 들어 온 미풍이 공기를 식히고 있었고 바로 그 순간 나는 누구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행복한 기분이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누군가가 “마티” 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위를 쳐다보았고, 거기에 엄마가 계셨다.



## 제 9 장

나는 꿈쩍도 할 수가 없었다. 하늘이 내 위에서 빙빙 돌고 나무 가지들도 제각각 움직였다. 엄마의 얼굴은 아래에서 올려다보니 한층 달라 보인다.

샤일로는, 물론, 꼬리를 흔들면서 바로 저편으로 갔지만, 난 온통 기운이 빠졌다.

“얼마 동안이나 여기 언덕에서 이 개를 데리고 있었니?” 엄마가 묻는다. 엄마 얼굴에는 웃음기라고는 아예 찾아볼 수도 없다.

나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으면서 침을 삼켰다. “일주일쯤 된 것 같아요.”

“저드의 개를 일주일 동안 여기 위에 데려다 놓고 있으면서도 넌 그 아저씨한테 그 개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했니?”

“나는 모른다고 하진 않았어요. 그는 내가 그 개를 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고 나는 우리 마당에서는 못 봤다고 했어요. 그것만큼은 정말 사실이에요.”

엄마는 소나무 쪽으로 돌아와 울타리를 잠그고 있는 끈을 풀고 안으로 들어오신다. 엄마는 연한 소나무 바늘잎을 피해 몸을 굽히셨고 샤일로는 앞밭로 엄마에게 뛰어 올라 엄마의 얼굴을 훑는다.

처음에 엄마가 샤일로의 흠뻑 젖은 혀를 멀리하며 몸을 뒤로 짓히는 모양만 보고는, 엄마가 샤일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엄마가 뭉툭하고 부드러운 손을 한 쪽 내밀어 샤일로를 쓰다듬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우리 사이에 이런 비밀이 있었던 것이구나.” 엄마는 결국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엄마가 “우리”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기분이 훨씬 나아졌다. 많이는 아니지만 얼마만큼은.

“엄마는 어떻게 오늘 밤 이 위로 나를 따라 오게 되었어요?” 나는 그 경위를 알고 싶었다.

엄마의 눈은 웃고 계셨지만, 입은 아직 꼭 닫힌 채라는 것을 이제 난 확실히 알 수 있었다. “글쎄, 전에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지만, 스쿼시가 결정적이었어.”

“스퀴시요?”

“마티, 난 이제까지 네가 스퀴시를 두 입 이상 먹는 것을 결코 본 적이 없는데, 나중에 먹기 위해 스퀴시 한 숟가락을 따로 두었을 때, 난 그걸 먹을 이는 네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단다. 그리고 또 넌 요사이 매일 밤 몰래 빠져나가곤 했잖니.” 엄마는 샬로를 쓰다듬는 것을 멈추고 내 쪽을 보시며 말하셨다. “나한테 미리 말해줬으면 좋았잖니?”

“엄마는 내게 샬로를 저드 아저씨에게 돌려 주라고 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이 개는 네 것이 아니잖아.”

“그래도 저드 아저씨 보다는 네 것에 가까워요.” 나는 열을 띠며 말했다. “그 아저씨는 단지 돈을 지불한 것뿐이에요. 샬로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나라고요.”

“그것만으로 샬로가 네 것이 되는 것은 아니야. 법적으로는 말이다.”

“글쎄요, 무슨 법이 주인이 자기 개를 학대하도록 그냥 놔 둔 단 말인가요?”

엄마는 그저 한 숨을 쉬며 샬로의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하셨다. 샬로는 바닥에 배를 대고 몸과 꼬리를 꿈틀거리면서 엄마에게 조금 더 다가가서는, 엄마의 허벅지에 코를 묻고, 꼬리를 세차게 흔들었다. 이윽고 엄마는 말씀하셨다. “아빠는 이 개에 대해 알지 못하시지?”

나는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리고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나서 엄마는 말씀하셨다. “엄마와 아빠가 결혼해서 14년 간 살면서 이제까지 아빠에게 비밀로 한 것은 전혀 없었단다.”

“아빠한테 말하지 않을 거지요?”

“마티, 그래도 엄마는 말을 해야만 한단다. 나중에 아빠가 이 개에 대한 일을 알게 되고, 엄마도 이 일을 알고 있었으면서 아빠한테 얘기 안 한 것을 알게 되면, 아빠가 어떻게 엄마를 신뢰할 수 있겠니? 그 때는 엄마가 아빠에게 이 일 하나만 비밀로 했었던 것이라 말해도, 아빠는 이런 비밀들이 더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실 거야.”

“아빠도 샬로를 저드 아저씨에게 돌려주도록 하실 거예요. 엄마.” 나는 내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빠가 그러실 거라는 걸 엄마도 잘 아시잖아요!”

“어쩔 도리가 없잖니?”

나는 내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이는 걸 느낄 수 있었고 눈물이 밖으로 흘러내리지 않게 하려 애썼다. 나는 눈물이 사라질 때까지 고개를 돌렸다. “저드 아저씨가 자기의 개를 가지러 이리로 오게 된다면, 이 개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나와 싸워야 할 거예요.”

“마티...”

“제발, 엄마, 딱 하룻밤만 아빠한테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동안 내가 뭔가 방법을 생각해 낼 수 있도록요.”

나는 엄마가 내가 한 이 말에 대해 생각해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너 이 개와 도망갈 궁리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 그렇지? 마티, 문제를 피해 도망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단다.”

엄마의 그 말에 나는 대답을 못했다. 왜냐하면 그 때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가 도망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없다면 나도 아빠에게 오늘 밤 말 안 하겠다고 약속할 수 없어.”

“도망가지 않을게요.” 나는 말했다.

“그렇담 나도 오늘 밤 아빠한테 말하지 않으나.”

“내일 아침까지도 안 돼요.” 나는 덧붙였다. “적어도 하루 정도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래봐도 뽀족한 수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 이미 지칠 대로 생각하고 또 생각해 본 일이었기 때문이다.

엄마는 양손을 내밀어 샤일로의 두 귀 뒤를 긁어 주었고 그는 엄마의 두 팔 위아래 모두를 혀로 핥았다.

“애 이름은 샤일로예요.” 나는 웃으며 엄마한테 말씀 드렸다.

잠시 후에 엄마는 일어나셨다. “너 지금 집으로 올 거지?”

“곧 갈게요.”

엄마가 떠나신 후에 내게 어떤 느낌이 밀려 들었는지 분명히 표현하기 어렵다. 그러나 마음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이 일을 알게 되어 오히려 기뻐했다. 이제 머리 속에 이 비밀 모두를 혼자서만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기쁘기보다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컸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루 동안에 생각해 내야하며, 지금까지처럼, 해결책에 보다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도 들지 않았다. 나는 그동안 캔 수집으로 번 돈을 샤일로를 먹이는데 썼다. 지금 내 것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라고는 길옆에서 발견한 동전 하나밖에 없다. 저드는 동전 한 닢에는 샤일로

의 침도 팔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처음에는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누구 거라는 말을 하지 않고 샤일로로 주고 엄마에게는 샤일로가 도망 가 버렸다고 말하려 했다. 그러나, 그래보야 그것은 이미 한 거짓말에 두 개를 더하는 것이 된다. 말은 이렇게든 저렇게든 나오게 되어있고, 데이빗 하워드나 마이크 웰스 둘 중 한 명이 내가 준 개를 데리고 다니는 것을 저드가 보게 된다면, 그 땐 정말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내가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은 다음날 샤일로로 프랜들리로 데리고 가서, “세계 최고의 개를 무료로 드립니다”와 같은 큰 표지판을 써서, 시스터빌로 가는 길에서 들고 있으면, 샤일로로 잘 돌봐줄 수 있을 만한 누군가가 나타나 그를 태우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 주길 바라는 것일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의 집이 어디인지도 묻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엄마가 그 개가 어디 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정직하게 모른다고 대답할 수 있으리라.

집에 돌아 왔을 때, 마침 아빠는 두 팔에 묻은 석유를 빼내기 위해 유지를 사용해서 펌프가에서 손을 씻고 계셨다. 아빠는, 나방이 안으로 들어가게 방충문을 활짝 열어 놓고 문간에서 놀고 있는 테라 린과 벅키에게 고함을 치고 계셨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고 엄마는 부엌에서 물기가 빠진 접시들을 들어 선반에 차곡차곡 쌓고 계셨다. 엄마는 라디오를 켜 놓고 컨츄리 음악에 맞춰 노래를 흥얼거리고 계셨다.

내가 집에 오고 싶어하는 것은 당신 때문  
내게 빵을 구워 주는 것도 당신  
나를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도 당신  
나와 같이 잠자리에 드는 것도 당신

엄마는 내가 냉장고 옆에 서서 엄마의 노래를 듣고 있는 것을 보시더니 얼굴을 약간 붉히셨다. 나는 그 날 밤 제대로 잠을 못 이룰 것이라는 것을 난 알고 있었다. TV를 응시하며 소파에 앉아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걸 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동안 엄마는 베키를 목욕시키고 계셨다. 나는 테라 린이 목욕탕에서 나오고 내가 목욕할 수 있는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날 나는 내가 비누칠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겠다. 발을 씻었는지

조차도 모르겠다. 나는 거실로 돌아갔고, 엄마는 소파에 내 잠자리를 만들어 주셨다. 집은 어두워지고, 문은 닫히고, 그리고 나서 바로 밤의 소리가 밖에서 들려 왔다.

내가 글자를 쓸 수 있을 만한 두꺼운 마분지 조각이 어딘가 밖에, 헛간 안에쯤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샬로를 프랜들리로 데리고 가는데도 또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내가 샬로의 목에다 줄을 매면, 그는 계속 아무렇지도 않게 따라 올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큰길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저드가 트럭을 타고 가다가 보게 되면 안 되니까. 내가 찾을 수 있는 뒷길을 최대한 이용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난 시스터빌로 가는 길에 자리를 잡고 그 표지판을 들고 있고 샬로는 내 옆에서 우리가 다음에 하게 될 일이 과연 무얼까 궁금해 하며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아무튼 정말 난 어떻게 해야 하나? 맨 처음 멈춘 차에 그를 줄까? 차를 몰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저드 보다 더 심하게 그를 대할지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샬로를 주게 될지도 모른다. 이제 샬로가 나를 신뢰하게 되었기에 지금 나는 그를 다시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내 가슴 속에 탱크 한 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거의 숨을 쉴 수도 없는 지경이었다. 샬로를 어떻게 할 지에 대해 결정할 날이 하루 밖에 없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뽀족한 수가 떠오르질 않았기 때문이다.

샬로가 멀리 언덕에 있는 그의 울타리 안에서 소란스런 소리를 내고 있는 게 들린다. 지금은 안 돼, 샬로! 나는 속삭였다. 그동안 내내 잘 해왔잖아. 이제 와서 그러면 안 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가 알고 있는 건가?

그러다가 나는 짚는 소리, 아주 크게 짚는 소리를 들었고, 그런 후에 그 르렁거리는 소리, 또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고, 갑자기 온 주변이 날카롭게 짚는 소리로 가득 하면서, 그 소란스러움이 최악의 지경까지 달하였다. 그것은 분명 개가 상처를 입어 내는 소리임이 틀림없었다.

나는 침대에서 튀어나와, 운동화를 급하게 쑤셔 신고, 신발 끈은 풀어진 채, 부엌을 지나 뒷문으로 달렸다. 전등불이 켜졌다. 나는 아빠의 음성을 들었다. “플래쉬를 가져가라.” 그렇지만, 나는 이미 뒷마당으로 빠져나간 후였고, 바로 언덕으로 뛰어 올라갔다.

내 뒤로 나를 따르는 발자국소리가 났다. 아빠가 나를 따라 오고 계셨다.

샤일로로는 마치 그의 몸이 두동강 나는 것처럼 울부짖고 있었고, 최대한 빨리 그곳에 가기 위해 나의 숨은 점점 더 가빠왔다.

내가 그 우리에 다다르자, 아빠는 나를 따라 잡고는 플래쉬를 그 요란한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 비추셨다. 전등 불빛은 그 소나무, 울타리 그리고 간이 지붕을 비추고.... 그리고 나서 아주 사납고 큰 독일산 세퍼드가 바닥에서 샤일로를 덮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세퍼드의 그의 입과 턱에 피가 보였고, 아빠가 한 발자국 앞으로 다가가기까, 그 개는 울타리를 넘어 들어왔던 길과 같은 길로 뛰어 숲을 지나 빠져나갔다.

나는 그 소나무 옆에 있는 줄을 풀었는데, 그 때 내 다리는 마치 고무와 같아서 몸을 거의 지탱하기가 힘들었다. 나는 샤일로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옆구리, 한 쪽 귀로 피가 났고, 한 쪽 다리에는 속이 보이는 깊이 베인 큰 상처가 났고, 움직이지도 못했다. 조금도.

나는 몸을 굽히고, 나의 이마를 그에게 대고, 내 손을 그의 머리에 대었다. 그는 죽은 것이다. 난 알고 있어! 나는 안에서 절규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서 나는 그의 몸이 약간 떨리고 입이 아주 약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마치 그는 혀를 내밀어 내 손을 핥으려고 애쓰는 것 같았다. 거기에서, 나는 몸을 앞으로 숙인 채 울부짖었다. 아빠의 플래쉬 불빛이 비추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 제 10 장

아빠는 내 옆에서, 샤일로의 눈을 향해 플래시를 비추었다. 샤일로는 아직 살아 있다.

“이게 저드의 개니?”

나는 몸을 일으켜 쭈그리고 앉은 자세를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팔로는 얼굴을 훑었다.

아빠는 주위를 둘러 보신다. “이 마대자루들을 저 아래로 가지고 가서 지프차의 뒷자리에 깔아라.”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한 손으로는 여전히 플래시를 든 채, 두 팔을 샤일로의 몸 아래로 밀어 넣고 들어 올리신다. 나는 샤일로그가 움찔 하면서 그의 아픈 다리를 뒤로 빼는 것을 보았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아빠는 어두워서 내가 그러는 것을 보지 못하셨다. 아빠는 아마도 내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내 코가 막혔 있었기 때문이다. “아빠, 제발 그 개를 저드 아저씨한테 다시 데려가지 마세요. 저드 아저씨는 샤일로를 한 번 쳐다보고는 썩 버릴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이 마대자루들을 차로 가져가라.” 아빠는 재차 말씀하셨고, 나는 아빠의 뒤를 따라 언덕을 내려갔다. 나는 숨을 내 쉬기 위해 입을 계속 벌린 상태로 소리도 내지 않고 울고 있었다. 꼭 샤일로그가 하는 것처럼 말이다. 엄마는 안에서 지켜보고 계시고, 그 앞에 있는 방충문은 불빛 주위에 모여 뽕뽕거리는 6월의 벌레들로 온통 뒤덮여 있다. 데라 린은 일어나서 잠옷차림으로 서서 지켜보고 있다.

“저게 뭐예요? 아빠가 들고 있는게 뭐예요? 데라 린은 엄마의 팔을 끌며 묻는다.

“개란다.” 엄마는 대답하신 후 큰 소리로 물어 보신다. “여보, 그 개 아직 살아 있어요?”

“아주 간신히.” 아빠가 말했다.

나는 차 안에 마대자루를 깔아 놓고 아빠는 조심스럽게 그 위에 샤일로를 내려 놓으셨다. 나는 아빠한테 묻지도 않고 샤일로 옆에 탔고, 아빠도 안 된다고는 하지 않으셨다. 아빠가 집에서 외출복 바지로 갈아입고 열쇠

를 갖고 나오신 다음, 우리는 출발했다. “미안하다, 샤일로.” 나는 몇 번이고 소곤거렸다. 그가 일어나려 하지 않도록 양손을 그의 몸에 대고 있었다. 귀의 찢긴 부분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다. “너무 미안하다. 하나님, 저를 도와 주세요. 저는 베이커씨네 개가 그 울타리를 뛰어 넘을 수 있을지 몰랐어요.”

우리가 저드의 집으로 가는 길로 올라가는 대신, 오솔길의 끝자락까지 갔을 때 아빠는 프랜들리로 향해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 첫 번째 커브 길을 반쯤 돌은 후, 머피 의사선생님의 집으로 가는 진입로에서 차를 세웠다. 아직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으나, 나는 이 나이 드신 의사 선생님이 이미 잠자리에 드신 후였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왜냐하면 파자마 차림으로 문으로 나오셨기 때문이다.

“레이 피터슨?” 아빠를 보시자 이렇게 물으셨다.

“정말 이런 늦은 시각에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만, 여기 아주 심하게 다친 개가 있어서, 이 개를 살릴 수 있나 좀 봐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례는 드리겠습니다...”

“나는 수의사는 아니요만.” 머피 의사선생님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이미 옆으로 비껴 서서 한 손으로 방충문을 열어 잡고 있어서 우리가 샤일로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 의사는 키가 작고 배가 나와, 다른 사람들에게 올바른 식습관에 대해 조언은 하면서도 자신은 그걸 못하는 것 같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였다. 그 의사는 식탁에 신문을 좀 깔았다.

나는 너무나 떨렸다. 한 손을 샤일로의 머리에 대고, 다른 손을 앞 발 한 쪽에 대고 있을 때 나는 내 손이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개는 정말 피를 심하게 흘리고 있군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그는 청진기를 대고 샤일로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나서 손전등을 들고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샤일로의 각각의 눈을 별려 안을 비춰 보았다. 마침내 그는 샤일로의 다친 다리에 난 뼈까지 드러나게 찢겨진 크고 흉측한 상처와 샤일로의 목 주위의 물린 자국들 그리고 찢겨진 귀를 살폈다. 나는 고개를 돌리고 더욱 훌쩍거렸다.

“최선을 다 해 보지요.” 의사선생님이 말했다. “지금 염려되는 것은 감염입니다. 그 다리의 상처는 이 삼십 바늘 정도 꿰매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나는 아빠가 나대신 대답하실 거라고 생각했으나, 그러지 않으셨다. 그저 나를 향해 몸을 돌리시더니, “마티?” 하고 부르셨다.

나는 침을 삼켰다. “커다랗고 나이 든 독일산 셰퍼드가 이 개를 물어뜯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싱크대로 가서 손을 씻었다. “베이커네 개라? 그 셰퍼드가 풀어놓아질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군.” 그는 탁자로 돌아와서 가방에서 큰 주사 바늘 한 개를 꺼내서 거기에 무언가로 가득 채웠다. 그것은 아마도 샤일로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 무엇일지도 모른다. “애야, 이견 네 개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고?” 그는 나를 보고, 그리고는 아빠를 보았다. 아빠는 아직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시면서, 내가 다 말을 하게 하셨다. 의사 선생님이 샤일로 위로 몸을 숙이고 천천히 그 주사바늘을 그의 옆구리에 찔러 넣는 동안, 나는 용기를 내었다.

“그 개는 저드 아저씨의 개예요.” 나는 대답했다. 이제 거짓말은 더 이상 해서 안 된다.

“저드의 개라고? 이 개가 그가 잃어버린 개란 말이나? 어떻게 네가 이 개를 데리고 오게 된 거지?”

“제가 애를 데리고 있었어요.” 나는 말했다.

의사 선생님은 숨을 들이마시고는, 한번에 조금씩 ‘허, 허, 허’ 하면서 내 쉬다가 가끔씩 ‘휴!’ 하시면서 계속 치료를 하셨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의사 선생님의 부엌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는 모르겠다. 아빠는 저편에서 팔짱 낀 채로 벽에 기대어 서 계셨고, 의사 선생님이 상처들을 물로 씻고 붕대를 대면서 피부를 원래대로 되도록 꿰매기 시작하는 동안 나는 두 손으로 샤일로의 머리를 살짝 가리고 있었다. 나는 한 두 번 정도 샤일로가 아픈 듯이 몸을 갑자기 비트는 것을 느꼈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은 채로 있으면, 그것이 마취 때문인지 죽어 가는 상태인지 알 수가 없었다.

“앞으로 24시간 안에 이 개가 살아 남을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걸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내일 밤 다시 검진을 해 봐야겠는데. 그때 가면, 뭔가 알 수 있을 거야. 내가 하루 아니면 이틀 정도 개를 여기 두도록 하게, 레이. 그런 뒤, 회복이 되면 집으로 데려갈 수 있을 거야.”

나는 다시 샤일로의 얼굴 가까이에 내 얼굴을 대고, 그의 귀 옆에다 대

고 속삭였다. “살아, 샤일로, 꼭 살아.”

내가 문으로 나가는 데까지 줄곧 시선을 놓지 않고, 내가 떠나는 것을 보며 일어나려 애쓰는 듯 근육의 움직임이 보이는 샤일로를 거기 두고 떠나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두 번째로 어려운 일이 이제 아빠와 차에 타는 일이다.

우리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 사이에는 한 마디의 말도 없었다. 아빠가 차의 시동을 끄시고, 내가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마티, 그 밖에 내가 모르는 일이 또 뭐 있니?” 라고 아빠가 물으셨다.

“네?” 나는 되물었다.

“넌 저드의 개를 우리 언덕 저 위에 데리고 있으면서, 있을 집도 지어주고, 그러면서도 아무 말도 않고 있었잖니. 또 내게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이 뭐난 말이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빠.”

“내가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니?”

“이건 정말 거짓말 하는게 아니니까요.”

“네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게 사실이 되는 것은 아니야.”

나는 그 때 엄마가 하였던 말쑤가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다. 그러나 아빠가 밝히고자 하는 데로 모든 것을 그렇게 흑백이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다. 그리고 때때로, 내가 화가 났을 때 아빠의 이런 태도는 내 머리 속을 아주 하얗게 만들어 버린다.

“만일 제가 그 개가 해매고 다니도록 놔두고 저드 아저씨가 그 개를 다시 찾아서 아주 심하게 때렸다면 아빠 마음이 더 편하셨겠어요? 나는 물었다. ”아빠가 제게 원하시는게 바로 그건가요?”

“나는 네가 옳은 일을 하길 바란다.”

“무엇이 옳은 건가요?”

내가 11살이 될 동안 처음으로, 나는 내가 아빠의 말문이 막히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빠가 대답하는데 이렇게 30...40초씩 걸리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아빠의 대답은 이러 했다.

“넌 법을 지켜야 해. 법으로는 돈주고 개를 산 사람이 그 개를 갖는 거야. 네가 그 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너는 그 법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해.”

그러나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아빠? 샤일로는 저드 아저씨가 그

의 개들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 조사를 받을 때쯤이면 이미 죽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빠의 목소리는 더욱 날카로워 졌다. “너는 저드가 이 동네에서 자기의 개에게 가혹하게 한 단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자기 개들을 굶기고 발길질하고 또는 더 심하게 대하는 사람이 그 사람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니? 마티. 눈을 뜨고 잘 봐라.“ 이제 아빠는 자리에서 반쯤 몸을 돌리고 등을 차 문에 기댄 채 나를 향하고 계셨다. “그동안 학교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너 여기저기 마당에 묶어져 있는 개들을 많이 봐 오지 않았니? 그 개가 행복한지 않은지, 갈비뼈가 양편에 헐처럼 튀어나와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도대체 몇 번이나 생각해 봤니? 갑자기 네 마음을 끄는 개를 만나고 나니, 너는 단번에 뭘 바꾸려 하잖아.”

나는 꿀꺽 침을 삼켰다. “모든 일에 계기가 있는 법이잖아요.” 나는 대답했다.

아빠는 한숨을 쉬셨다. “그 말은 맞다.” 아빠의 대답이었다.

나는 이미 도를 넘어선 말을 하고 있었다. 그 점은 나도 알고 있다. “만일 머피 선생님이 샤일로에 대해서 저드 아저씨에게 말하지 않으면, 우리가 샤일로를 다시 여기 데려와서 계속 키울 수 없을까요? 난 더 나은 우리를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울타리를 높게 해서 그 셰퍼드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아빠는 차 문을 여셨다. “안 된다.”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내리셨다.

나도 내렸다. “그렇다면, 샤일로그가 나아질 때까지만 요. 네? 아빠도 저드 아저씨가 제 구실을 잘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취급하는 줄 잘 아시잖아요. 그는 샤일로를 쏘 거예요, 아빠! 나는 머리에 총구멍이 하나 나있는 개를 저드 아저씨 집 근처에서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적어도 샤일로를 잘 데리고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치료비를 갚을 게요. 약속해요. 아빠는 앞으로 3년간 제가 캔 수집으로 모은 돈을 다 가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회가 나면 이 동네에서 신문 배달도 할게요. 정말이에요! 약속해요!”

아빠는 나를 자세히 살피셨다. “넌 샤일로그가 나올 때까지 여기에 데리고 있을 수 있어. 그게 다야. 그리고 우리는 그를 다시 저드에게 데려다 주어야 한다.” 그리고 아빠는 집으로 들어가셨다.

내 심장은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쿵 쿵 쿵 쿵. 그러나 나는 아직도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 샤일로는 아직 살아있고, 나는 아직 포기할 수 없다.



## 제 11 장

내가 그 낱밤 소파에 다시 누운 후에야 내가 그동안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 모두 깨달았다. 그 하나가 엄마와 아빠에 대해서 한 것. 엄마는 아직 깨어계셨다. 나는 아빠가 복도로 지나가실 때 침대방에 불이 켜진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아빠 엄마의 목소리를 들었다. 말하는 소리가 다 들린 것은 아니었지만 웬만큼은 다 들렸다.

“여보, 내가 말했죠, 나도 그 개에 대해서 방금 알게 됐다고.”

“나한테는 계속 숨겼군. 당신과 마티 모두.”

“...내일 까지만. 그 때는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매일...저드의 집으로 우편을 배달할 때...내게 그 개 얘기를 내게 하던 데. 그것도 때면. 땅에 있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다니...”

나는 두 팔을 들어 내 귀를 막은 채로 있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잘못 되어가고 있어서, 도대체 제대로 되어 가고 있는 것이 있거나 한지 생각하기조차 힘들었다. 머피 의사선생님은 내가 지금 저드의 개를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아빠는 엄마에게 화를 내시고, 우리는 샤일로가 살아날 수 있을지조차도 내일이 되어봐야 알 수 있는 상태다. 그 중 가장 안 좋은 일은 내가 샤일로를 다치지 않게 하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지만, 그 독일산 셰퍼드가 샤일로에게 한 짓은 저드가 총으로 쏘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샤일로에게 가했을 어떤 심한 행동보다도 더 가혹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것이다. 그 때 다시 눈물이 다시 나오자, 나는 더 이상 참으려고도 애써 막으려고도 하지도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빠가 일하시러 나가신 후 까지도 계속해서 자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내가 깰 때 벅키는 내가 누워 있는 소파 옆에 서서 꿀이 발린 토스트 한 조각을 먹고 있었는데, 내 얼굴에 벅키가 숨결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데라 린은 이미 벅키에게 개에 대해 얘기를 한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은 데라가 즉시 내게 이렇게 물어 보았기 때문이다. “어디에 있는 거야, 그 멍멍이?”

나는 일어나 앉아 벅키에게 그 개가 머피 의사선생님의 집에 있고 우리는 오늘 오후에 그 개가 괜찮은지 알 수 있을 거라고 말해 주었다. 그리고 나서 나는 엄마가 계신 부엌 안을 보았다. 엄마의 입가의 표정이 굳어 있

어 심기가 좋지 않으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엄마 앞에서 행동을 조심조심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엄마는 이미 아빠와 안 좋은 상태가 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밖으로 나가서, 벌레 먹은 복숭아 몇 개를 집어 등받이가 없는 의자에 앉아 벌레 먹은 부분을 입으로 물어서 뱉어낸 다음 그걸 먹었다.

테라 린이 나와서 내 옆에 앉았다. 오늘 테라 린은 친절 그 자체였다.

“저드 아저씨는 자기 개를 돌보지 않았어, 오빠. 그 개가 여기 오는 것이 이상할 것도 없지.” 테라는 이치에 맞는 말을 하려고 애쓰면서 말했다. 테라 린은 아빠와 엄마 사이의 말을 엿들은 것부터 엄마가 말해준 것까지 모든 일을 잘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복숭아 한 입을 더 깨물었다.

“그건 오빠가 그 개를 훔친 것과는 분명히 달라.” 테라 린은 말했다. “그 개가 자기 스스로 이곳으로 찾아 온 거야.”

“그냥 잠자코 있어, 테라 린.” 나는 말했다. 나는 이런 말조차 하고 싶지 않았다. 나는 아무와도 말을 하고 싶지 않았고, 그게 전부 였다.

“글쎄, 오빠가 내게 그 일을 말했어도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을 텐데.”

“고맙구나.”



“엄마는 그 개가 나아지면 저드 아저씨에게 그 개를 돌려 줘야 한대.”

나는 일어나서 샐러드가 피습을 당했던 그 바닥을 청소하기 위해 언덕으로 갔다. 그 세퍼드가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게 그 울타리의 꼭대기 위에 어떤 줄을 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알아보기도 할겸.

“그 개 이름이 뭐야, 오빠?” 테라 린이 나의 뒤를 쫓아오며 물었다.

“샐러로,” 라고 말해 주었다.

언덕을 반쯤 올랐을 때 차가 한 대 오는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다보았다. 그것은 하워드 아줌마의 차였고 데이빗이 그 안에 타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데이빗은 차에서 뛰어 나왔는데, 차가 아직도 약간 움직이고 있었는데도 그렇게 뛰어내린 것이었다. 그리고는 내 쪽을 향해 뛰어 왔다.

“나 오늘 여기서 지내게 됐어!” 데이빗은 자기가 가져온 연을 흔들면서 소리쳤다. “우리 식구들과 손님들은 파커스버그로 갈 거야. 나는 거기 가기 싫거든.”

나는 엄마와 하워드 아줌마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곳을 건네다 보았는

데, 엄마가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 것이 보였다. 나는 때때로 높은 데에 있는 우리 집에서 외롭다고 느꼈는데, 오늘은 웬지 그런 외로움이 그리웠다. 나는 데라 린, 백키, 아빠 그리고 엄마에게조차도 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우리에게 전화가 있다면, 나는 의사선생님께 매시간 전화를 걸었을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샤일로에 대해 알아보려면 아빠가 일을 마치고 집으로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나 혼자 내려가서, 환자를 봐야 하는 의사 선생님을 성가시게 할 순 없었다.

“넌 뭘 하고 싶니?” 나는 억지로 활기차게 말하려고 애쓰며 데이빗에게 물었다. 데이빗이 나보다 키가 더 크고 몸무게도 더 나가고 벌써 고등학생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그와 나는 같은 학년이다.

“저편 너네 방목지에서 이 연을 한 번 날려 보자.” 그는 말했다.

나는 데이빗을 샤일로의 우리로부터 떨어진 멀리 돌아가는 길로 안내했는데, 그는 연을 푸는 중이라 그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했다. 연은 비단인가 뭐가 하는 것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그의 친척 중 한 명이 가져다 준 것이다. 우리는 방목지에서 연을 날리며 서 있었고 나는 미풍에 맴도는 파랑, 노랑, 녹색으로 된 연꼬리를 바라다보았다. 그러면서 나는 샤일로의 꼬리에 대해, 그 흔드는 모양에 대해서 생각했다. 한 마리의 개를 마음에 품고 있으면, 그 개가 온통 내 마음을 다 차지하는 것 같다. 무슨 일을 하든 그 개가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나중에 우리가 그 연을 내리자, 데이빗은 마못 한 마리를 보았고 그것을 쫓아갔다. 그 마못은 이 길 저 길로 왔다갔다해서 데이빗은 흥분하여 소리를 질러댔다.

“나는 너의 연을 내려서 집으로 가지고 갈게, 데이빗.” 나는 그가 샤일로의 우리에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소리쳤다.

그는 계속 뛰어다니며 소리를 질러댔다.

“난 소다 크래커 한 줌 가져올게. 피넛 버터 샌드위치 좀 만들래? 나는 데이빗을 따라 오게 하려고 크게 소리치며 말했다.

그리고 그 때 그의 외치는 소리가 멎었다. “야!” 그는 말했다.

나는 그가 그 우리를 발견한 것을 알았고, 그리로 걸어갔다.

“이게 뭐지?” 데이빗은 물었다. 그는 땅에 있는 피를 보았다. “야!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거지?”

나는 그리로 가서 그의 팔을 획 잡아당겨 앉혔다. 그는 눈이 휘둥그래지

며 나를 쳐다봤다.

“너 내 말 잘 들어 봐, 데이빗 하워드.” 나는 말했다. 내가 “데이빗 하워드”라고 말할 때는,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제까지 그런 일은 두 번 있었다. 한번은 내가 학교에서 엄마를 위해서 만든 종이 화분 위에 그가 앉아 버렸을 때였고 또 한번은 화장실에서 내가 바지를 내린 채로 있는 것을 그가 봤을 때였다. 그 일은 정말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그러나 오늘 나는 화가 난 것이 아니고 심각한 것이다. “끔찍하고 참혹한 어떤 일이 그 안에서 일어났었어, 데이빗. 그리고 네가 이 일을 너희 엄마나 아빠도 포함해서 누구한테든 말한다면, 예수님이 너를 장님으로 만드실 지도 몰라.”

그것은 내 또래의 아이들이 감당할 수 없는 종류의 말이었지만, 나는 프레스톤 할머니로부터 그 말을 직접 들었다. 엄마는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누구의 눈도 멀게 만드시지는 않는다고 말했지만, 프레스톤 할머니는 항상 이 말을 경고용으로 사용하셨고, 일요일 아침저녁으로 모두 교회예배에 다니시는 분이셨다.

데이빗의 눈은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았다.

“튀라고?” 그는 다시 물었다.

“너 저드 트라버스 아니?”

“그가 살해됐니?”

“아니야. 그렇지만 너는 그가 자기 개에게 얼마나 고약하게 구는지 아니?”

“그가 저기 안에 있는 자기 개들 중 한 마리를 죽였니?”

“아니. 내가 말해줄게, 데이빗. 너 그가 어떻게 해서 개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지 아니?”

“그런 일이 있었니?”

“글쎄, 그 개가 제 스스로 여기까지 올라와서 내가 그 개를 여기 있게 했어. 나는 그 개에게 우리를 만들어 주고 그가 여기 있는 걸 비밀로 하고 이름도 샤일로라고 지어 줬어.”

데이빗은 나를 빤히 보다가 그 우리 안에 있는 피를 보고 다시 나를 쳐다봤다.

“지난 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베이커씨의 독일산 셰퍼드가 이 울타리

를 넘어 그에게 큰 상처를 입혔어. 우리는 샤일로를 머피 의사선생님께 데리고 갔고, 저드 아저씨는 이 일을 몰라.”

데이빗은 입을 딱 벌린채로 서 있었다. “와우!” 그는 이렇게 말하더니 다시 한번 그런 소리를 냈다.

나는 데이빗에게 샤일로그가 얼마나 많이 다쳤으며 그의 상태가 어떤지 알기 위해서는 오늘밤까지 기다려 봐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었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우리 안으로 같이 들어갔고, 데이빗은 바닥의 피를 깨끗이 닦아내는 것을 도와주었다. 우리는 피로 얼룩진 풀을 다 뽑아내어 울타리 너머 수풀 속으로 던졌다.

데이빗이 도와주니까 일이 좀 수월해 졌다. 데이빗이 이 일을 알게 된 것까지도 도움이 되었다. 나 혼자만 있었다면, 샤일로그가 그 셰퍼드로부터 달아날 수 있었다라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거란 생각만 내내 되풀이하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데이빗을 보면서 우리는 평생의 친구가 될거라고 생각했다. 나는, 내가 저드의 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제 정확히 일곱명이고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이 새나가는 것은 이제 단지 시간 문제였다. 백키가 그럴지도 모른다. 아마도 백키는 길에서 만나는 첫 번째 사람에게 이 일을 재잘거릴 것이다. 어린아이가 비밀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얼마 안 되서 말하게 되는 것을 본 적이 있지 않는가. 비밀에 관한 한 어린아이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것이다. 어린 아이에게 비밀이란 것은 지키기엔 너무 엄청난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3시 30분에, 아빠가 집에 돌아오시기 전에, 머피 의사선생님의 차가 길을 올라오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는데, 차 뒷좌석에는 샤일로그가 있었다. 나는 데이빗과 떡갈나무 옆에 서서, 번갈아 가며 자루 그네를 타는 중이었는데, 그 때 그 차의 뒷좌석에서 샤일로그가 머리를 위로 내밀고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3초만에 그 차로 달려갔다.

“샤일로!”

여지껏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기쁜 외침이 나온 적은 없었다.

우리 모두는 그 차 주위로 몰려들었다. 엄마와 데라 린 그리고 백키와 데이빗 하워드 그리고 우리 모두는 “샤일로, 여기다, 여기!” 라고 말하면서 손을 내밀었고, 샤일로그는 눈에 보이는 모든 손을 핥으려 하였다.

“이 놈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회복됐어.” 의사는 운전대에서 불룩 나온 큰배를 빼고 일어서면서 말했다. “그래서 내가 여기로 이 개

를 직접 데려다 줘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리고는, 엄마에게 “오늘 환자들이 병원에서 왔다 갔다 할 텐데, 이 개를 그 사람들에게 보여줘도 되는지 잘 모르겠더군요” 라고 말했다.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제가 이 개의 치료비를 낼게요, 의사선생님.” 나는 그에게 말했다. “아빠에게 청구서를 보내시면 아빠가 지불을 하겠지만, 그래도 제가 그걸 아빠에게 갚을 거예요.”

“글쎄다, 얘야, 개가 너의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한다니 너는 참 마음이 넓구나.” 의사선생님이 말했다.

“이제 개는 다 나온 거예요?”

“아니. 완전히 나으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해. 상처가 회복하려면 2주는 걸릴 것이고, 예전처럼 절룩거리지 않고 걸을 수 있을 거라는 약속은 할 수 없을 것 같구나. 그렇지만 상처는 잘 꿰맸고 항생제도 충분히 주었다. 며칠동안 안정하게 하고 그 다리에 손을 대지 않는다면, 애는 잘 이겨내서 좋아질 거야.”

조금 전에 엄마가 내게 화가 나신 것이었다면, 지금은 풀리신 것 같다. 샤일로가 엄마의 양쪽 팔을 핏고, 엄마가 가까이 몸을 굽힐 때마다 엄마 얼굴을 재빨리 핏는 것에도 화내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백키는 샤일로가 핏을 수 있게 한 손을 내밀고 있었고, 샤일로가 손을 핏으면, 백키는 소리를 뿜 지르면서 손을 뺐다. 그러는 동안 샤일로의 꼬리는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집에 돌아온 것을 환영하는 파티 같았다. 엄마는 창고에서 마분지 박스를 가져오게 하였고 우리는 그 바닥에 오래된 베개를 놓은 다음 깨끗한 이불로 덮었고, 머피 의사선생님은 그 안에 샤일로를 눕혔다.

샤일로는 자기가 아주 온전하게 걸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하다. 왜냐하면 샤일로는 일어서려다 바로 다시 주저앉고는 다시 자기 다리를 핏기 때문이다.

나는 샤일로를 돌아와서 기뻐고, 그가 다시 나아질 것이며,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맡을 수 있게 되어 기뻐다. 그러나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가 행복해 하는 걸 느끼면 느낄수록, 점점 더 그를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 제 12 장

샤일로를 비밀로 하려고 그동안 그렇게 애를 썼었는데, 막상 그 날밤 샤일로를 우리집에 데리고 있게 되니 묘한 기분이 들었다. 엄마가 샤일로를 대하는 태도도 신기했다. 엄마는 가스레인지 옆에 있는 상자로 된 샤일로의 집을 지나칠 때마다 아래로 몸을 굽히고 그를 꼭 쓰다듬어 주시고는 측은해서 안타까워하는 낮은 소리를 내셨는데, 그것은 데라 린이나 백키 또는 내가 아프게 되었을 때 그러시는 것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아빠는 별 말이 없으셨다. 아빠는 집에 돌아오셔서 샤일로가 있는 것을 보고는 한 쪽으로 떨어져 서서 의사선생님이 샤일로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듣고 계셨는데, 그것은 샤일로가 활을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가지 않으시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저녁식사가 끝나고 이를 닦으러 목욕탕으로 갔을 때 나는 열려진 문을 통해 엿보았는데, 아빠는 샤일로의 상자 옆에서 굽어보시며 샤일로가 아빠의 접시를 깨끗하게 활아 먹도록 놔 두셨다. 아빠는 거기에 일 이분 정도 웅크리고 앉아 계시면서, 샤일로의 등을 아래로 그리고 다시 위로 굽어 주셨다.

내가 지금 상상하는 것은 샤일로가 나아지게 될 때쯤 되면, 모든 사람들이 샤일로를 무척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모두가 샤일로를 가게 놔 둘 수 없게 될 거라는 것이다. 아빠까지도. 내가 바라는 것은 아빠가 저드를 만나러 가서, 샤일로를 얻기 위해 값을 제시하고는 샤일로가 우리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실현되기 어려운 것은 우리에게는 그 만큼의 돈이 없기 때문이다.

내가 중학교를 마칠 때가 돼서야 거의 의사선생님께 지불할 수 있을 정도의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저드로부터 샤일로를 사려면, 그것도 저드가 팔 마음이 있어야 되겠지만, 나는 고등학교 내내 알루미늄캔을 수집해야 할 것이다. 캔 수집으로는 그리 많은 돈을 벌 수는 없다. 나는 돈을 더 벌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지만, 금요일 오후에 신문을 배달하는 것 외에 별 다른 것은 떠오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일은 이미 누군가가 맡고 있었다.

지금 상황은 마치 샤일로가 거기 있어도, 없는 것과 같다. 앞으로 며칠

동안은, 모든 사람이 틈만 나면 그를 쓰다듬어 줄 것이다. 백키는 자기 토스트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부스러기들을 샤일로에게 먹였고 샤일로는 백키의 손에 입을 대서 그 조각들을 후룩후룩 먹는 것을 느낄 때마다 백키는 소리를 질러댔다.

엄마는 단지에 콩을 담고 계셨고, 샤일로는 상자 안에 있는 개가 아닌, 요람에 있는 아기인 것처럼 샤일로에게 나지막히 자장가를 불러 주셨다. 데라 린은 오래된 머리숱을 가지고 한도 없이 빗질을 해 주고 있었다. 아빠까지도 저녁에 샤일로 몸에 달라 붙은 진드기를 모조리 빼내셨다. 테레핀유를 약간 묻혀서 진드기의 뒤쪽 끝에 대고 문지르면 진드기는 금세 샤일로의 피부에서 떨어져 나온다.

샤일로는 마치 여기 없는 것처럼 만드는 것은 나와 데라 린 그리고 백키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에 대한 말을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엄마와 아빠는 한번도 그의 이름을 소리내어 부르는 일이 없으셨는데 그것은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것도 아닌 개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으로 여기시는 것 같았다. 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그가 그 날 빗속에서 홀연히 나타난 것처럼 조용히 사라질 지도 모를 일인 것처럼.

내 짐작으로는,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 매일 조금씩 샤일로는 힘을 되찾고 있었다. 의사선생님이 그를 여기로 데려온 지 이틀 후에, 샤일로는 일어나서 안 좋은 한 쪽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다닐 수 있었다. 엄마는 그의 상자 옆에 그가 배설을 할 수 있게 종이를 두셨으나 그는 거기에 일을 보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 며칠 간은 내가 그를 두 팔로 들어서 마당으로 데리고 가서 일을 보게 하고 다시 안으로 들여왔다. 그러나 지금은 혼자서 뒷편의 방충문을 밀어서 열고 마당으로 내려가서는 다시 들어오는데 한 쪽 발로 방충문을 툭툭 치면 우리가 문을 열어 주는 것이다. 언젠가는 누군가가 그를 발견하고야 말 것이다. 백키도 언젠가는 말을 읊기고야 말 것이다. 데이빗 하워드도, 그의 엄마가 그를 데리러 오면, 금세 입을 열어 샤일로는에 대한 무슨 말을 할 것이다.

“샤일로는가 누구야?” 라고 그의 엄마는 물을 것이고, 그제야 데이빗은 실수로 말해버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다.

“늑은 떠돌이 고양이예요.” 라고 데이빗이 말한다면, 나는 데이빗이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게 되는 것이다. 내가 아무 때고 같이 놀 수 있는 이 곳에 샤일로를 데리고 있게 되어 전보나 나빠진 점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캔

을 수집하러 밖에 나갈 때 그를 집에 남겨 놓고 나가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진보다도 더 돈을 벌어야 했고, 그래서 매일 매일, 샐리로가 긴 낮잠을 잘 때면, 나는 바지의 주머니 한 쪽에 플라스틱 쓰레기 봉투를 밖으로 매단 채 밖으로 나간다.

하루는 내내 걸어서 프랜들리로 가서, 그 지역의 신문이 도착하는 식료품가게에 들어가 신문배달원으로 내 이름을 넣어 줄 수 없겠느냐고 물어보았다. 윌리스 아저씨는 내 이름을 넣어서 주겠지만, 이미 내 앞에 여섯 명이 더 있으며 그 중 한 명은 차를 가진 어른이라고 하셨다. 그런데 내가 그런 사람과 어떻게 상대가 되겠느냐는 말씀이었다.

나는 그 가게의 뒤편에 사람들이 공지사항을 올리는 게시판을 자세히 살폈다. 한 쪽 발로 섰다가 다시 다른 발로 바꿔 서서 그 놈의 게시판을 다 읽었다. 마치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팔려고 하거나 일자리를 구하는 것 같았지만, 무엇을 사려는 사람은 없었다. 단지 두 개의 자리만 나와 있었는데, 하나는 판매직 사원을 구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어떤 여성이 자기 집에 칠을 해 줄 사람을 찾는 것이었다.

윌리스 아저씨는 내가 그 칠판을 보는 것을 보고 내 쪽으로 오시더니 자기 집을 칠할 사람을 구하는 광고문을 내렸다.

“이 일은 이미 누가 맡았어.” 라고 말씀하셨다.

그 날 밤, 우리가 저녁을 먹는 동안, 샐리로는 식탁 주위를 다니면서, 모든 사람의 무릎으로 그의 코를 밀어 넣으면서, 슬피하는 기색이 역력했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뭔가 먹을 것을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다. 엄마와 아빠가 기를 쓰고 웃음을 참느라 애쓰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엄마는 식탁에서 우리가 샐리로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나는 아빠가 저드에게 그의 개가 여기 있다고 말했는지 묻고 싶어 죽을 지경이었다. 아빠는 그런 말을 일체 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나도 묻지 않았다. 아마 나는 알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서, 엄마가 우리가 우유와 같이 먹을 뜨거운 과일 파이를 접시에 내놓으시는 바로 그 때, 나는 내 안의 뼈가 마치 고드름같이 느껴지도록 하게 하는 소리가 밖에서 나는 것을 들었다.

샐리로도 역시 그 소리를 들었고, 나는 즉시 올 것이 왔다는 것을 알았는데, 왜냐하면 샐리로는 그의 다리 사이로 꼬리를 붙이고, 바닥으로 낮게 그의 배를 대고 그의 상자도 도로 기어 들어갔기 때문이다.

엄마와 아빠는 샤일로로 보았다. 그리고 서로 쳐다보셨다. 그리고 나서 밖에서 팡 하는 트럭문 소리가 났고, 발자국 소리가 땅에서 그리고 현관에서 들려왔고, 뒷문을 푹푹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모두가 먹는 걸 멈추었는데, 마치 우리가 의자에서 모두 일어죽은 것 같았다.

아빠는 일어나서 현관 불을 키셨고, 거기에는 저드 트라버스, 그가 있었는데, 그 어느 때 보다도 더 야비하고 고약해 보였다. 그는 들어가도 되냐고 묻지도 않고, 그냥 그 방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다.

“레이 프레스톤,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이 내 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아빠는 심각해 보였다. 아빠는 고개를 끄덕이고 불 옆의 상자를 가리켰다. “바로 저기지, 저드. 하지만, 개는 다쳤고, 자네를 위해 우리가 그 개를 보살펴주고 있는 중이네.”

저드는 샤일로를, 그리고는 아빠를 노려보았다. “글쎄, 내 기가 막혀서.” 그는 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내 개가 없어진 것을 알고서도, 그 개를 들여다 놓고는, 내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 그런 예의도 없는 사람이 있단 말이요?”

“자네에게 말하려고 했었네.” 아빠는 말했다. 그리고는 아빠는 저드를 똑바로 보셨다. “그렇지만, 자기 개가 다쳤다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지 않은가. 그리고 우리는 이 개가 회복할 것이라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싶었네.” 그리고 나서 아빠는 나를 향하셨다. “마티, 저드 아저씨에게 그의 개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 말해 드릴래?”

아빠는 내가 그러길 원치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셨다. 아빠는 내가 저드와 대면하느니 차라리 악어들로 가득 찬 강을 헤엄치기를 바란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말해야 할 몫이지 아빠가 해야 할 말이 아니었고 아빠는 항상 우리가 한 일은 우리가 감당하게 하셨다.

“아저씨의 개가 여기에 두 번 왔었는데 그건 아저씨가 개에게 심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내 목소리는 아빠의 근처에도 못 가게 힘이 없었다. 좀 떨리는 목소리였다. 나는 목을 튼 다음 계속 했다. “그래서 이 개가 두 번째 왔을 때, 나는 숲에 아빠가 모르게 우리를 지어주었는데, 그만 베이커씨의 독일산 셰퍼트가 들어와서 샤일로와 싸웠어요.”

“누구와 싸웠다고?”

“이 비글, 샤일로와요. 내는 이 개를 샤일로라고 불러 왔어요. 그리고 샤일로는 심하게 상처를 입었어요. 그 울타리를 더 높게 만들지 못한 것은 제 잘못이에요. 우리는 이 개를 머피 의사선생님께 데리고 갔고 의사선생님이 그를 치료해 주셨어요.”

저드 트라버스는 우리 같은 사람은 이제까지 결코 본 적이 없다는 듯 아직도 방 주위를 노려보고 있었다. 마침내 그의 이빨 사이로 숨을 내쉬고는 천천히 그의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난 머피 의사로부터 이 모든 내용을 알게 되었단 말이지?”

나는 그 의사선생님이 그에게 가서 말했을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누군가가 어느 날 그 의사에게 갔는데 그의 뒷마당에 비글 한 마리가 누워 있는 것을 봤지. 그 생각에 그 개가 내 개일지도 모르겠다고 하더군. 그래서 난 오늘 저녁 의사한테 찾아갔었고 의사가 그 개를 데려온 것은 너라고 말해 주더군.”

저드는 부엌을 가로질러 걸어가는데 발로 쿵쿵 할 때마다 샤일로는 그 상자 안에서 점점 움츠러들어, 그러다가 스스로를 사라지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의 몸 전체는 떨고 있었다. 나는 엄마도 그것을 보셨다는 것을 눈치챘는데, 엄마는 한동안 그를 지켜보시다가 재빨리 얼굴을 돌리셨기 때문이다.

저드는 샤일로를 내려다 보았다. 붕대가 감겨진 곳과 께맨 상처로 인해 털을 민 부위 그리고 그의 귀에 찢긴 상처. “네가 내 개한테 한 짓을 좀 봐라.”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성이 나서 나에게 소리 쳤다.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도 할 말이 없었다.

트라버스는 상자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는 한 손을 내밀었고 샤일로는 그가 때리려고 하는 것처럼 그를 멀리했다. 이런 모습이 그가 개를 심하게 다루기 때문이 아니라면, 대체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는가.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내 개들을 결코 못살게 굴지 않아. 내가 이 개를 살 때도, 이 놈은 부끄럼을 타었지. 그게 다야. 내가 네게 말한대로 네가 애를 도로 데려다 주었다면,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야.” 난 두 눈을 감았다.

내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저드는 그의 손을 샤일로의 머리에 올려놓고 있었는데, 일종의 쓰다듬어 주고 있는 것이었는데, 서툴러서 그가 평소에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것이 금방 표시가 났다. 샤일로가 저드 아저씨

의 집에 가기 전에는 학대당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어떻게 그런 것을 입증할 수 있을까?

“마티가 당신 개를 울타리를 두른 곳에 데리고 있는 것은 잘못된 거네, 저드.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것에 대해서 말했고, 샤일로를 치료하기 위해 머피 의사에게 돈을 지불할 사람은 바로 마티라네. 개가 회복되자마자 우리가 당신의 집으로 이 개를 데려다 주겠네. 이 개에게 보살핌이 필요 할 때까지 우리가 데리고 있으면 어떻겠나?” 아빠가 물어 보셨다.

저드는 다시 일어서서 나를 보았다. 나는 같이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서 엄마는 더 이상 이것을 두고 볼 수가 없으셨다.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드, 마티는 이 개에 무척 애착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당신이 이 개에 대해 얼마를 원하는지 알고 싶군요. 아마도 우리에게 있는 돈을 다 끌어모으면 이 개를 살 수 있을지도 모르죠.”

저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는 듯 엄마를 쳐다봤다. 마치 우리 모두가 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다는 듯이.

“그 개는 팔려고 내놓은 개가 아니에요.” 그는 말했다. 난 사냥개 한 마리를 사기 위해 상당한 돈을 지불했고, 애는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개 중에서 최고였죠. 네가 이 개가 나아질 때까지 데리고 먹여주는 것은 좋아. 이 개가 만신창이가 되게 한 것은 너 때문이니까. 그리고 돈도 네가 내고. 그렇지만 일요일까지는 이 개를 데려다 주었으면 한다.“

방충문이 다시 탁 하고 닫혔고, 트럭의 시동이 걸리고 그는 가버렸다.

## 제 13 장

나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 내가 시도하려 했던 모든 것을 난 이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또 뒤집어서 생각해 보았다. 아빠와 내가 차를 타고 미들멜본의 카운티 법정으로 가서 자기 개에게 심하게 구는 사람을 신고하면, 거기 사람들이 저드가 다시 그의 개를 갖지 못하게 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 보았다. 아빠는 아마도 그 곳이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인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그건 좋은데, 저드가 한 일을 과연 내가 어떻게 증명해 보일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내게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다.

난 그 점에 대해 계속 생각해 보았다. 한 남자가 자기 개를 발길질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조사하러 멜본에서 여기까지 조사관을 보내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 준다면, 저드가 조사관에게 그가 정말 자기 개들을 발로 찼다고 순순히 말할까? 그 조사관이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해 보기 위해 한 주 동안 저드의 집 근처 숲에 숨어 있을 것인가?

아빠 말에 따르면, 우리 고장에는 아동들이 발길질을 당했다는 신고를 조사할 예산도 거의 없으니 개들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고 한다. 내가 동물 보호 단체 사람들에게 저드의 집 근처에서 머리에 총 구멍이 난 개 한 마리를 발견했다고 말한다 하더라도 저드가 그 개를 죽인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진 못한다.

나는 이 일에 대해 좀 더 얘기하러 밖에서 통나무를 찍어 가르고 계신 아빠에게 갔고, 아빠는 나를 보고 그냥 이렇게 말씀하셨다. “얘야, 힘들지. 나도 알아. 그렇지만 때때로 사람들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 들여야 한단다. 그건 저드의 개이고 그걸 피할 순 없어.”

엄마는 내 기분이 나아지게 하기 위해 애를 쓰셨다. 엄마는 적어도 내가 한 마리 개의 삶에 그가 전에는 전혀 가져보지 못한 기쁨과 따스함을 가져다 주었고, 샤일로로는 결코 나를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말마저도 내 마음을 더욱 괴롭게 만들 뿐이었다. 나는 그가 나를 잊었으면 한다. 샤일로그가 우리가 그를 저드의 집으로 차로 데려다 주는 길에 나를 어떻게 바라 볼 것인가를 줄곧 생각하면, 내 눈은 다시 눈물로 가득

찬다. 백키, 백키도 역시 내내 울고 있다. 데러 린도 마찬가지다. 이제 한 가지 좋은 점은 온 가족이 샤일로를 사랑하며 그에 대해서 이제 크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는 것이다. 3일 후 우리는 그를 포기해야만 한다.

나는 금요일에, 데이빗 하워드와 얘기하러 프랜들리로 걸어 내려갔다. 데이빗도 나만큼 기분이 울적해 했다. 내가 샤일로에 대해 말을 끝마치기도 전에 벌써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했다. 데이빗 하워드는 나보다 30 파운드가 더 나가고 몸집도 더 크지만, 그는 아직도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는다.

“내내 생각해 봤어, 데이빗,” 하고 나는 말했다. “오하이오주에 너 친척이 있다고 했지, 그렇지?”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분들 중 누구 샤일로를 맡아 줄 사람이 없을까? 네가 그 친척들에게 전화해서 그 분들이 차를 몰고 내일 이리로 와서 샤일로를 데리고 가고, 그리고는 저드에게 우리가 샤일로를 하루 풀어 줬더니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그러나 데이빗은 벌써 그의 머리를 설레설레 젖고 있었다. “거기에는 클라이드 삼촌과 앤 숙모 밖에 안 계시고 숙모는 개에 알레르기가 있어서. 한번 개를 기르신 적도 있지만 포기하셔야만 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그 개를 숨길 수 있는 정말 좋은 장소가 없을까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다리 옆쪽에 있는 오래된 제분소는 어떨까. 그 문은 맹꽂이 자물쇠로 잠겨져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닌데 왜냐하면 그 건물의 꼭대기에 지붕의 한 부분이 바람에 날려 간 자리가 뚫려 있기 때문이다. 나는 10년동안 그 안에 샤일로를 숨길 수 있고 그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장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삶이 어떻겠는가? 어두워진 후 외에는 그를 어디에도 데려갈 수 없다. 그렇다 해도, 거기는 저드의 집과 너무 가까워서, 다른 개들이 아마도 냄새로 그를 찾아낼 것이다.

금요일, 시계의 분과 시간이 째깍째깍 지나갔고, 그 다음날은 토요일, 그리고 그 다음이 우리가 샤일로와 같이 하는 마지막 날이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해 낼 수 있는 모든 소소한 먹을 것들을 있는 대로 다 샤일로에게 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가 아프지 않은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 우리는 여느 날같이, 뒷마당에 앉았다. 백키와 데라 린은 풀밭에서 덩굴고 있었고, 샤일로로는 같이 놀려고 절뚝 거리면서 그리로 갔다. 나는 백키에게 양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배를 대고 누우면, 샤일로는 나를 뒤집으려고 애를 쓸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누이동생 둘 다 해 보려 했고, 샤일로는 내가 말한대로 내 동생들이 일어서게 하려고 있는 힘을 다 하고 있었다.

“백키가 만일 이 냇물에 떨어진다면, 샤일로는 백키를 거기서 끌어낼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어.” 엄마가 말씀하셨다.

“만일 내가 뱀을 만나면, 샤일로는 분명 나를 위해 그 뱀을 죽여줄 거야.” 데라 린이 말했다.

나는 내 안에서 슬픔이 점점 커져서 내가 곧 터져 버릴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조금 자다가, 깨고, 그리고 좀 자고는 또 깨고 하였다. 그러다가, 새벽녘이 되자, 나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었다.

나는 최대한 조용히 일어났다. 샤일로도 곧 내 소리를 듣고는, 물론, 그의 상자에서 나왔다.

“쉬, 샤일로,” 나는 손가락을 내 입에 대고 말했다. 그는 잠깐 나를 보더니, 언제나처럼 착하게도, 그의 상자 안으로 다시 기어들어 갔다.

나는 옷을 입고, 운동화를 신고, 조리대 위에 놓인 빵 덩어리에서 빵 한 조각을 떼어 가지고, 마당에 있는 나무에서 복숭아 하나를 따다. 그리고 나는 저드의 집으로 향한 동쪽 숲을 지나는 지름길을 택했다.

그것은 이제 남아있는 유일한 것이다. 나는 아빠, 엄마 그리고 데이빗에게도 말해보았지만, 누구도 전에 말했던 것 이상의 다른 방법을 생각해 내지는 못하였다. 내가 하기로 결심한 것은 저드를 직접 만나서 샤일로를 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나는 할 말을 너무나 자주 연습해 보았기 때문에 외위서도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내가 알 수 없는 것은 저드가 과연 뭐라고 할 것인가 또는 그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다. 그가 나를 때릴 수도, 주먹으로 칠 수도, 발로 찰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는 그 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저드로부터 샤일로를 살 것이며, 그가 샤일로를 팔지 않겠다고 하고 그를 데리러 온다면, 나는 샤일로를 데리고 다른 반대 방향으로 향할 것이다. 그가 개를 도로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법정으

로 데려가는 것이고, 그러면 나는 판사에게 저드가 그의 가족들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말할 것이다.

숲을 반쯤 통과했을 때, 나는 내가 하려는 일이 아빠를 큰 어려움에 처하게 할 수도 있는 일이라는 생각을 했다. 이 고장에서는 이웃과 싸우고 이 일을 법정까지 가지고 가면 일은 매우 심각해진다. 사람들은 저드를 좋아하지 않고, 대부분 아빠를 좋아하지만, 일이 그렇게 되면 나는 그들이 저드편을 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부모님 또는 데라 린 또는 백키에 게 상황을 힘들게 만들어 가고 있지만, 싸우지 않고 샬로로 그냥 포기할 수는 없다.

그가 나를 총으로 쏠까? 그런 생각이 또한 스치고 지나간다. 한번은 밉고 카운티에서 몇몇 아이들이 총에 맞아 쓰러졌다. 저드가 내 머리에 총구멍을 내고는, 나를 보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누워서 떡먹기다. 그래도, 나는 나의 발길이 저드의 집으로 향하게 했고, 그리고 다시 돌아서지는 않을 것이다.

아직 아주 이른 아침이어서, 안개가 땅에서 올라오고 있었고, 내가 넓게 펼쳐진 들판에 다다랐을 때는, 풀에서 김이 나는 것처럼 보였다. 하늘은 맑았지만, 해는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다. 언덕이 있는 시골에 살면, 해가 떠오를 때까지 시간이 한동안 걸린다. 해는 산을 먼저 기어올라야 한다.

나는 침착하기 위한 연습을 하는 중이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저드가 완전히 잠에서 깨기 전에 그의 집에 도착해서 그를 놀라게 하는 것이다. 그가 샬로 없이 내가 반 마일을 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를 알아차리고 뭐라고 답할지를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 나는 그가 잠자리에서 막 나왔을 때, 내가 이미 그의 현관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토끼 한 마리가 내 앞을 재빨리 지나서 사라졌다. 나는 한번은 아빠와 같이 사냥을 갔었는데, 아빠는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셨다. 처음에 토끼를 겁먹게 하면, 토끼는 짧게 한 번 강충 뛰고는 멈추고 뒤를 돌아본다. 그 때는 조금도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네 눈동자만 빼고. 네가 찾아야 할 것은 그 빛나는 검은 점, 바로 토끼의 눈이다. 네가 토끼 몸 전체를 찾는다면, 너는 결코 그 토끼를 다시 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인데, 왜냐하면 토끼는 주위 경치와 섞여 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금 나는 근육 하나 까닥 하지 않고 그 빛나는 검은 점을 찾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있었다. 나는 지금 이 토끼의 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생각했다. 토끼의 심장은 거칠게 뛰고 있을까? 그렇다고 내가 이 토끼에게 너를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줄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계속 두 번째 숲으로 들어갔고, 다시 들판으로 향했다.

내가 나무들 사이에서 막 나오려고 할 때 난 다시 죽은 듯이 가만히 멈췄는데, 거기 목초지에 사슴 한 마리, 어린 암사슴 한 마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슴은 무언가를 입으로 씹고 있었는데, 그 암사슴은 중간중간 멈추고, 위를 쳐다보고, 그리고는 다시 먹기를 계속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것은 이런 동물을 어떻게 총으로 쓸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그리고 나서 나는 우리 식탁에 고기가 올라와 본격적이 거의 없었던 몇 년 전 겨울을 생각해 보고는, 세 아이가 있는 아빠라면 사슴을 쓸 수도 있겠구나 하고 짐작해 본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일이 없기를 바랄 뿐이다. 내가 그 목초지로 발을 들여놓으려는 순간, 탕 하는 소리가 났다.

그것은 소총 소리였다. 총소리는 공기를 가르고는 언덕에 부딪쳐 다시 메아리 쳤다.

그 암사슴은 그 목초지를 가로질러 숲을 향해 달음질 쳤다. 앞다리를 곧추 세우고, 달음질치면서 뒷다리도 차고 올라섰고, 그 꼬리는 순간적으로 하얗게 보였다.

탕!

다시 소총 소리가 났고 이번에는 그 암사슴이 쓰러 졌다.

나는 움직일 수 없었다. 한 편으로는 그 사슴에게 가고 싶었으나, 다른 한 편으로는 사냥할 때가 안 된 사슴을 소총으로 쏜 누군가가 여기 어디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돌아갈 것인가를 결정하기도 전에 숲의 다른 편에서 손에 소총을 쥔 저드가 걸어 나왔다.

## 제 14 장

그는 육군의 얼룩무늬 셔츠와 갈색 테 없는 모자를 쓰고 아주 기묘한 웃음을 지으며 이를 드러내고 웃고 있었다.

“후-이-!” 라고 소리 지르고는, 한 손으로는 그 소총을 올려 잡고 잡초밭 사이를 헤치면서 나아갔다. “잡았다! 후-이-!”

나는 그가 거기서 토끼를 쏘고 있는 것이 아니었으며, 그 대신 암사슴 한 마리를 잡게 된 것이라는 것을 눈치 챘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사냥개를 데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저드는 그 아침에 분명 의도적으로 사슴을 잡으려고 밖에 나온 것이다. 그리고 난 사냥 감시인이 이 일을 알면, 저드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될 걸 알고 있다. 왜냐하면 금렵기에 그가 쏜 사슴은 더욱이 숫사슴도 아닌 암사슴이기 때문이다.

그는 허리 높이의 잡초들 사이를 터벅터벅 걸어서 그 암사슴이 누워 있는 곳으로 갔다. 몸을 구부리고 그 암사슴을 보고, 암사슴 주위를 조금 걸어다니고는, 다시 나지막하게 “후-이-” 라고 했다.

바로 그 때 내가 숲에서 나왔다. 그는 지금 내 쪽으로 등을 지고 있었고, 그 사슴의 앞다리에 손을 올려놓고 그 암사슴을 잡아 끌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시도하고 있었다. 그는 그 암사슴을 약간 끌고는 멈추었다. 그리고 그는 그가 다시 올려다보았을 때, 나는 이미 그의 바로 옆에 있었다.

그는 획 몸을 돌렸다. “너 어디에서 왔니?” 그는 물었다.

“난 아저씨를 만나보러 가는 중이었어요.” 나는 대답했고 처음으로 저드의 옆에 서 있으면서, 내가 실제의 나보다 더 크게 느껴졌다.

그는 내가 거기에 있어서 기뻐해야 할지 아닐지 모르겠다는 듯 한동안 나를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나는 그가 내가, 단지 아이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짐작이 들었다. “내가 잡은 것을 봐라!” 그는 말했다. “오늘 아침에 내 정원에서 뭔가를 먹고 있는 암사슴 한 마리를 발견해서는 여기까지 그 사슴을 쫓아 왔지.”

“그건 거짓말이에요,” 나는 말했다. “내가 아까 숲에 있었을 때 이 사슴이 뭔가를 먹고 있는 것을 지켜봤었어요. 이 암사슴은 그와 다른 길인 그 언덕으로부터 내려오는 중이었어요. 아저씨는 일부러 사냥을 하러 나오신 거예요.”

“글쎄, 내가 그랬다고 억측하는 구나” 저드는 이렇게 말하고는 나를 코딱지만큼도 못하게 미워했다.

“사슴은 지금 사냥철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대답했다.

암사슴 한 마리를 죽이면 200 달러 벌금이 있어요.“

저드는 내 입을 한 대 치려고 하는 사람처럼 나를 노려보았다. 여기서는 아이들이 어른한테 말대꾸를 하지 못하게 교육을 받는다. 사실, 말을 많이 하는 일도 거의 없다. 말을 잘 듣는 법을 배우고, 입을 다물고 지내고, 말은 어른들이 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 아침 5시 30분에 소총을 쥐고 있는 한 남자어른에게 함부로 지껄이고 있는 것이다. 내가 좀 이상하게 된 게 아닐까?

“그 사냥 감시원이 알아내지 않는 한, 벌금은 없지.” 저드는 말했다. “그리고 누가 그에게 그런 소릴 하겠어? 내가?”

갑자기 나는 내가 바라던 바로 그 현장에서 이 아저씨의 행동을 목격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편으로 여러분은, 죽은 암사슴을 신고하는 것은 내 의무라고 여길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고자질하는 것으로 본다. 내가 이 일을 신고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기로 거래를 한다면,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된다. 그건 공갈인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말했듯이, 나는 샤일로를 구하기 위해서는 거의 어떤 일이라도 하는 그런 지경까지 가야 했다.

“그래요,” 나는 말했다. 내 심장은 미친 듯이 쿵쾅거리고 있었다. “내가 말할 거예요. 무료 전화번호도 있어요.” 정말 있었다. 그 번호는 아빠의 사냥 규제 신문에 나와 있었다. 이런! 오늘 아침 이리로 올라올 땐 내가 이런 모든 일에 관련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하였다.

이제 저드는 실눈을 하고 나를 뻘뻘 쳐다보았다. “너의 아빠가 이렇게 하라고 했니?”

“아니예요, 이걸 내가 하는 말이에요.”

“그래? 너 정말 대단하구나! 그렇지만 누가 너의 말을 믿겠니?”

“나는 그 사냥 감시인을 이곳으로 올라오게 하여, 그 암사슴이 맞은 장소, 핏자국을 보여 주고, 그리고 감시인이 아저씨의 집에서 이 사슴을 찾게 되면, 내 말을 믿을 거예요.” 거의 내가 생각하는 속도보다 말이 더 빨리 입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나는 감시인에게 그 사슴이 내 마당에서 자라는 것을 먹고 있었다고 말

할거야.”

“그러면 나는 다르게 말할 거예요. 그 새로운 사냥 감시인은 그 사슴이 아저씨 마당에 있는 것을 먹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혀 봐주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아저씨는 사냥철도 아닌 사슴을 쏘면 안 되잖아요. 특히 암사슴은요.”

이제 저드는 정말로 화가 났고, 그의 말은 벌과 같이 나를 쏘았다. “너 뭘 하려는 거니, 애야? 문제를 만들려고? 넌 내가 너를 순식간에 너의 집에 가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지 않니?”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대요?” 나는 물었다. “나를 쏘 건가요? 아저씨는 너무 놀란 나머지 입이 딱 벌어졌다. 그러나 나는 지금 흥분한 상태이다. 아무것도 나를 막을 순 없다. 여태까지 지내오면서 지금만큼 용감했던 적도 없었다.

“내가 6개월 전에 발견했던 머리에 총 맞은 개처럼 나를 쏘 건가요?” 아저씨는 한동안 더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난 그 총알이 누구 것인지 알아요. 나는 아빠에게 그걸 말했고, 그리고 만일 사람들이 내가 총을 맞은 채 있는 것을 발견한다면, 아빠도 역시 그 총알이 누구 것인지 알게 될 거예요.”

나는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스스로 믿기지 않았다. 저드를 지금까지 내내 무서워해 왔던 내가, 크기도 그의 반 밖에 안 되는 내가, 여기 이렇게 어른처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샤일로에 대해 아직 기회가 있음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가서 사냥 감시인을 데려와라.” 그 다음에 내가 움직이지 않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만둬라, 마티. 여기서, 네가 이 다리들 중에 하나를 잡고, 내가 다른 다리들을 잡고, 우리가 이 사슴을 우리 집으로 끌고 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 고기의 반을 네게 줄게. 설마 너의 엄마가 이런 걸 얻어도 기뻐하지 않으실 거라고 말하진 못하겠지.”

“나는 이 고기를 원하지 않아요. 나는 샤일로를 원해요.”

이제 저드는 정말 놀랐고 그리고 그의 이빨 사이로 휘파람 소리를 내었다. “애, 너 나를 이렇게 난처하게 만들려고 여기 온 거지, 그렇지?”

“아저씨가 소총을 들고 밖에 나와 있을 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나는 이렇게 대답했는데, 그 말은 사실이었고, 최근 2주 동안에 내가 한 몇 안 되는 진실된 말 중 하나였다. “난 일요일이기 때문에 여기 올라온 거예요.”

요. 오늘은 아저씨가 개를 돌려달라고 한 날이고, 나는 아저씨가 그 개를 가지려면 먼저 나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제 저는 그 개를 제가 계속 데리고 있을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저씨가 벌금을 내지 않고 그 사슴을 가지기를 원하신다면,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후아!” 트라버스는 말했다. “그건 전혀 거래라고 할 수 없어. 나에게 오늘 아침 사슴이 생기지 않았다면, 넌 무엇으로 나와 거래를 하려고 했니?”

나는 이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했는데, 나는 거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건 저드는 이미 샤일로로 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었기 때문이다.

저드의 눈은 거의 자고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가 될 때까지 점점 좁혀졌다. “난 그저 너에겐 내가 그 사냥 감시인에게 이르는 것 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맹세코, 나는 그럴 거예요.”

“그리고, 만일 내가 내 사냥개를 네게 주면, 넌 이 사슴 일을 비밀로 해주겠다는 거냐?”

나는 내가 저드보다 별반 나을 게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는 사람. 그러나 그 어떤 것은 샤일로인 것이다.

“그래요, 나는 그럴 거예요.” 나는 그 말에 대해 썩 기분 내켜하지는 않으면서 말했다.

“글세, 애야, 넌 그 보다는 더 해야지. 왜냐하면 나는 그 개를 사기 위해 35달러를 지불했기 때문이야. 내가 그 개를 놔주려면 40달러는 있어야 되겠는데.”

처음으로 나는 그가 샤일로를 내가 사게 해 줄지도 모른다는 얇은 희망의 빛을 보았다. “제가 그 돈을 어떻게 해서든 차차 갚겠어요.” 나는 약속했다.

“그 돈을 조금씩 받는 건 싫다. 나는 지금 그 돈을 원해. 그리고 네게 지금 그런 돈이 없다면, 넌 나를 위해 일해서 그 돈을 갚아라.”

열 두 살 밖에 안 된 아이가 트라버스 같은 어른과의 거래에서 가질 만큼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라. 그러나, 나는 샤일로 생각 밖에는 없었다.

“그렇게 하죠.” 나는 저드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 춤을 출 것이 기쁘고, 웃음이 나오려고 하였지만, 이 기쁨을 드러내서는 안 되었다.

“자, 들어봐라.” 저드는 말했다. “한 시간에 2달러씩 너에게 주마. 40달러를 벌기 위해서는 20시간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일은 쉬운게 아니야.”

“하겠어요.” 나는 말했다.

“지금부터야.” 저드는 말했다. 그는 누군가가 소총소리를 듣고 들관을 지나 와서, 그가 암사슴을 어떻게 잡게 되었는지를 보게 될까봐 약간 초조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내가 이 사슴을 내 집으로 옮기는 것을 도와줘.”

나는 샤일로로 갖게 되어 너무 기쁜 나머지, 거의 똑바로 생각할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 이 암사슴을 저드의 집으로 끌고 가는 것을 도우면서 비로소 내가 그를 이 잘못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 줌으로써 다른 사슴을 위험에 처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사냥이 금지된 이 암사슴을 죽이고는, 아마도 더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샤일로를 구하기 위해서, 나는 사슴에게는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나는 침을 삼켰다. 그렇지만, 내가 만일 샤일로로 돌려보내는 일이 생긴다면, 샤일로는 나를 쳐다볼 그 눈길만이 생각 나 결국 난 맡겨진 일을 계속 해 나갔다.

마침내 우리가 그의 이동주택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그 사슴을 그의 뒤뜰에 있는 삼각 모양의 창고로 운반했다. 저드가 맨 먼저 한 일은 그 암사슴이 피를 흘리게 하여, 고기를 상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서 저드는 밖으로 나가서 발로 땅을 뭉개면서, 우리가 밑에 깔았던 풀을 다시 발로 차서 위로 세우고, 지나간 자국에 보이는 핏자국을 흙으로 덮었다.

“난 매일 일을 마치고 3시에 집에 온단다.” 저드는 말했다. “그리고 내가 돌아와 차를 세울 때면 넌 이미 여기 와 있어야 돼. 넌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에 5일간 나를 위해 일하는 거야. 저기 있는 통나무를 차곡차곡 쌓아야겠어. 잡초도 자르고 잔디도 깎아야 하고. 콩도 따야 하고, 옥수수에도 팽이질이 필요하고... 뭐든지 할 일이 생각날 때마다, 넌 그 일을 해야 돼. 그리고 내일부터 여기 와 줘야겠다.”

“그렇게 하겠어요.” 나는 말했다. “그렇지만, 내가 아저씨를 위해서 20시간 일을 하면, 샤일로는 내 것이 된다는 것을 글로 써 주세요.”

트라버스는 투덜거리며 그의 집안에 들어갔다. 식료품 봉지 조각을 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에는 “마티 프레스톤이 20시간 동안 일을 하면 비글 사냥개 한마리는 그의 것이 된다. 제이 트라버스” 라고 써여 있었다.

갑자기 내가 그 일을 한 후, 그가 나에게 그의 다른 개들 중 하나로 나에게 값을 지불 하려 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샤일로’ 라고 쓰세요.” 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는 나에게 불편해 하는 표정을 짓더니 ‘비글’을 지우고 그 자리에 ‘샤일로’라고 썼으나 철자를 정확히 쓰지는 못했다. 끝에 영어로 ‘h’를 빠뜨렸다.

나는 그 종이를 갖고 내 호주머니에 넣었다. “내일 여기 오겠어요.” 나는 말했다.

“그리고 너 이 사슴에 대해 누구에게든 말하면, 너는 네 입을 연 것에 대해 매우 후회하게 될 거야.”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나는 말했다. 내가 최근에 했던 모든 거짓 말을 생각해 볼 때, 내 약속의 말이 그리 대단한 것 같지 않을지 모르지만, 약속은 약속이다.

나는 저드의 이동주택에서 지그재그같은 모양으로 길을 걸어 나왔다. 그가 그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면서도, 언제라도 내 등에 총알이 하나 박히지나 않을까 의심하면서. 그렇지만, 그 곳을 벗어나자, 나는 숲 속을 줄달음쳐 지나갔다. 심장이 쿵쿵쿵 뛰었다. 더 이상 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샤일로는 내거다! 그 말이 계속 머리 속에서 맴돌았다. 그는 안전하다!

그렇지만, 지금 이것보다는 더 기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일단 샤일로가 내 것이 되면, 그 날은 내 일생의 가장 기쁜 날이 될 것이라고 상상했었다. 한 편으론 그렇지만, 다른 한 편으론 그렇지 않았다.

저드는 당시에 다른 수를 생각해 낼 수 없었기 때문에 굴복한 것일 수도 있다. 그가 그 사슴을 옮기는데 단지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내가 샤일로를 가져도 좋다고 말했을 수도 있다. 일단 증거를 없애면, 그는 내게 가서 사냥 감시원을 데려와 보라고 하고, 결국 나는 샤일로를 갖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자기는 그 식료품 봉지 종이에 그런 글을 쓴 적이 전혀 없으며, 그건 내가 쓴 것이라고 우기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난 그렇게는 생각지 않는다. 내가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저드가 이 거래를 마치고, 샤일로를 내게 주지만, 어느날, 샤일로그 혼자서 숲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니고 있을 때, 저드가 샤일로그의 머리에 총 한 발을 쏘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단지 나를 괴롭히기 위해.



## 제 15 장

그렇지만, 집에 가까워 올수록, 얼굴에 웃음이 더 크게 번졌고, 부엌으로 뛰어 들어갔을 때, 내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아빠는 커피를 마시는 중이셨고 엄마는 거실에서 브라더 조나스에 의해 진행되는 일요일 아침 예배에 귀를 기울이고 계셨다. 엄마는 매주 일요일 7시에 이 사람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시기 때문에, 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어디에 갔었니?” 아빠는 물으셨고, 나는 엄마도 주의를 기울이고 계신 것을 알 수 있었다. “네가 일어나서 없어져서, 엄마 아빠 걱정하는 참이었어.”

나는 내 의자로 살며시 앉아서 내 입 양쪽 끝이 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못하게 내 양쪽 뺨을 밀어야 할 정도로 싱글벙글 했다.

“저드 아저씨를 만나러 갔었어요.” 나는 아직도 숨이 가쁜 상태에서 말했다. “그리고 난 그의 개를 살 수 있게 됐어요.”

엄마는 일어나서 부엌 문 통로로 오셨다. “뭐라고?”

“그가 팔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빠는 나를 뚫어지게 보면서 말씀하셨다.

“그 아저씨는 팔지 않으려 했죠. 그렇지만 내가 팔도록 잘 얘기했어요. 그는 집에 일손이 필요했고, 그는 내가 20시간 동안 그를 위해 열심히 일한다면, 시간당 2달러로 해서, 그가 샤일로에 대해 원하는 값인 40달러를 치르게 되는 거예요.”

엄마의 미소는 점점 커져 갔다. “믿지 못하겠구나!” 엄마는 말했다. “샤일로는 네 것이 되었다는 말이니?”

“아직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거고, 이제 우리는 샤일로를 저드 아저씨의 집에 데리고 갈 필요가 없게 됐어요.” 내가 마지막 말을 다 마치고도 전에, 엄마는 두 팔로 나를 감싸고, 거의 숨도 못 쉬게 꼭 안으셨다.

나는 샤일로는 내한테서 저드의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슴의 피 냄새도 역시 맡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샤일로는 내 신발 냄새를 킁킁 맡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결국 샤일로는 더 이상 참지 못하였다. 그는 내가 돌아온 것이 기뻐서, 내가 집에 온 것을 환영하

며, 나를 활왔다.

그러나 아빠는 아직도 내 얼굴을 살피고 계셨다. “알 수가 없구나, 마티. 저드는 그 개를 계속 데리고 있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었는데. 너와 그 사이에 무슨 말이 있었니?”

나는 정말로 더 이상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 내가 엄마와 아빠한테 그 사슴에 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말한다면, 빼놓고 한 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저드에게는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다음 그 사슴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그것은 저드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부모님께보다는 차라리 저드한테 거짓말하는 낫겠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다. 아빠는 사냥이 금지된 암사슴을 저드가 쏘는 것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를 신고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늘 그런 식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이 꼭 옳다고는 볼 수 없지만, 아빠가 그렇게 느끼신다면, 내가 저드에 대해 그리고 그 사슴에 대해 아빠에게 얘기하든 안 하든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말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말하면 안 되는 것이다. 바로 지금,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샤일로다.

“난 그 아저씨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샤일로를 돌려주지 않겠다고 했어요.” 나는 아빠에게 말했다.

그러자 아빠, 엄마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셨다. “저드 트라버스에게 네가 그런 말을 했어?” 아빠는 뒤 편 있는 의자에 앉아 나를 살피시며 물으셨다.

“그 말 밖에는 이제 안 남았잖아요. 내가 생각해 낼 수 있는 아직 해보지 않은 말은 그 말밖엔 없었어요. 나를 법정에 데리고 갈 수도 있다고 그에게 말했어요. 그럼 난 판사에게 그가 그의 개들을 발로 찼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까지 갈 필요는 없었어요. 아마도 아저씨는 집에 일손이 필요한 가봐요.

엄마는 아빠를 향해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난 샤일로가 다쳤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었다고 생각해요. 저드는 샤일로를 결코 예전 상태로 회복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순순히 샤일로를 놓아준 것이라고요. 절룩거리는 개도 처분하고, 최선의 보상도 얻으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말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빠에게도 미소가 감돌았다.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새

로운 가족이 생겼군.” 아빠는 내게 이렇게 말했고, 그 말은 내 생애에서 집에서 내가 들어본 말 중 가장 기분 좋은 말이었다.

그리고 나서 백키와 데라 린이 잠에서 깨어났는데, 둘 다 슬픈 얼굴을 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 애들은 우리가 샤일로로를 저드의 집으로 데려갈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 소식을 말하니까, 데라 린은 춤을 추기 시작했다. 백키도 뱅글뱅글 돌면서 따라 했고, 샤일로로도 그 특유의 웃음을 머금었고, 우리 모두는 환성을 지르고 시끌벅적 하였다.

엄마는 TV를 끄시고 와플을 만드셨는데, 각각의 조각의 한 가운데 큰 마가린 덩어리를 올려놓으셨고, 집에서 만든 뜨거운 갈색 설탕 시럽으로 와플이 담긴 접시를 가득 채우셨다. 엄마는 심지어는 샤일로한테 줄 와플도 만드셨다. 우리는 잘못하다간, 샤일로로를 아프게 할 수도 있겠다 싶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자신뿐 아니라 샤일로까지 먹여 살릴 궁리를 하게 되었구나.” 마침내 아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몸을 위한 음식과 마음을 위한 음식이 있단다. 그리고 샤일로로는 확실히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해 줄거야.”

우리는 샤일로로를 아주 못 살게 할 정도로 귀여워 했다. 그가 몸을 돌릴 때마다, 누군가가 어디에선가 꼭 그에게 손을 대었다. 나는 샤일로로를 데리고 나가서 다친 이후 처음으로 가벼운 달리기를 시켰고, 일단 언덕 위에 오르면, 자유롭게 달리도록 해 주었는데, 내 안에서는 기쁨이 점점 커져 가서 나는 그것을 밖으로 터뜨릴 수밖에 없었다. 나는 등을 활처럼 구부리고 “히-오우”하고 외쳤다.

샤일로로는 펄쩍 위로 뛰고는 나를 보았다.

“히-오우” 나는 환희와 기쁨으로 인해,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는 식으로 이렇게 또 외쳤다. 그러자 갑자기 샤일로로가 쿵쿵 짓으면서 같이 따라했다. 짓는 소리가 좀 불쌍하게 느껴졌다. 마치 짓는 법을 몰라 이제 배워야 할 것처럼. 그러나 그것은 행복해 하는 소리였고, 그는 이제 그걸 배우는 중이다.

단지 지금은 사슴으로 인해 마음 한 구석에 슬픔이 남아 있다. 누군가가 법을 어기면, 그건 누가 처리할 일인지 또한 잘 알 수가 없다. 저드가 무슨 일을 했던지 간에 아빠는 그를 결코 신고하지 않으실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이다. 한 사람의 일이 바로 모두의 일이 되는 그런 날이 와야 한다.

월요일 오후 3시, 저드가 돌아와 차를 세울 때 나는 그의 집 현관 앞에

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개들은 모두 집 밖으로 나와 사슬로 묶여 있었고, 미친 듯이 짖어 대기 시작했다. 나는 그들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슬에 묶여진 개는 사나울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저드의 장작더미를 다시 층층이 쌓아 올려놓았으나 그는 내가 다시 하길 원했다. 큰 것들은 여기에, 작은 것들은 저기에다. 그는 심술궂고 무뚝뚝해 보였다. 아마도 그는 그 개를 그렇게 쉽게 내게 내 준 것에 스스로에 대해 불만인 지도 모른다.

내가 그 장작더미 일을 마치자, 저드는 내게 호미를 건네 주었다. “너 저 정원 보이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기 옥수수 보이니?” 거기 흙을 아주 곱게 갈아서 내 손가락 사이로 흙이 빠져나갈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는 나에게 말했다.

이제 나는 그가 노리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는 절대로 내가 자기를 만족시킬 수 없게끔 일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내가 20시간을 들여 일해도 그는 내게 내가 한 일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말할 것이고, 그의 개를 돌려 달라고 할 것이다.

나는 양손에 물집이 생길 때까지 호미질을 하였고, 내 등으로는 땀이 비오듯하였다. 난 아침 일찍이, 햇빛이 이렇게 강하기 전에 일을 할 수 있다면 하고 바랬다. 그러나 나는 불평하지 않았다. 나는 나중에는 내 반소매 옷을 벗고 그것으로 내 머리를 감싸서 땀이 내 눈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했고 그리고 계속 일했다. 어깨가 너무 빨개져서 나는 다음 날 아침이면 더 심해져 아플 것이라는 것을 이미 짐작했었고 정말 그랬다.

다음날 오후, 저드는 나에게 그의 이동주택의 벽면과 현관 앞의 때를 밀어 벗기고, 창문을 윤이 나게 닦고, 마당을 써레질하게 하였다. 그는 그늘에서 접이식 의자에 앉아서 차가운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나에게는 아무 것도, 물조차도 건네지 않았다. 나는 악마보다도 더 그가 미웠다. 입은 너무 말라 털 같이 느껴졌다.

그렇지만, 삼 일째 되는 날, 내가 그의 쿵을 따라 갈 때 내 뒤통으로 1쿼터의 물병을 꺼내 놓았다. 너무 오랫동안 쿵이 줄줄이 나 있는 위로 몸을 구부리고 쿵을 따서 양동이에 담다 보니, 평생동안 등이 굽어 지내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내가 다 마쳤을 때, 저드는 나를 현관 쪽으로 오라는 듯한 신호를 보냈다. 원한다면 물을 마시는 동안은 거기 앉을 수 있다는

듯이.

나는 그 위로 거의 쓰러지다시피 했다. 그늘에 있게 된 것을 기뻐하며.

“물집이 좀 생긴 것 같구나.” 그는 말했다.

“난 괜찮아요.” 나는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한번 물을 쭉 길게 들이켰다.

“샤일로는 어머니?” 그는 물었다. 그가 그 이름을 부른 것은 처음이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아직 절룩거리지만 아주 잘 먹어요.”

저드는 맥주를 들어 그의 입으로 가져갔다. “내가 그 개를 집에 데리고 있을 수 있었다면, 아주 훌륭한 사냥개가 되었을 텐데.” 그는 말했다. “다른 개들은 절대 도망가는 일이 없던데.”

나는 그 말에 대해 한동안 생각해 보았다. “글쎄요,” 나는 결국 이렇게 말했다. “다 제각각 다르잖아요.”

“그건 사실이야. 한 놈을 차면 그 놈은 그저 한 시간 동안 현관 베란다 밑에 들어가 있을 뿐이지. 또 다른 놈을 차면, 그 놈은 나가서 돌아오질 않아.”

이에 대해 뭐라 해야 할지 난 골똘히 생각했다. 어떻게 해서 그의 개들을 발로 차게 되었는지 물어볼까? 그리고는 난 제아무리 충고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설교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 그리고 분명 삼십 세는 되었을 트라버스는 더더욱 그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어떤 개들은, 아저씨가 발로 차면, 사납게만 될 뿐이에요.” 난 결국 이렇게 말했다. “다른 개들은 발로 차이게 되면 겁에 질리게 되죠. 샤일로는 겁이 났었던 거예요.”

“내 개들을 막대기로 때린 적은 한 번도 없어. 저드는 계속 말했다.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결단코 그런 적은 없어.“

나는 곧바로 무슨 말도 하지 않았다. 나중에는, 그래도, 나는 이렇게 물었다. “아저씨 개들은 잘 있나요?”

“토끼 사냥을 하러 나가고 싶어 안달이 나있지.” 저드는 말했다. 우리는 저 편에 있는 그의 세 마리의 개들을 보았는데, 모두 사슬을 잡아 당기면서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저기 가장 큰 개는, 지금 내가 가진 개들 중 가장 큰 소리로 짖는 개야. 나는 그가 안 가 본 길을 따라 가는지 늘 가던 길을 가는지 그의 짖는 소리로 구별할 수 있어. 그가 도랑을 달리든, 물 속을 지나든 아니면 너구리를 쫓아가든.

“대단하군요.” 나는 말했다.

“가장 작은 저 놈, 저 놈은 아무것도 아닌 시시한 개야. 재는 내가 쫓는 것만 빼고 거의 아무 것이나 따라 가지. 다른 개들이 썰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저 중간 개는, 글썄, 그 개도 자주 쫓지. 죽은 나무에 대고도 쫓지.” 그 개들은 지금 싸우는 중이었고, 저드는 그의 펍스트 깡통을 그 개들에게 던졌다.

“다들 입 다물어.” 그는 소리 쳤다. “조용히 해!”

그 깡통은 가장 큰 개를 맞혔고, 개들은 모두 흩어졌다.

“사슬에 묶여 있는 것을 싫어하지.” 저드는 말했다.

“그걸 좋아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나는 그에게 말했다.

나는 그 주에 10시간 동안 일했고, 이제 나는 그에게 빚진 돈에서 20달러를 갚았고 앞으로 한 주 더 일해야 한다. 어느 날 오후, 저드의 집을 향해 출발할 때, 샤일로는 나와 같이 꽤 많이 갔다가는, 킥대기 시작하더니 돌아섰다. 나는 그가 나와 계속 같이 가지 않아 기뻐했다. 난 그가 저드의 근처 어디에도 있는 걸 원치 않았으니까.

두 번째 주의 월요일 저드는 내 등 또는 내 기분 아니면 양쪽 모두를 꺾으려 나선 것 같았다. 이번에는 내게 나무 장작 패기를 시켰다. 나는 큰 아카시아 통나무를 그의 옆마당에 있는 그루터기로 굴러서 가져가서, 그 안에 썰기를 박고 나서는, 큰 망치로 그 썰기를 내리 치고 또 쳐서 그의 난로에 맞게 들어가도록 장작으로 조각조각 갈랐다.

그 다음 통나무 그리고 또 그 다음.

나는 그 큰 도끼를 내 머리 위로 거의 들어 올릴 수 없었고, 내가 그 도끼를 내렸을 때, 내 팔은 너무 떨려서 제대로 겨냥할 수 없었다. 거의 그냥 도끼를 떨어뜨리는 수준이었다. 이 일은 내게 맞지 않은 일이었고, 만일 아빠가 저드가 나에게 이런 일을 시키는 것을 보신다면, 그에게 그 일은 내가 하기에 위험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저드는 나에게 한 번 본때를 보여주려고 나선 것이고, 나 또한 그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 나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계속 해 나갔다. 그 나무를 쪼개는데 저드보다 두 배의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난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내내, 저드는 현관 앞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면서 내가 땀 흘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분명 그렇게 하는 것이 그의 기분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리라.

그리고 나서 그는 내 심장을 거의 딱 멈추게 하는 말을 하였다.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애, 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이 큰 수고를 하는구나.”

나는 한 동안 등을 펴고 팔로 얼굴을 훑었다. “샤일로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라고 나는 그에게 말했다.

“너는 종이 조각 하나에 손으로 쓴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네가 내 개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니?” 저드는 소리내어 웃고는 맥주를 좀 더 마셨다. “왜냐하면, 그 종이는 거기다가 네가 코를 푸는 것 말고는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지. 넌 증인도 없잖아.”

나는 저드를 보았다. “무슨 말씀이죠?”

“너는 어떤 것이 법적인 것이고 또 어떤 것이 아닌지 알지도 못하잖아, 그렇지? 글세, 네가 판사에게 증인의 서명도 없는 종이 한 장을 보이면, 그는 웃으며 너를 당장 법정에서 나가게 할거야. 넌 네가 그 계약을 하는 것을 본 누군가의 서명을 받아야 했어.” 저드는 좀 더 웃었다. “그리고 그 때에는 내 개들 밖에는 아무도 없었고.”

나는 속이 쓰렸다, 마치 토할 것 같이. 무엇을 해야 할지 또는 말해야 할지 생각이 나지 않아, 나는 그저 다시 큰 도끼를 들어 올려 나무를 계속 쪼갰다.

저드는 더욱 심하게 웃어댔다. “넌 어떤 애지? 바보 같은 애?” 그리고 내가 대답하지 않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뭐 때문에 등이 부러져라 일하고 있는 거냐?”

“난 그 개를 원해요.” 나는 말했고 그리고 다시 그 큰 도끼를 들어 올렸다.

그 날 밤 엄마 아빠와 같이 밖에 현관 밖에 앉아 있을 때, 샤일로는 내 무릎에 앉아 있었고 나는 그 일을 물어보기로 했다. “증인이 뭐예요?” 나는 물었다.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것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하지 않는 사람을 말하지.” 엄마는 말씀하셨다.

“아니, 다른 종류의 뜻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사실이라고 서명을 한 사람이지.” 아빠는 말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 마티?”

“누군가와 거래를 하면, 증인이 있어야 하나요?” 나는 대답은 않고 이렇

게 또 물었다.

“만일 그 일을 정당하게 법적으로 하기 원한다면, 그래야겠지.”

나는 아빠에게 내가 너무 어리석은 나머지 증인도 없이 저드 트라버스와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차마 알릴 수 없었다.

“계속 무슨 생각을 하고 있니?” 아빠는 엄마가 아빠의 등을 문질러 주시는 동안 몸을 굽히고 있으면서 다시 물으셨다.

“그냥 뭔가를 어떻게 파는지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다예요. 땅 같은 것 말이에요.”

아빠는 나에게 재빨리 눈길을 주셨다. “너 그 개 때문에 내 땅의 얼마만큼을 팔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 그러니?”

“아니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아빠가 눈치채지 못하게 한 것에 안도했다. 그러나 나는 정말 걱정이 되었다. 그 사슴의 자취는 이제 모두 사라졌다. 저드가 그 고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아마도 어딘가에 고기 창고를 빌렸는지도. 그러나, 주위에는 남은 뼈도 가죽도 없다. 지금 신고를 해도, 나는 아무 것도 증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다음날 저드 트라버스는 나를 멍청이라고 불렀다. 그의 집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는 나를 보고는 내가 코코넛처럼 두꺼운 머리를 가진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이미 내게 그 종이는 아무 쓸모도 없는 것이라고 말해 주지 않았냐고 하면서.

나는 단지 그를 똑바로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아저씨와 나는 거래를 했어요.” 나는 말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 내 몫을 계속 할 거예요. 오늘 제게 시킬 일은 뭐죠?”

저드는 그저 다시 그 큰 도끼를 가리켰고 그는 그의 일생에서 누군가를 최고로 골려 주었다는 듯이 배를 잡고 웃어댔다. 나는 아직 일을 시작조차 하지 않았지만, 땀이 내 등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4시가 되었고, 나는 마침내 그 장작 패는 일을 다 마쳤지만, 저드는 잠이 든 척 하고 있었다. 그의 머리는 뒤로 젖히고 입은 반쯤 벌어진 채였지만, 나는 그것이 그가 나를 놀리려는 또 다른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내가 집에 몰래 가길 원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내가 그 거래에서 내가 할 부분을 지키지 않았다고 트집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의 창고에 들어가서 큰 도끼를 도로 갖다 놓고, 낫을 꺼내서 나와서 그의 우체통 옆에 있는 잡초를 베었다. 한 시간 꼬박 잡초를 베고, 5시가 되어, 내가

창고로 다시 돌아가려는 때였다. 그가 나를 지켜보는 것이 보였다. 나는 그에게로 걸어갔다.

“낮이 무더웠어요, 아저씨. 슷돌이 근처에 있으면, 갈아드릴 수 있어요.”

그는 나를 아주 오랫동안 유심히 살펴보았다. “창고 안에.” 라고 그는 말했다.

나는 슷돌을 가지고 와서, 그루터기에 앉아, 칼날 위로 슷돌을 움직였다.

“5시가 지났어.” 저드가 말했다.

“알아요.” 내가 말했다.

“나는 단 일 센트도 너에게 더 주지 않을 거야.” 그는 말했다.

“괜찮아요.” 내가 그에게 말했다. 그의 얼굴에 나타난 표정은 내가 이제껏 어떤 남자어른에게서도 보지 못한 표정이었다. 완전히 당혹스러워 하는 것이었다.

다음날 저드의 집으로 다시 향할 때 내가 결심한 것은 나에게서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 거래에서 내 편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난 후, 어떻게 될 지를 보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이다. 만일 내가 지금 포기하면, 그는 샤일로로 가지러 올 것이고 우리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난 그를 화나게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승자, 패자를 가르는 건 소용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안 좋은 감정만 계속 가게 될 뿐이다. 나는 샤일로가 자유롭게 뛰어다닐 때 그리고 내가 학교에 있을 때 샤일로에 대해 걱정을 해야만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저드가 나에게 기분이 너무 상한 나머지, 그의 트럭으로 내 개를 치려고 어떤 변명이든 꾸며낼 것이라는 느낌을 받고 싶지 않다.

우리 사이에 진전이 있다는 유일한 표시는 저드가 나를 위해 물을 꺼내 놓는 것이다. 이 날은, 물 속에 얼음까지 들어 있었고, 저드는 증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사실, 내가 일을 마치고 남아 있는 물을 다 마시기 위해 그의 현관 앞에 앉았을 때, 저드는 보통 때 보다 약간 더 말을 하였다.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은 개였지만, 적어도 그것은 무시 못할 것이다.

나는 저드에게 뭔가 좋은 말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에게 그의 개들이 매우 잘 생겼다고 말하는 것이다. 저드 트라버스에게 칭찬을 하는 것은 마치 풍선 하나를 공기로 채우는 것과 같다. 그렇게 하면 실제로 그의 가슴이 부풀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십, 삼십 그리고 사십오” 그는 내가 그의 개들에 대해 말하자 이렇게 말했다.

“그것들이 지금 개들의 이름들인가요?”

“내가 그들을 사기 위해 낸 돈이지.” 그는 말했다.

“만일 저 개들의 골격에 살이 좀 더 붙는다면, 전 이 고장에서 그들이 가장 잘 생긴 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해요.” 나는 그에게 말했다.

저드는 거기 앉아 두 손에서 맥주를 빙빙 돌리면서, 말했다. “아마도 지방이 좀 더 붙어 있어야겠지.”

나도 물을 약간 삼켰다. “언제부터 사냥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어요?” 나는 그에게 물었다. “아저씨가 어릴 때 아저씨 아빠가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저드는 뭔가를 뱉었다. 나는 남자가 맥주를 마시고 담배를 씹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었다. 그러나 저드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아버지에 대한 유일한 좋은 기억이지.”

이제까지 중에서 처음으로 나는 저드 트라버스에 대해 안 됐다는 감정을 느꼈다. 만일 여러분이 이 느낌을 우체국 저울에 달면, 저울 바늘을 거의 움직이게 하지 못하겠지만, 내 안에 어딘가에 그에 대해 1온스의 몇 분의 일의 동정하는 마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우리 아빠와 같이 한 모든 일을 떠올려 보고, 저드는 단지 그의 아빠와 사냥을 갔던 것 밖에 기억할 수 없음을 볼 때, 글세, 그런 삶은 무척 안 된 것이었다.

목요일, 내가 거기 갔을 때, 저드는 다시 심술로 가득 차 있었는데, 네게 시킬 일이 이제 다 동이 났기 때문이었고, 그는 단지 나를 땀 흘리게 만들기 위해서 일을 시켰다. 그는 그의 쓰레기를 버릴 구덩이를 파라고 말했다. 그 옥수수 밭을 다시 호미로 갈고, 현관 앞을 문질러 닦고, 콩이 자라는 텃밭에서 잡초를 뽑았다. 그러나 5시에 가까워 오자, 그는 내가 이제 거기에 한 번만 더 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듯 했다. 나는 그 날 정말 열심히 일했다. 그가 시킨 일이면 무엇이던지 시킨 것보다 더 잘 해냈다.

“글세, 하루만 더 있으면 되는 구나.” 내가 일을 마친 후 나는 물을 갖고 그는 맥주를 갖고 자리에 앉았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일단 개가 네 것이 되면, 너는 그 개로 뭘 할거니?”

“그냥 놀죠.” 나는 그에게 말했다. “그를 사랑해요.”

구름이 위치를 바꾸고, 부풀려지고, 바람에 의해 이리 저리 불려 다니는

동안, 우리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나는 그 사슴이 없었다면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 만약 2주전에 저드의 앞문을 그냥 똑똑 두드리고 그에게 난 샤일로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면, 그 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사실 말하자면, 나는 엄마가 옳다고 생각한다. 저드는 샤일로가 절독거리기 때문에 그를 나에게 얼마 안 있어 팔려고 했던 것이다. 저드는 그의 픽업 트럭에 움푹 들어가거나 어떤 굵은 자국이 나는 것을 원하지 않듯, 개에게도 그런 결함이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것이 자기의 스타일을 구긴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의 트럭은 완벽해야 하며, 이것은 자기가 그렇지 못한 것을 보충하기 위함이다.

내가 저드를 위해 일하는 마지막 날, 그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자세히 감독하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흠을 잡았다. 나를 계속 못살게 굴고, 붙들어 두면서 내 일을 마치게 했다. 갈 때가 되자, 나는 이렇게 말했다. “저, 그럼 이것으로 된 것 같은데요.”

저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나를 쳐다보면서 그의 이동주택의 문간에서 있었고, 그리고 나서 나는 그가 내게 그가 서명한 그 종이를 내가 갖고 그것을 불쏘시개로 쓰라고 말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 내게, 내가 원한다면, 사냥 감시원에게 전화를 걸으라고 말하는 거다. 이제 사슴이 남긴 자취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를 위해 들인 두 주의 시간은 그 피를 씻겨 내리는 비가 오는데 충분한 시간이었는데, 그 들판의 풀은 그 사슴이 총을 맞은 그 곳에 다시 쑥쑥 돌아났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는 아직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고, 그래서 나는 마음을 조린 채, 집으로 향해 가기 시작했다.

“잠깐만,” 저드는 말했다.

나는 멈췄다. 그는 이동주택 안으로 다시 들어갔고, 나는 거기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가, 그는 그것을 시험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지? 그리고 나서 그는 다시 문간에 다시 나타났고, 그의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었다. 그는 총계를 반쯤 내려 왔다.

“여기,” 그는 말했다. 그것은 개 목걸이였는데, 오래된 것이었지만, 지금 샤일로가 하고 있는 것 보다는 나은 것이었다. “조금 클지 모르지만, 곧 자라서 맞게 될 거야.”

나는 저드를 쳐다보고는 그 개 목걸이를 받았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는 사이가 좋아지게 되었다.

“무척 고마워요,” 나는 그에게 말했다.

“이제 너한테 개가 한 마리 생겼구나,” 그는 말했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 날 저녁 집에 왔고, 엄마는 축하하기 위해 초콜렛이 층층이 있는 케익을 구우셨다. 베티 크록커의 빵에 뒤지지 않는 진짜 케익이었다.

저녁 식사 후, 엄마와 아빠는 현관 앞에, 우리 넷은 같이 풀밭에서 여기저기 뒹굴어 다녔다. 백키, 테라 린, 샤일로 그리고 나 이렇게. 백키는 샤일로에게 그 애의 나비 키스를 하려고 했으나, 샤일로는 백키의 속눈썹이 그에게 닿아 깜박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오래 잠자코 있지 않았고, 그저 백키의 얼굴을 온통 활게 되었을 따름이다.

그리고 백키와 테라 린이 안으로 들어간 뒤 한참 뒤에, 나는 풀밭에서 등을 대고 누웠고, 이슬도 신경 쓰지 않았고, 샤일로는 그의 앞발을 내 가슴에 댄 채 나에게 가로로 기대고 있었다.

나는 주위가 점점 어두워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하늘은 점점 보랏빛으로 변해 가고 있었고, 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일은 정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옳고 그른 것이나, 저드 트라버스와 나, 그리고 내가 지금 데리고 있는 이 개까지도 세상에 단순한 것은 없다고. 그러나 좋은 일은 내가 샤일로를 구했으며, 내 눈도 좀 더 뜨였다는 것이다. 이제 열 한 살인 아이에게 그건 그리 나쁜 일은 아니지 않는가.

<뒷이야기>

마티가 그 강을 따라 가다 샤일로로 발견한 것과 내게 샤일로 3부작에 대한 아이디어를 준 그 수줍어 떨고 있던 암캐를 내가 우연히 만난 것은 꼭 같은 식으로 이루어졌다. 책에 강으로 나와 있는 것이 실제로는 웨스트 버지니아의 작은 지역인 샤일로로 관통하는 미들 아일랜드 시내라는 것만 빼 놓고. 남편과 나는 친구인 매든 부부를 방문하는 중이었고, 그 개는 산책 중에 우리 뒤를 따라 왔었다.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우리는 길을 되돌아서 오래된 샤일로 기숙학교를 지나고 그 다리를 건너갔다. 우리는 길고 구불구불한 길로 들어가서 트루디 매든의 부모님이 사시는 작은 집을 지났고, 마침내 매든 부부의 집 앞 계단에 도달했다.

우리는 옷을 갈아입고 아침을 먹었다. 그런데, 창문 밖을 보았더니, 그 개가 아직도 거기서 비를 맞으며, 이 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우리가 이 개를 얼마나 자주 보는지 몰라.” 우리 친구들이 우리에게 말해 주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원치 않는 고양이나 개를 데리고 시스터빌에서 여기까지 내내 차를 몰고 와. 그 사람들은 그 동물들이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며, 그냥 내 놓지만, 많은 동물들은 그렇게 되지 못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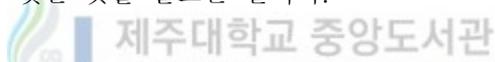
그 날 집으로 출발한 후, 나는 그 개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되었다. 우리는 매릴랜드에서 우리가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고양이를 두 마리 키우고 있었고, 그 암캐를 데려가는 것은 사실 고려해 보지도 않았다. 그러나 나는 그 개를 내 마음 속에서 떨쳐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 개가 학대를 당하고 있어서 내게 오게 되었다면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혼자 궁리하며, 샤일로라는 작품을 쓰기 시작했다. 그 구성이 내 머리 속에서 전개되면서 나는 그와 같은 일이 웨스트 버지니아, 그곳에서도 바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그려볼 수 있었다. 나는 트루디의 부모님이 살고 계신 그 작은 집에 프레스톤 가족이 살고 있다고 상상해 보았다. 나는 매든 가족의 집 주위의 들판을 마티와 그의 여동생들이 노는 장소로 보았다.

우리는 트루디로부터 삼 주 후에 다음과 같은 소식을 담은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현재 진행중인 그 이야기에 대해--너희 부부가 떠난 후 나는 자기가 살

던 곳이 아닐 지도 모르는 장소를 헤매고 다니던 그 개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개가 어떻게 되었는지 계속 조사해 볼 수는 없을까 하고 알아보기로 결심했지. 나는 차를 몰고 그 시내의 반대편 뚝까지 가서 다른 한 쪽 끝에 나와 있는 길까지 줄곧 따라가 보았어. 그 개의 자취도 찾아 볼 수 없어서 실망했었어. 그리고 그 다음 며칠동안 시내 중심가로 나갈 때마다, 갈색과 흰색의 꼬리를 흔드는 그 개가 어디 보이지 않나 계속 찾아보았어. 일주일 전 월요일에 우리가 산책을 갈 때 난 그 일에 대해 그냥 잊고 있었어. 우리는 그 길을 따라 1마일 아니면 그쯤 걷고 있었는데 그 개가 아주 기뻐하며 우리 앞에 모습을 갑자기 드러내더니, 우리가 그저 자기를 찾기 위해 거기에 나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양 행동하지 뭐니. 그 개는 기뻐하면서 총 5마일을 내내 뛰면서, 우리를 줄곧 따라 왔어. 우리가 우리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 무언의 합의를 이를 그 한 가지를 했지. 그 개에게 먹이를 주었다는 거야. 그 개는 우리 차고에서 긴장을 풀고 편안해 하였고 우리를 잘 따랐어. 그 상황에서, 그러지 않겠어?

나는 네가 이제 걱정말고 잠들 수 있기를 바래. 너의 작은 소풍이 행복한 결말을 맺은 것을 알고는 말아야.



정말 행복한 결말이었다. 작품 샤일로가 뉴베리 메달을 받은 후, 우리 친구들이 클로버라 이름 붙인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이 작은 개는 유명인사가 되었다.

매든 가족은 덴버 같이 멀리 떨어진 곳으로부터도 전화를 받았는데, 클로버를 비행기에 태워 그들의 학교나 도서관으로 오게 하여, 독자들이 실제 샤일로를 볼 수 있게 하면 모든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한다. 우리 친구들은 그 개를 비행기에 태우지는 않았으나, 요청하면, 그들은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학교와 도서관에 그 개를 데려갔고 그 개는 사람들의 귀여움과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은 클로버를 도서관 탁자에 올려놓고 스탬프 잉크 판을 옆에 두고는, 학생들이 줄을 서서 프랭크 매든이 샤일로의 앞 발 하나를 들어 잉크 판에 누른 후, 각자가 가지고 온 저서에 샤일로의 발도장을 직접 받게 하는 일도 있었다.

클로버는 이제 나이가 들고 더 이상 5마일 썩이나 되는 긴 거리를 걸을 수 없다. 샤일로 지역은 내가 그 3부작을 쓴 이후로 좀 달라졌다. 그 오래된 샤일로 기숙학교는 허물어 졌으나, 미들 아일랜드 시내 위에 놓여진 그

녹슨 다리는 아직 남아있고, 그 다리와 같이 신비도 아직 존재한다. 클로버는 그녀의 힘이 허락하는 한 사랑하는 주인 내외를 따라 어디든 갈 것이다. 그들의 개가 된 날부터, 클로버는 더 이상 그 다리를 건너지 않는다. 클로버는 그저 그 만큼만 가서 멈추고는, 오래 전 한 때, 그녀에게 일어난 일을 다시 떠올리는 것 같다.

샤일로는 다시 그 다리를 건널 필요가 없다. 우리 친구는 샤일로가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가장 행복한 개라고 말하고 있다. 렉스와 나는 거기에 몇 번씩 다시 가 보았고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이라는데 동의한다.



### <작가소개>

필리스 레이놀즈 네일러는 인디애나와 일리노이즈에서 페퍼라는 이름의 스프링거 스페니얼과 몇 마리의 고양이들을 키우면서 같이 자랐다. 그녀는 웨스트 버지니아에서는 살아 본 적이 없지만-그녀의 어머니는 아이오와주, 아버지는 남부지방 출신이다-그녀의 남편은 거기서 자랐고, 그들 부부는 남편 친구들과 친척들을 방문하러 그곳에 수차례 가곤 했었다.

이 샤일로 3부작에서 샤일로로 나온 실제 그 개는 웨스트 버지니아의 샤일로라는 작은 지역에서 아직도 행복하게 살고 있다. 뉴베리 메달을 받은 후, 한 때는 학대받던 이 개는 그 지역에서 유명인사가 되었고 사람들은 캐나다 같이 멀리서도 그 이야기가 일어난 배경을 보러 찾아 온다.

필리스 레이놀즈 네일러는 백 권도 넘는 책의 작가이며, 거기에는 ‘샤일로,’ ‘샤일로 계절,’ ‘샤일로 구출’ ‘대탈출’ ‘텍사스 제이크의 치유’ ‘용감한 3학년들 중 하나’ ‘데니의 개라는 것’ ‘어떻게 나는 작가가 되었나’ 그리고 엘리스 연작물이 있다.

그녀와 그녀 남편 렉스는 매릴랜드의 베데스다에 현재 살고 있다. 그들은 제프와 마이클 두 자녀와 소피아 네일러와 테레사 네일러라는 두 손녀를 두고 있기도 하다.

## 커버스토리

샤일로로 구하기 위해서라면 마티는 무엇이든 할 것이다.

마티 피터슨이 그의 집 뒤편 언덕에서 어린 비글 한 마리와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는 한눈에 그 개를 좋아하게 되었고 동시에 큰 곤란도 맞게 되었다. 마티가 샤일로라고 이름 지어준 그 개는 알고 보니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충을 가지고 있는 저드 트라버스의 것으로 그는 자기 개들을 확대하고 있었다. 그래서 샤일고가 저드로부터 마티에게로 도망쳤을 때, 마티는 이 개를 저드로부터 그저 숨겨주고 보호해 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마티의 비밀은 그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것이 되었고 그 일은 그의 가족 전체에게 발각되고 저드의 노여움을 사게 되었다. 마티는 샤일로로 그의 것이 되게 하기 위해 얼마나 힘든 일을 감당해야 할까?

★ “인간 심성의 최선과 최악을 간파하는 강력하고 감동적인 성찰.”

--북리스트, starred review

뉴베리 메달 수상작

미국 도서관 협회 선정 어린이 도서

## 참고 문헌

### 1. 국내서

안정효. 「영어 길들이기(번역편)」. 서울: 현암사, 1997.

이근달. 「알고 하면 쉬운 번역의 노하우」. 서울: 시사영어사, 1988.

강주현. 「강주현의 영어 번역 테크닉」. 서울: 국일미디어, 2002년.

### 2. 국외서

Robinson, Douglas. *Becoming a Translator: an accelerated cours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1998.

